대한영어영문학회 2021 봄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보편적 가치>

발 표 논 문 집

◎ 일시: 2021년 6월 5일 (土)

◎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 주최: 대한영어영문학회

◎ 주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21년도 대한영어영문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 일정표

전체 일정표			
시 간	내 용		장 소
13:00~13:30	학술대회 준비		인문사회관 (208호) ZOOM ID: 818 2464 0000 / PW: 0605
13:30~13:40 (10')	대한영어영문학회 회장 환영사	김창수 교수 (건양대)	
	감사패 전달		
13:40~14:20 (40')	기조연설 특강 (타자의 고통, 타자의 권위)	왕은철 교수 (전북대)	
14:20 ~14:30 (10')	휴식 및 발표장 이동		각 발표장
14:30 ~17:10 (160')	학 술 발 표		
17:20 ~17:40 (20')	연구윤리 특강	박혜숙 교수 (군산대)	인문사회관 (208호) ZOOM ID: 818 2464 0000 / PW: 0605
17:40~	폐회		

대주제: 팬데믹 시대의 보편적 가치				
시간 \ 장소		제 1 발표장 (인문사회관 208호) ZOOM ID: 818 2464 0000 / PW: 0605	제 2 발표장 (인문사회관 205호) ZOOM ID: 818 0881 8145 / PW: 0605	제 3 발표장 (인문사회관 204호) ZOOM ID: 842 7489 5564 / PW: 0605
		영문학	영문학/영어학	영어학/영어교육
	사회자	이일재(전북대)	김태형(군산대)	황요한(전주대)
제1발표 14:30 ~ 15:00	제 목	시간의 순차성 흩트리기: 2019년 작 『작은 아씨들』	조지 R. 스튜어트의 『땅은 영원하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읽기	현대국어에서 접두어 '개-'의 사용
	발표자	우승정(조선대)	김령희(계명대)	김종혁(전북대)
	토론자	홍은숙(동국대)	고민전(성균관대)	박혜숙(군산대)
제2발표 15:00 ~ 15:30	제 목	토마스 하디의 『귀향』: 우연성의 세계	영화 『Foxcathcher』의 등장인물의 행위에 관한 정신분석적 접근	플립러닝을 활용한 영어 능력 향상 방안: 영화 그린북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복기(전북대)	임창덕(동아대)	서은미(호원대)
	토론자	임보라(전북대)	김태형(군산대)	정혜인(충남대)
제3발표 15:30 ~ 16:00	제 목	응구기의 소설에 나타난 아프리카 여성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Strategies for Word Meaning Inference
	발표자	서은주(전북대)	이려(전주대)	박채희(선문대)
	토론자	이영화(전주교대)	박언주(전북대)	신동진(전주대)
16:00 ~ 16:10		Break Time		
제4발표 16:10 ~ 16:40	제 목	잃어버린 여성/성을 찾아서: 이시구로의 『그날의잔재들』 연구	Uneven Realizations of NC and NS in English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과: 메타분석
	발표자	임은영(전북대)	정진완(전북대)	이제영(전주대)
	토론자	장근영(군산대)	최재혁(목포대)	박채희(선문대)
제5발표 16:40 ~ 17:10	제 목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의 미학적 장치 -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중심으로	L2 Acquisition Status of English (In)transitivity on A C-selected Complement Factor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발표자	안아람(초당대)	이은경(전주대) & 김창수(건양대)	한진희(창신대) & 한가영(창신대)
	토론자	김요섭(군산대)	서홍원(전북대)	이혜진(원광대)
17:20 ~ 17:40		연구 윤리 특강 제 1 발표장 (인문사회관 208호) & ZOOM ID: 818 2464 0000 / PW: 0605		
17:40~17:50		폐회		

Contents

○ 제 4 발표 16:10 ~ 16:40

발표자	제목	쪽수
임은영(전북대)	잃어버린 여성/성을 찾아서: 이시구로의『그날의 잔재들』연구	64
정진완(전북대)	Uneven Realizations of NC and NS in English	71
이제영(전주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과: 메타분석	77

● 제 5 발표 16:40 ~ 17:10

발표자	제목	쪽수
안아람(초당대)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의 미학적 장치 -『제스처 인생』과『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중심으로	81
이은경(전주대) 김창수(건양대)	L2 Acquisition Status of English (In)transitivity on A C-selected Complement Factor	87
한진희(창신대) 한가영(창신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92

환 영 사

존경하는 대한영어영문학회 회원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열정과 지원 속에 "팬데믹 시대의 보편적 가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1년도 대한영어영문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봄 학술대회는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로운 시도로 회원 여러분의 뜻깊은 학문적 성과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쉼 없는 연구를 통해 얻은 학문적 성과를 후학들을 위해 흔쾌히 특강을 맡아 주신 왕은철(전북대) 교수님을 비롯하여, 바쁜 와중에도 훌륭한 옥고를 발표해 주실 우승정(조선대), 김령희(계명대), 김종혁(전북대), 이복기(전북대), 임창덕(동아대), 서은미(호원대), 서은주(전북대), 이려(전주대), 박채희(선문대), 임은영(전북대), 정진완(전북대), 이제영(전주대), 안아람(초당대), 이은경(전주대), 한진희&한가영(창신대) 15분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회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회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작년 학술지평가 재인증평가 에서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아 앞으로도 등재학술지의 위상을 가지고 전자저널로 발행되오니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이번 봄 학술대회가 열띤 학문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대한영어영문학회 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5일

대한영어영문학회 회장 김창수

타자의 고통, 타자의 권위
—다시 생각하는 재현의 윤리[1)]

왕은철(전북대)

문학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즉 '타자'를 중심에 놓는다. 이렇게 말하면 문학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라는 말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이 이러한 정의에 부합될 수는 없겠지만, 가난하고 아픈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낮은 자들에게 문학이 일정한 관심을 할애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낮은 자를 중심에 놓는다는 말은 문학이 환대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 환대는 타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주는 이타적인 몸짓이다.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낮은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 문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환대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작가는 세상의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뭔가에 짓눌리고 짓밟힌 타자들에게 목소리를 '준다'. 음식이 물질인 것처럼 언어도, 목소리도, 스토리도 일종의 물질이다. "타자의 철학자"라 불리는 레비나스가 환대를 타자에게 주는 물질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은 환대의 기초가 물질이라는 소박하지만 심오한 논리에서였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문학 속의 환대 역시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선한 의도가 있어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왜곡할 수 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한다 해도 결코 타자가 될 수 없기에 그렇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타자라는 실체와 타자를 재현하는 자 사이에 쉽게 메울 수 없는 틈과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주의 시 「문둥이」는 이것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이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시인은 이 짧은 시에서 '문둥이'가 아니면서도 '문둥이'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심정을 노래한다. 이 시가 발표된 것은 1936년, 시인의 나이 스물한 살 때였다. 시인은 그 젊은 나이에 스스로를 '문둥이'의 자리에 놓았다. 그는 '문둥이'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허황되지만, 어쩌면 허황된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더 큰

1) 필자의 「환대예찬—타자윤리의 서사」(현대문학, 2021)에 수록되어 있는 에세이 "타자로서의 나환자, 그 목소리"를 보완한 원고임.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1930년대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떠돌던 소문이어서, 시인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소문이었다.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들에게서 "해와 하늘빛"을 박탈하고 그들을 어두운 "달"과 "울음"의 세계로 밀어 넣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둥이'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이를 잡아먹는 존재였다. 허구의 폭력, 인식의 폭력이었다. 시인은 기꺼이 그 허구와 인식의 폭력 속으로 들어가 보리밭에 달이 뜨면 아이를 잡아먹는 '문둥이'가 되어 피울음을 울었다. 공감 능력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공감 능력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서 편견과 혐오와 증오의 시선을 받아내는 타자가 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러나 공감 능력은 인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임이 분명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타자가 되어 타자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타자의 고통은 결국 타자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고통에도 일종의 소유권이 있어서 타자가 느끼는 고통은 오롯이 타자의 것이다. 서정주의 시에는 그래서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한다. 하나는 타자가 '되어' 타자가 겪는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공감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면서 타자를 응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시선이다. 이것은 완전하게 타자가 '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것은 서정주의 한계라기보다 공감을 통해서 타자의 삶을 재현하고자 하는 모든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한계이다.

그래서 타자 스스로가 내는 타자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된다. 문제는 타자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도 내몰려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로부터 내몰리는데 어디에 대고 목소리를 내겠는가. 목소리를 낸다고 다 목소리가 아니다.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되려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귀에 닿아야 목소리가 된다. 그러나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 개마저도 "사람을 업신여기고 덤벼"(한하운, 「막다른 길」)드는 '문둥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이며, 목소리를 낸들 누가 들어주겠는가. 여기에서 그들이 아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 '대신' 말해주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스피박이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Can the Subaltern Speak?」라는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에 짓밟히고 권력에 눌리고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하위주체", 즉 타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이다. 한센인이었던 시인 한하운(1920-1975)의 존재가 특이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는 자칫하면 영원히 묻혀버렸을 진짜 '문둥이'의 목소리, 문둥이로 대변되는 타자의 목소리를 남긴 거의 유일한 한국 시인이다.

우리는 삶을 재현하려 하고 또 재현할 수 있다고 믿는 서정주 같은 작가들에게서 느끼는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감정적 모순을 한하운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게 된다. 작가 스스로가 '문둥이', 즉 타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들은 그의 말처럼 '문둥이'의 "영혼으로", '문둥이'의 "눈물로" 쓴 것들이다. "사람으로서 버림받은 문둥이의 인권을 선언하며 인간으로서 해방을 부르짖을 것"이라는 말이 서정주의 입에서 나오면 진실성을 의심받을지 모르지만, 한하운의 입에서 나오면 진실이 된다. 경험에서 나오는 상처와 고통, 울음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한하운이 쓴 작품들 중 1960년에 출간된 『황토길』에 실린 시들은 대단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시인이 자신의 시를 직접 골라 그 시가 쓰이게 된 정황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문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자신의 문학과 삶,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황토길』을 펼치면 제사 題詞가 나온다. "가장 곤란하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 괴로울 때도 사랑한다는 것이다. 생은 모든 것이다. 생은 신 神이다. 생을 사랑함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시인이 나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독자라면 이 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인이 이후로 펼쳐 보일 나환자의 현실적, 심리적 현실이 어떠한 것일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제사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유명한 말로, 시인은 이것을 속표지와 내용 사이에 놓아 독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일종의 문턱으로 삼고 있다. 그는 톨스토이의 말을 앞에 놓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암시하고 함의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의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후의 글들을 읽어가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독자가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옮겨 온 일종의 생명예찬을 마음에 담고 한하운의 시와 산문을 읽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 톨스토이의 말에 그만한 무게가 실려 있다는 말이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황토길』은 "괴로울 때도" 삶을 사랑하는 나환자의 실존적인 몸부림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자기혐오, 자살 충동, 자학처럼 부정적인 요소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삶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 길을 내어주고 옆으로 물러난다. 모든 것이 톨스토이의 말이 암시하고 함의하는 생명의 사랑, 생명의 환대로 흘러간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둥이'를 향해 보내는 증오와 저주의 시선이 아무리 자주 반복되어도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게 된다. 생명의 사랑, 생명의 환대를 위한 반어적인 몸부림이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환자가 "저주에 가득 찬 이 세상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게 되는 내재화 과정이다. '문둥이'가 '문둥이'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거리거리에 깡통을 쥐고 떠돌아다니는 문둥이를 보든지 부딪치게 되면 어쩐지 증오와 저주감이 치밀어 그 문둥이를 피해버리고는 불안에 떤다. 웬일인지 공포에 가까운 불안으로 초조해지는 나의 심리가 나도 몰라진다." '문둥이'인 그가 "똑같은 운명에 있는 다른 문둥이에게 증오와 저주"를 보내는 모순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도 모르게 차용한 데서 발생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돋아난
버섯이올시다 버섯이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올시다

— 「나」 부분

'문둥이'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잘못 돋아난 버섯"이다. "음지나 썩은 나무에서 무성생식無性生殖을 하는 하등동물下等動物 같은" 존재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시각이고, 이것은 다시 '문둥이'인 '나'의 시각이 된다. 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인식되는 실체가 '나'인 것이다. 사람들이 업신여기면, '나'는 당연히 그럴 만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그들이 '나'를 아무 가치도 없는 버섯으로 간주하면 '나' 스스로도 '나'를 버섯으로 간주한다. 그런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기에 사람의 발길에 채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거나, 삶을 비관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한하운의 시 곳곳에서 자살 충동이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세상이 버렸으니 '내'가 '나'를 버리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둥이'인 '내'가 봐도 혐오스러운데, "권세 좋고 돈이 많고 아름다운 행복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이를 볼 때"는 어떻겠는가. '문둥이'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도려내야 하는 버섯일 따름이다. 버섯 중에서도 귀한 버섯이 아니고 밟고 지나가거나 짓이겨도 상관없는 버섯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의사들이 치료를 거절할 까닭이 없고, 국가가 인권의 시각지대에 그들을 방치할 까닭이 없다. "병자를 치료해야 하는 병원도 나환자의 치료는 거절하고 병자에게 약을 팔아야 하는 약국도 나환자에게는 약을 파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이다. 왜일까. 삶과 생명을 사랑해서다. 그렇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가장 곤란하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괴로울 때도 사랑한다는 것이다". 다음 시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좁은 지역에도 한 포기의 꽃을 피웠더냐.

하늘이 부끄러워
문들레꽃 이른 봄이 부끄러워.

새로는 돋을 수 없는 빨간 모가지
땅속에서 움 돋듯 치미는 모가지가 부끄러워.

버들가지 철철 늘어진 초록빛 계절 앞에서
겨웁도록 울다가는 청춘이요 눈물이요.
그래도 살고 싶은 것은 살고 싶은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자살을 아끼는 것이오.
— 「봄」 전문

버섯 같은, 아니 버섯만도 못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순간, 꽃이 피고 버들가지가 늘어진 모습이 그의 마음을 돌려세운다. 같은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도 시인처럼 삶을 버

리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돌아섰을 지 모른다. 그렇다고 죽음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삶을 마감하지 않은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자살을 아끼는 것”이었을 따름이다.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생명은 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니 조금만 더 살아보고 결정하자고 자살을 미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둥이’가 죽음으로부터 돌아선다고 해서 세상이 그에 대한 “인간 학대”를 멈추고 그를 “인간 대열”에 합류시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은 “저주와 학대”를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박탈한 “천부의 인권”을 회복시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고 싶다는 표현 대신 ‘자살을 아낀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도 살고 싶은 것은 살고 싶은 것은/한 번밖에 없는 자살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보다 ‘문둥이’의 실존적 삶을 더 가슴 아프게 표현한 말은 세상에 없을 듯하다. 이것은 ‘문둥이’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소리다. 종이가 몸이라면, 그 몸에 ‘문둥이’의 고통을 새기는 소리다. 바로 이것이 타자가 내는 목소리의 위엄과 권위다. 이 위엄과 권위 앞에서 타자가 아니면서 타자를 재현하는 예술가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향해 돌아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혐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스스로가 ‘문둥이’임에도, 어쩌면 ‘문둥이’여서 더욱, 자기와 같은 ‘문둥이’를 증오하고 저주했던 모순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소록도로 가는 길에”라는 부제가 붙은 다음 시는 시인이 자기혐오를 떨쳐내는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쑤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룸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 리 먼 전라도 길.
— 「전라도 길」 전문

시인은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를 향해 가는 중이다. 그는 "소록도도 역시 나환자의 낙원이 못 되고 지옥의 하나"이자 "인간 동물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사형수가 사형장을 가는 그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발가락이 성치 않은데 마음마저 그러하니 발걸음이 가벼울 리가 없다. 그래서 "쩔룸거리며" 걸어간다. 가는 길도 녹록치 않다. 누구 하나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전에는 자신과 같은 '문둥이'를 혐오와 저주의 눈길로 바라보던 '문둥이'가 이제는 다른 '문둥이'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다른 '문둥이'가 더 이상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반가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엄청난 변화다.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 부모 형제보다도 반갑다. 낯선 문둥이지만 서로 만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는 이 말에 눈물이 쏟아진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문둥이밖에는 우리를 알 길이 없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그가 다른 '문둥이'에 대한 혐오를 떨쳐냈다는 의미이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혐오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놀라운 순간이다. 스스로에 대한 증오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버린 잉여적인 존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순간, 생명에 대한 그의 환대와 사랑은 비로소 시작된다.

지나간 것도 아름답다.
이즈음 문둥이 삶도 아름답다.
또 오려는 문드러짐도 아름답다.

모두가 꽃같이 아름답고
… … 꽃같이 서러워라.
— 「생명의 노래」 부분

이 시의 핵심은 첫째 행에서 셋째 행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조사 "도"에 있다. "지나간 것"과 "이즈음 문둥이 삶"과 "또 오려는 문드러짐"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키는데, 조사 "도"는 그것들을 "아름답다"라는 서술어로 이어준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아름답다는 말이다. 놀라운 긍정의 정신이다. "또 오려는 문드러짐"마저 아름답다고 하다니, 이보다 더한 생명의 노래, 생명의 예찬이 있을까. 그런데 "도"라는 조사는 '문둥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어 "아름답다"로 이어주는 긍정적인 조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서글픈 현실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문둥이 삶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좀 더 완전한 것이기 위해서는 조사가 바뀌어 '문둥이 삶은 아름답다'라는 자족적인 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를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게 '나환자'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사람들이 "나환자를 식인종같이 생각하고 나병이 당장 옮아버리는 것 같은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도'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세상이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니 '도'자를 붙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생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이 시도 한하운이 자신의 모든 시들을 가리키며 했던 말처럼 "자학의 노래이며 생명의 노래"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학의 끝에 언제나 생명에 대한 사랑과 환대가 있다는 것이

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베주호프 백작의 아들 피예르가 농민 보병 카라타예프의 단순하면서도 깊고 지혜로운 삶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한하운에게도 "생은 모든 것"이었고 "생을 사랑함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가 나환자들을 위하여 집단거주지를 만들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은 버림받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나환자들을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다 위대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위대했던 것은 그가 아니었으면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나환자들의 목소리를 펜으로 꾹꾹 눌러 종이에 새겼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하운을 통해 타자의 목소리, 타자의 문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보리피리'마저 나환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인이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어린 때 그리워
피―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ㄹ 닐니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피―ㄹ 닐니리.
―「보리피리」 전문

1955년에 나온 두 번째 시집 『보리피리』에 수록된 이 시는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읽으면 화자가 보리피리를 불며 고향과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다분히 서정적인 시로 읽힌다. 그가 왜 인간사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왜 눈물 바람을 하면서 언덕을 넘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오래된 타향살이에서 느낌직한 감정을 토로한 것쯤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나환자였던 한하운의 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독자는 '문둥이'가 느꼈을 절망과 고독, 저주와 멸시,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생명에 대한 사랑과 환대의 감정이 고통스럽게 전해져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타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생기는 위엄이고 권위다. 바로 이 위엄과 권위가 타자의 고통

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오만일 수 있으며, 타자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렇다고 타자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한 '그들 중 하나'에게만 맡기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고통을 당하는 타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고통을 당하는 일그러진 몸만이 있을 뿐, 그 몸이 당하는 고통을 언어적 상징으로 전환할 여력이 없다. 짓밟히고 짓눌리는 타자들이 어디에서 언어의 기술을 익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하운은 극히 예외적인 존재였다. 짓밟히고 짓눌리는 모든 타자들에게 '그들 중의 하나'인 한하운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들을 대변해줄 아무도 없이 그들의 고통당하는 몸만으로 스스로를 대변한다. 그들의 몸이 전부다. 그게 그들의 실존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그들에 관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한편에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몸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재현해주기를 기다리는 타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되기를 거부하고 재현될 수 없는 타자가 있다. 재현의 당위성과 재현의 불가능성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스피박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타협점을 제시한다. 타자의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타자의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늘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며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위해, 타자를 대신하여 타자를 재현하는 것은 윤리적 책무라는 것이다. 타자의 고통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재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현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쩌면 윤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나오는 몸짓에서 생성되는 것일지 모른다.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이 윤리적 몸짓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설가 박완서가 했던 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알려고 하고, 그것을 함께하고,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의 선의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누가 감히 타인의 고통을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으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참으로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오만은 없을 것 같다." 이것은 박완서가 가족과 함께 소록도에 들렀다가, 소록도 공원에서 한하운의 「보리피리」가 새겨진 돌을 어루만지며 느낀 부끄러움을 토로한 말이다. 한하운이 "인간 동물원"이라고 일컬었던 상처와 고통의 장소를 '구경'하겠다고 그곳을 찾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타자를 재현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들 모두의 것이어야 할지 모른다. 타자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반성할 일이다. 데리다의 말대로 "동화(同化)에 의해 타자를 전유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을 끊임없이 경계할 일이다. 레비나스의 말대로 타자의 고통과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놓아두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동일자의 전체주의"를 끊임없이 경계할 일이다.

바로 이것이 한하운의 고통스러운 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다. '문둥이'의 실존을 언어로 새긴 그의 시는 우리에게 고통의 소유권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있으니 타자의 고통과 관련하여 겸손해질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 타자의 고통과 상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다. 겸손함을 갖추게 되면 “동화에 의해 타자를 전유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데리다)이나 “동일자의 전체주의”(레비나스)는 어렵지 않게 떨쳐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타자가 아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타자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타자에 대해 얘기하거나 타자를 재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타자 위에 설 수도 있고,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은폐된 오만이나 우월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어쩌면 타자를 향한 겸손함에는 완성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을 향한 방향성만이 있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끊임없이 재현의 윤리와 관련하여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제 1 발표 ●

발표 및 토론

14:30 ~ 15:00

일정표

제 1 발표장 (208호)	시간의 순차성 흩트리기: 2019년 작『작은 아씨들』		
발표	우승정(조선대)	토론	홍은숙(동국대)
제 2 발표장 (205호)	조지 R. 스튜어트의『땅은 영원하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읽기		
발표	김령희(계명대)	토론	고민전(성균관대)
제 3 발표장 (204호)	현대국어에서 접두어 '개-'의 사용		
발표	김종혁(전북대)	토론	박혜숙(군산대)

시간의 순차성 흩트리기: 2019년 작『작은 아씨들』[1)]

우 승 정(조선대학교)

Ⅰ. 서론

루이자 메이 올컷(Louisa May Alcott)의 소설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은 1868년 출간된 이후 많은 재창작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 여성 감독인 질리언 암스트롱(Gillian Armstrong)이 페미니즘의 색채를 강하게 반영한 영화를 제작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영화는기 전까지 제작된 영화들은 빅토리아 시대 가족 윤리를 강조한다. '페미니즘 제4의 물결'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2019년 그레타 거윅(Greata Gerwig)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하여『작은 아씨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였다.

이 영화에 대한 평단의 공통된 칭찬의 키워드는 '각색'과 '페미니즘'이다.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 어려운 이유로 영화가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일종의 상품인 까닭에 시대의 흐름과 그에 맞는 관객의 관심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더군다나 소설 『작은 아씨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보수적 가족관과 윤리를 전달하는 표면적 플롯과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그들의 꿈에 대한 민감하고 진보적인 심층 플롯이 교묘하게 공존한다. 따라서 이 소설을 각색할 때 소설의 심층적 의미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거윅 감독은 이 작품을 "남북전쟁 후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현재에 당면한 이야기인가에 사로잡혔다"고 평가하면서 여성들의 의식과 정치적 영향력이 성장한 21세기 영화로 만들어냈다.

거윅이 소설의 각색을 위해 선택한 중요한 장치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끊어 성인이 된 자매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각 주인공의 대사를 그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식상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현대적으로 입체화되었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올컷이 예술의 상업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을 선택한 반면 거윅은 이 장치를 통해 로맨틱 영화의 결말을 결혼 없는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냈다. 그녀의 이런 '영리한' 각색으로 인해 『작은 아씨들』은 현대 페미니즘 경향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제4의 물결의 가치를 영화에 반영했다고 말하는데 겐스버그(Danielle Gensburg) 역시 "『작은 아씨들』의 중심에 페미니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2019년에 개봉한 『작은 아씨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살핀다. 이 연구는 거윅이 이전 영화와는 달리 페미니즘 연극의 기법인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끊어 현재 속에 과거를 보여주는 장치를 영화에 사용하여 과거 여성들의 문제를 얼마나 현대적으로 재현하려 했는지 살핀다. 이 기법은 원작의 표면적 주제를 전달하거나 대사 속에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넣은 기존의 영화들과는 달리 19세기 당시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올컷의 숨은 메시지를 찾아내어 구현하게 한 중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올컷이 행간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열망과 그것의 실현 과정을 그려낸 영화의 장치와 그 가치에 집중한다. 숨은 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전달방식에서 페미니스트적 사고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

1) 본 발표문은 「현대 페미니즘에 대한 영리한 각색: 거윅의『작은 아씨들』」,『영어영문학연구』62.4 (2020): 97-122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Ⅱ. 본론

19세기 미국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콩코드(Concord)를 배경으로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150년이 지나 인종적, 문화적, 관습적 배경이 다른 현대인들에게 생생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펠스키(Rita Felsky)는 '유추'(analogy)라는 개념을 들어 그 점을 설명한다. 그것은 "차이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부분적인 반향과 희미해진 반영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며 "멀고 낯설고 다른 것들을 상호침투하게 함으로써 가깝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우리의 경험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라한 옷을 입은 조(Jo)가 남자로 가득한 신문사에 기가 죽어 들어가는 모습이나, 비싼 실크 천을 사지 못하고 쓰다듬기만 하는 메그(Meg)의 손길에서 낯선 곳의 이야기인 "저것"이 내 주변의 "이것"과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 설득력 있는 세계가 형성된다. 『작은 아씨들』에 나타난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의 정치, 경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현재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미투'(#MeToo)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같은 사회운동에서도 유추를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현대 관객에게 유추를 만들어내는 것은 각자의 꿈과 야망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절망하고 후회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여성들은 사회가 강제하는 여성성과 가족 의무, 기독교 정신에 따라야 하는 압력 속에 있었다. 미혼 여성의 사회진출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기혼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었다. 거윅은 재능과 열망을 가졌어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당시 여성들의 문제가 현재 세계 여성의 문제와 유사하며 그런 면에서 『작은 아씨들』을 예술과 여성과 돈의 문제라고 보았다. 이 소설이 조, 메그, 에이미(Amy)가 각각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가난한 것은 정말 싫어." "어떤 애들은 예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공평해"라며 여성과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현대 관객도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연결되어, 세 자매와 현대 관객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경험을 유추하게 하고 서로의 친밀감을 높인다.

네 자매의 성인기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또다른 핵심은 자립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가진 꿈이다. 맏언니 메그는 결혼을, 조는 글쓰기를, 베스(Beth)는 음악가, 에이미는 화가를 꿈꾸며 그들의 불안한 현재를 헤쳐나간다. 마법처럼 달콤했던 과거는 사라진 채 주부가 된 메그의 더렵혀진 앞치마처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 주인공인 조는 글을 쓰며 가족을 부양했던 올컷의 삶이 투영된 존재다. 19세기 여성의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올컷이 글을 써서 성공한 것처럼 그녀가 그리는 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어두운 현재에서도 꿈을 꾸며 살아가고 그 꿈을 향해 용감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에서 조가 뉴욕의 출판사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다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과정이 험난한 줄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서서 용감하게 계속 전진한다. 거윅이 네 자매를 "세상 속의 젊은 여성들로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 관객들도 어두운 현재에서 꿈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이것은 결코 19세기 여성 판타지가 아니라 20세기를 관통해 21세기까지를 살아가는 네 자매의 페미니즘적 이야기인 것이다.

이 영화가 성공적으로 페미니즘 영화로 인식되는 데에는 거윅의 영리한 각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윅의 『작은 아씨들』은 시간의 순차성을 과감하게 바꿔 성년기를 앞으로 끌어오고 회상을 통해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시간의 편집을 통한 내러티브의 교차 혹은 역전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많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거윅의 『작은 아씨들』은 원작 내러티브의 순차적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성인이 된 자매들의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들로 시작한다. 그들의 현실은 차갑고 불안하다. 뉴욕에 있는 조는 자신의 소설이 담긴 원고를 들고 출판사 문 앞에 서 있

다. 편집장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쓸 수 없음을 깨달은 조는 그 소설을 필명으로 출판해 주길 원한다. 이어지는 하숙집에서 베어 교수(Friedrich Bhaer)에게 조는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궁핍한 자신의 생활에서는 돈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에이미는 파리에서 부유한 고모이 후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자신의 그림에 자신이 없어진다. 그녀는 결혼하려는 계획도 미술도 모두 잘 되고 있지 않아 가족이 그리울 뿐이다. 콩코드에 살고 있는 가난한 메그는 가난한 남자와의 결혼이 주는 경제적 압력에 힘겨워하고 있다. 베스는 자매들이 떠나 버린 텅 빈 집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다. 네 자매의 현재를 따라 흐르던 시간은 네 자매의 행복한 어린 시절로 역행한다. 그 시절 행복한 일상과 로리(Laurie)와의 만남이 지난 후 영화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이렇게 영화는 올컷의 원작을 교차 편집하여 네 자매의 현재와 7년 전 추억 가득한 어린 시절을 에피소드처럼 뒤섞는다. 플래시 백을 사용한 네 자매의 어린 시절은 따뜻한 파스텔 색조로 현재는 차가운 색조를 이용하여 시간의 차이를 구별하게 했다.

현재의 시간을 분절하고 어린 시절을 에피소드로 삽입한 후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내러티브 짜기는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매들의 현실에 소녀 시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그들이 아름답게 기억하는 과거도 사실 불안했고 힘겨웠다. 그들은 가난과 항상 싸워야 했고 불공정에 맞서야 했으며 그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사회의 제약에 좌절했다. 마치 고모로 대변되는 19세기는 “독신 여자가 돈 버는 방법은 사창가에 가든지 배우가 되는 것”외에는 없기에 부자와 결혼하는 방법으로만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때로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들은 약삭빠르게 시대의 규범에 타협하거나 이상적 여성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고 외로움을 참으며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거윅의 탁월한 점은 헌신적인 참정권 운동가였고 노예 폐지론자였으며 평생 독신으로 산 올컷이 행간에 교묘하게 집어넣은 생각을 읽어내어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그리하여 네 자매의 존재적 갈등과 추구하는 삶의 이상, 자신들의 세계로 용감하게 떠나는 페미니스트 성장 영화가 완성되었다. 이 과정을 관객은 앞서 말한 유추의 과정을 통해 메타적 입장에서 봄으로써 현실과 영화의 경계에서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도 발견한다.

시간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거윅 감독은 올컷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창의적인 대사를 삽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변화된 페미니즘의 분위기도 담을 수 있었다. 거윅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대사를 영화에 삽입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독립적 투사와 같은 ‘여성’을 강조하던 페미니즘 제2세대를 지나 ‘소녀’임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 결혼, 가족에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제3세대와 4세대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생각은 작가 올컷의 분신인 조가 베스가 죽고 난 뒤 의욕을 잃고 외로움에 말하는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로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엄마에게 자신이 너무 일찍 로리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아닌가 후회하면서 독신을 고집하던 그녀 역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솔직히 토로한다. 그녀는 엄마에게 “여자도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영혼이 있고 외모만이 아니라 야망과 재능이 있어요. 여자에게 사랑이 전부라는 말에 신물이 나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라며 괴로워한다. 그녀는 스스로 독신을 택했지만 그에 따른 외로움이라는 짐도 져야 했다. 메그 역시 결혼식 날 그녀의 배우로서의 재능을 결혼과 바꾼 점을 아쉬워하는 조에게 “내 꿈이 네 꿈과 다르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난 집과 가족을 갖고 싶어. 기쁘게 일하고 싸워 갈 거야. 그걸 존과 함께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가난을 감수한 결혼도 자신의 선택임을 분명히 밝힌다. 메그 대사 역시 원작 소설에는 있지 않은 창작으로 결혼이 여성 억압의 주된 도구임을 주장하며 거부한 페미니즘 제2 세대의 사고와는 다르다.

여성을 억압하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저항을 요구하던 급진적 페미니즘이 상생과 공존의 페미니즘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메그의 대사에서 뿐 아니라 에이미에게 자극을 받아 변화하는 로리에게서도 볼 수 있다. 파리의 미술실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성공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에이미의 대사는 지극히 속물적 사고로 들리지만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여성이 글을 쓰려면 자기만의 방과 돈이 있어야 한다"(3)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녀는 로리에게 재능과 결혼에 관한 소신을 말하는데 천재성이 없는 미술을 포기하는 대신 그 예술적 재능을 발판으로 사교계의 장식품이 되겠다고 한다. 에이미는 "원래 부자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게 왜 창피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야. 여자는 돈 벌 방법이 없잖아. 생계유지나 가족 부양도 힘들어. 여자가 돈이 있는 순간 남편 소유가 돼. 아이를 낳아도 남편 소유야. 남편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결혼이 수지맞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지 마"라고 반박한다.

이 프랑스 화실 장면은 여성이 화가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남성이 그린 그림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 때문이며 그 속에서 재능 있는 여성이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로리에게 일깨우기 때문에 의미 있다. 에이미를 통해 로리는 사랑에 좌절한 무기력한 도련님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자각하고 그들을 돕는 조력자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올컷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남녀 평등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미투 운동과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속에 있는 현재,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 남녀관계이자 사회상이다.

시간의 편집을 통해 거윅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올컷 소설의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의 결혼을 없애 페미니즘 사고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교차편집을 통해 소설과 현실을 메타적으로 전환시키며 거윅 각색의 정수를 보여준다. 신문사의 편집장 대시우드와의 협상에서 올컷이 투영된 조는 그녀의 소설 주인공 특성의 일관성을 위해 독신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시우드는 "제대로 된 결말은 잘 팔리는 결말이고 결말에서 여주인공을 독신으로 만들면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소설의 상업성을 강조한다. "소설에서조차 수지맞는 거래가 되는" 결혼에 대해 한탄하며 올컷-조는 돈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올컷-조는 소설의 판권과 인세를 받아는 대신 그가 원하는 '행복한 결혼'으로 소설을 결말짓는다. 그렇게 하여 현재까지 사랑받는 『작은 아씨들』이 탄생했음을 알린다.

영화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현실과 허구를 교차하여 조와 베어 교수의 결혼이라는 결말을 영리하게 뒤집는다. 영화 속 현실에서 올컷-조는 성공리에 출판된 『작은아씨들』의 첫 인쇄본을 받는다. 소설 속에서는 베어 교수와 결혼한 조와 그녀의 가족이 플럼필드(Plum Field)에 세운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올컷의 원작 소설에서 조는 결혼을 원치 않으며 자유롭게 소설을 쓰며 가족과 살기를 원한다. 그런 조가 갑자기 나이가 많은 베어 교수와 결혼하게 되는 결말을 올컷은 "우스꽝스러운 결혼"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열성적인 독자들이 쓴 수많은 편지와 "출판업자들이 작가가 원하는 대로 끝내지 못하게"한 고집이 큰 역할을 했다. 영화는 이러한 올컷의 고민과 현실을 녹여내면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모든 진보주의자들에게 『작은아씨들』은 여성은 아내나 엄마여야 한다는 지배 패러다임을 유효하게 했다"(King)는 과거의 비난을 효과적으로 상쇄한다. 조의 독신은 소설과 영화의 내용이 갖는 일관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윅은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처럼 강제된 해피엔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이 해피엔딩이라는 명제를 허구로 표현함으로써 헐리우드 영화계의 인습적 해피엔딩을 뒤집고 독신이라는 결말도 행복하다는 자의식 가득한 영화 엔딩, 다양한 대안적 영화 엔딩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Ⅲ. 결론

거윅의 영화는 인물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묘사하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거윅이 『작은 아씨들』에서 험난한 현실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삽입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꿈이 소중했고 꿈을 향해 달리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 꿈을 포기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꿈은 여성들을 키운 원동력이고 그들이 묵묵히 걸어

가는 에너지이다. 조와 에이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 그녀들은 분을 참지 못할 만큼 어렵고 불공정한 벽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고상해서 구부릴 수 없고 너무 고결해서 굽힐 수 없는” 영혼들이다. 거윅의 영화는 이런 여성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야망 있는 여자들에게 세상은 살기 힘들다”라는 에이미의 대사는 영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단서였다고 제작자 파스칼과 거윅은 공통으로 말한다. 파스칼은 “세상은 여전히 야망이 있는 여자들에게 힘들고 그것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어릴 때의 열망과 신념을 시들게 하는 장애물과 그것의 영향, 그리고 극복 과정에 대해 이 영화는 페미니즘 견해로 접근한다. 이 영화는 그 열망과 신념을 세상 규범이 강요하는 방식으로 꺽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그리고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말한다.

최초의 여성 각색자에 의한 1994년 작품이 크리스마스 아침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10대의 네 자매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반면 거윅의 『작은 아씨들』은 뉴욕의 출판사를 찾은 고개 숙인 25살 조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거윅의 작품에서 조는 소설가로서 남성 편집자를 상대하며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소설을 만들어내는 여성으로 성공을 거둔다. 이는 달라진 페미니즘의 분위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네 자매는 여타의 페미니즘 작품의 여성들처럼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호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에 따라 변화해왔다. 성인이 된 네 자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변을 바꾸고 서로 공감하며 그 공간에 남성들도 함께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선택, 돈, 권력, 남성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 그런 목소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이 영화는 말한다.

□ Works Cited

Aston, Elaine. *An Introduction to Feminism & Theatre*. London: Routledge, 1995. Print.

Alcott, Louisa May. *Little Women*. New York: Abrams, 2019. Print.

---. *The Selected Letters of Louisa May Alcott*. Ed. Joel Myerson. Georgia: Georgia UP, 1995. Print.

Felskey, Rita. *Literature After Feminism*. Chicago: Chicago UP, 2003. Print.

Gerwig, Greta. “ELLE Meets Greta Gerwig, the director of ‘*Little Women*’.” *ELLE KOREA*. n. page. Web. 7 Jan 2020.

King, John Paul. “‘*Little Women*’ a Smart, Richly Realized Period Romance.” *Los Angeles Blade*. n. page. Web. 26 Nov 2019.

Woolf, Virginia. *A Room of Their Own*. London: Penguin, 2004. Print.

조지 R. 스튜어트의 『땅은 영원하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읽기

김 령 희(계명대학교)

Ⅰ. 들어가며

"지구 종말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미국의 BAS(원자과학자 회보,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1947년 처음 게시된 이래 역사상 가장 종말의 시점에 가까워졌다고 발표된 2020년과 2021년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줄 유토피아적인 미래와 핵전쟁의 위협, 생태계의 파괴, 사이버 공간의 가짜 정보, 그리고 Covid-19 팬데믹의 공포가 야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가능성이 혼재하는 시대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생존에 대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있는 현 시점에서, 세상의 끝을 소재로 한 종말 서사, 혹은 종말이후 서사는 우리로 하여금 허구를 통해 현실의 공포를 돌아보고 재난의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게 만든다.

종말(이후) 서사는 신화와 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오래된 형태의 서사이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핵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종말의 실현 가능성에 큰 무게가 실리게 되었고, 인류 스스로 초래한 공멸에 대한 대중들의 두려움은 더 심화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군의 과학소설(SF) 작가들은 이러한 대중들의 우려를 그들의 소설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각각 1957년과 1959년에 발표된 네빌 슈트(Nevil Shute)의 『해변에서』(*On the Beach*)와 팻 프랭크(Pat Frank)의 『아, 바빌론이여』(*Alas, Babylon*) 등의 핵전쟁 소설은 종말에 관한 사색을 은유적 영역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이동시키는데 일조하였다(Clark et al. 8)

그러나 역사학자이자 지명(地名) 연구가인 조지 R. 스튜어트는 이들 작가들과 방향을 달리하여, "핵위협에 선행하면서도 그것보다 오래 지속되는 위험"(Robinson xv)인 팬데믹을 문명의 몰락을 초래하는 장치로 선택하였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One generation passes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s; but the earth abides forever.)"에서 제목을 따온 『땅은 영원하다』(*Earth Abides*, 1949)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 인류 대부분이 소멸한 세상에서 소수의 생존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다. 세상을 뒤바꾼 대격변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지리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관찰되는 자연의 변화와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땅은 영원하다』는 변화된 세상에 관한 생태학 보고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SF의 하위 장르인 종말(이후) 문학의 대표작이자 일반소설의 전통과 장르소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몇 안 되는 작품들 중 하나라는 평판(Hick 1949; Miller 1950)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땅은 영원하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소설에 구현된 종말 이후의 사회와 "지구의 얼굴을 바꾸는데 있어서 인간이 행하는 역할"(Polefrone 255)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을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고 인간과 상호관계로서의 환경 및 그 변화와 보전"(Murphy 4)에 관심을 갖는 생태 문학적 요소를 『땅은 영원하다』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중앙 행정부의 기능 정지를 알리고 신에게 미국을 구원해줄 것을 기원하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하는 『땅은 영원하다』는 치명적인 전파 속도를 가진 미지의 신종 전염병이 인류 대부분을 휩쓸고 가버린 북미 대륙의 상황을 지리학과 대학원생 이셔우드 윌리엄스(Isherwood Williams)의 시각으로 전달한다.

소수의 생존자들이 대격변 이후의 세상에서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는 과정이 소설 전체의 주요 플롯을 형성하지만, 이와 나란히 진행되는 부 플롯은 "지구의 재생과 회복력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Polefrone 256)에 관한 관찰과 기록이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블랙 크릭(Black Creek) 지역에 서식하는 "인간과 동식물의 과거 및 현재의 관계"(Stewart 5)[1]를 연구하는 이셔우드, 즉 이쉬(Ish)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 및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생 탐구하였던 조지 R. 스튜어트의 페르소나(persona)이다. 『땅은 영원하다』 이전에 발표한 『폭풍』(*Storm*, 1941)에서 스튜어트는 인간이 아니라 폭풍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2] "폭풍이 대지, 사회 기반시설,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기술"(Robinson xii)하였고, 1948년의 『불』(*Fire*)에서도 산불 스핏캣(Spitcat)이 동식물과 인간을 집어삼키며 시에라네바다(Sierra Nevada)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성찰은 『땅은 영원하다』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지리학자 이쉬의 시선을 통해 픽션과 결합된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몇 주 동안 시에라네바다의 깊은 산중에 칩거하던 이쉬는 방울뱀에 물린 상처에 홍역 같은 발진을 동반한 열병 증상이 겹쳐지며 사경을 헤매다 가까스로 회복한다. 도움을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간 그는 정체도 유래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가 사망하여 텅 비어버린 마을을 발견한다. 그는 공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지켜보는 듯한 호기심 많은 관객"(20)의 시선으로 "인류가 지상에서 깔끔하게 제거된"(20) 현 상황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인류의 부재가 가져오는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한다.

스튜어트는 혹여 있을지도 모를 생존자를 찾고 팬데믹이 미국 전역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이쉬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이탤릭체로 표기된 소품문(vignette)을 짜 넣어 생물학의 법칙과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한다. 메뚜기, 나그네쥐, 토끼, 물소 등의 개체수 변화를 예로 들며, 종의 개체수는 결코 일정하지 않고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는데 그 수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역병이 강타하여 그것을 거의 멸종 상태까지 몰고 간다는 것이다(9-10). 스튜어트는 북미 대륙을, 그리고 소설 속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볼 때, 아마도 전 세계를 공격한 팬데믹의 원인을 인간이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귀속시킨다. 전 지구적 재난을 인간이 "과학적으로 행한 생태적 과오의 끔찍한 결과"(최동오 93)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생태인식과 달리, 스튜어트가 바라보는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신에 의해 심판받지도 않는다"(Meeker 33).

'인간 대(對)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라는 상호 관계적 측면으로 생태계를 고찰하는 스튜어트는 이쉬의 관점을 통해 "인간이 없는 세상과 피조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32) 상세하게 기술한다. 팬데믹이 들이닥친 후에도 한동안은 세상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인간의 멸종은 지구 생명체의 보다 큰 리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263)는 폴 보이어(Paul Boyer)의 주장처럼, 전지적 작가의 관점에서 서술된 아래의 인용문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전체 흐름에 별다른 변화를 야기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달과 행성과 별들이)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굴뚝이나 모닥불로부터 뿜어져 나와 대기를 흐리는 연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화산과 산불에서는 연기가 솟아올랐다. 심지어 달에서 지켜보았다 해도, 그날 밤의 지구는 평상시의 광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더 밝지도, 더 어둡지도 않은.*
>
> *Then we must say that they saw no change. Though smoke from stacks and chimneys and campfires no longer rose to dim the atmosphere, yet still smoke rose from volcanoes and from frost-fire. Seen even from the moon, the planet that night must have shown only with its accustomed splendor—no brighter, no dimmer.* (21)

1) 이후 이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2) 스튜어트는 이 소설에서 인간들에게는 기능에 따른 이름을 부여하였지만 폭풍에게는 마리아(Maria)라는 여성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것이 "초강력 폭풍에게 이름을 붙이는 관행의 초기 예"(Robinson xii)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부재는 여러 방식으로 생태계의 지엽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인 개의 경우, 우리(kennel) 속에 들어있던 개체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모두 쓰러진다. 감금되어 있지 않던 운 좋은 부류들은 도시와 시골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점차적으로 “굶주림의 고통이 오랜 세기 동안의 문명을 허물어뜨림에 따라”(33) 야생의 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들만 살아남는다. 인간에 의해 자양분을 제공받던 꽃과 작물은 거친 잡초와 야생 식물에게 잠식된다. 클로버, 새포아풀, 과꽃, 동백나무, 장미, 등나무 등은 시들거나 수액이 모두 말라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고, 민들레, 야생 오이, 기타 잡초 등이 화단과 테라스를 침범한다. “예전에 제국의 군대가 격파되자 강인한 야만인들이 무방비 상태의 지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듯이, 지금은 사나운 잡초가 밀려 들어와 인간의 손에 애지중지 길러졌던 식물들을 파괴”(53-54)하고, 관리되지 않은 도로는 비바람과 태풍으로 갈라지고 매몰되어 잡초와 덤불의 서식지가 되고 만다.

스튜어트는 그의 픽션 속에 구현될 자연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시 그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UC 버클리(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여러 분야 교수들과 체계적인 면담을 수행하였고, 생태학자 스타커 레오폴드(Starker Leopold), 식물학자 허버트 메이슨(Herbert L. Mason), 그리고 동물학자 로버트 스테빈스(Robert C. Stebbins) 등으로부터 그 지역 동식물 공동체의 발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Polefrone 268). 또한 이쉬가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미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목격한 자연 환경에 관한 서술은 스튜어트 자신이 직접 1924년과 1949년에 자동차를 몰고 북미대륙을 여행한 경험에 기초하였다.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생태 소설에 관한 연구에서 로니 립슈츠(Ronnie D. Lipschutz)는 스튜어트가 대재앙(the Great Disaster) 이후에 다시 구축되는 신세계의 배경으로 캘리포니아를 선택한 것은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기대를 걸고”(1) 있기 때문이라고 시사한다. 캘리포니아는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래의 기술과 바다, 원시림, 그리고 사막으로 구성된 생태학적 환경으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지만, 빈번한 홍수와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해 유토피아적인 비전도 디스토피아적인 비전도 모두 제공해줄 수 있는(Lipschutz 1-2) 공간이라는 것이다. 스튜어트는 몰락 이후의 에덴(Eden)으로 캘리포니아를 설정하고 이쉬와 그의 아내 에마(Emma)에게 새로운 부족(The Tribe)을 이끌어나갈 임무를 부여한다. 작중 내내 본명 대신 이쉬와 엠(Em)이라는 별칭으로 언급되는 이 두 사람의 결합은, 헤브루어로 이쉬는 ‘남자’를, 그리고 엠은 ‘어머니’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절멸한 에덴을 재건할 아담과 이브의 노골적인 알레고리로 작용한다(Wells 473).

그러나 이쉬와 엠을 중심으로 한 줌의 생존자들이 버클리 인근 지역에 구축한 작은 공동체는 과거의 석판이 완벽하게 지워진 제로 지점(ground zero)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대부분 건재하고 자동차와 총기류도 꽤 오랜 세월동안 제 기능을 다한다. 모든 상점은 각종 물건들로 넘쳐나지만 그것의 소비자는 대부분 증발해버린 상태이기에, 무한대로 펼쳐진 상품 앞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은 생산적인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는 대신 쉽게 통조림을 따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쉬는 후속 세대가 문명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자신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식의 힘으로 문명을 부활시키려 시도하지만, 영광스럽던 과거의 미국을 재건하기에는 성인 일곱 명과 아이들 몇 명으로 구성된 이 초소형 사회가 너무 연약하다. 수 천 년 동안 축적되었던 인류의 문명이 십 여 명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쉬의 믿음은 변화된 환경에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세계관”(Wells 475)일뿐이다. 마침내 그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글을 익히고 그의 문명 회복 열망에 동조하던 아들 조이(Joey)가 사망하자, 이쉬는 지성을 바탕으로 “절멸의 어둠을 조금씩 뒤로 밀어내는 강한 보루”(167)를 형성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야생의 자연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자손들에게 전수한다.

대재앙 이후를 제 1년으로 삼고 새로운 연대기를 써내려가던 공동체가 제 48년에 접어들 무렵, 과거 문명의 유물은 기능을 상실하거나 고갈된 상태가 되고 2세대와 3세대로 구성된 젊은이들은 자동차

대신 개썰매를 몰고, 총 대신 활로 사냥하며, 멸종된 밀을 대신해 야생 옥수수를 재배하는 원시 문명으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집들이 자연 현상으로 파괴되고 밀려들어오는 야생 식물에게 잠식된 상태에서도 과거에 목수로 일했던 조지(George)로 인해 예전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던 그들의 주거 공간은 조지의 사망과 더불어 점차 허물어지고 마침내 버클리 인근을 전소시킨 산불로 인해 잿더미로 변한다. 부족의 구성원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구세대로서 국가도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 원시 상태의 캘리포니아를 바라보는 노년의 이쉬는 그 땅에 거주한 북미 원주민 야히(Yahi) 족의 마지막 생존자 이쉬(Ishi)를 상기시킨다(Perrin 114). 재난 직후 "인디언들의 세계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를 계승한 우리의 세계 또한 사라졌다."(34)고 절규하던 이쉬는 이제 그 땅이 백인들이 점령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한다.

번져가는 산불을 피해 젊은 세대와 함께 남쪽으로 대피하던 이쉬는 자연을 대하는 후손들의 태도가 조상들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목격한다. 과거에 퓨마로부터 공격당해 다리를 절게 된 이쉬는 대피 도중 지척에서 퓨마와 마주친 일행이 그것을 죽여서 위험을 제거하는 대신 그 동물에게 길을 내어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란다. 고기를 얻기 위해 죽여야 하는 동물이 아니기에 청년들은 불필요한 살상을 하지 않으며, 총을 접한 적도 없고 얼마 안 되는 인간을 마주친 적도 없기에 퓨마 또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그러나 확실히 그는 청년들이 동물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한때 동물을 바라보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동물과 동등한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애석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청년들은 여느 때처럼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길을 갔다. 그들은 퓨마를 피해 우회한 것에 전혀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냥 쓰러진 나무 둥치나 파괴된 건물을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
> Yet certainly he could not help thinking that the men had lost that old dominance and the arrogance with which they had once viewed the animals, and were now acting more or less as equals with them. He felt that this was too bad, and yet the young men were going along just as unconcerned as ever, cracking their little jokes and not feeling that they had been at all humiliated by having to detour the lion, any more than if they had had to detour around a fallen tree-trunk or a ruined building. (420)

이쉬는 자연과의 대면에서 인간의 지위가 약해졌음을 애석해하지만, 인류의 문명을 재건할 원동력이 "최후의 미국인"(423)인 그에게서 "새로운 사회의 첫 사람들"(424)인 청년들에게로 넘어감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다. 회귀할 수 없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 돌아서기"(177) 시작한 새로운 세대는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건강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한다.

3. 마무리하며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땅은 영원하다』는 팬데믹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문명을 복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전형적인 종말이후 소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주인공 이쉬가 1949년 당시에는 비교적 생소한 학문이었던 생태학을 연구하는 지리학자이며, 인간 활동의 부재로 인해 자연과 그 속의 다양한 생물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객관적인 눈으로 상세하게 기술한다는 점에서 북미 대륙에 대한 생태 기록물이기도 하다. 이쉬를 중심으로 한 인간들의 서사와 나란히 전개되는 자연에 관한 소품문은 "인간이 다른 종이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Meeker 4)에 관한 통찰력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생태계를 바라보는 스튜어트의 시각은 파국의 원인을 인간에게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류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범한 과오를 비난하는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같은 생태학자의 시각과 차이를

보인다. 팬데믹의 발생을 "신의 심판이라는 종교적 서사로 전유시키고 생존의 이유를 선과 악의 논리로 재해석"(권지은 52)하려 시도하지도 않는다. 『땅은 영원하다』에서 그가 그린 대재앙 이후의 세계는 자연과 인간이 대적하는 공간이 아니며, 자연 또한 인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제로 지점이 아니다. 자연에 행사하는 인간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스튜어트는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의 조화를 추구한다.

현대국어에서 접두어 '개-'의 사용

김 종 혁 (전북대학교)

I. 서 론

기성세대의 접두어 '개-'의 사용은 아래 표준국어 사전이 정의하는 바와 유사하다.

(1) a.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금, 개꿀, 개떡, 개먹, 개살구, 개철쭉

b.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꿈, 개나발, 개수작, 개죽음

c. ((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망나니, 개잡놈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통사적 특징: 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명사와 결합.
의미적 특징: 숙주명사/어근(host noun)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함.

그러나, 모든 한국어 화자가 접두어 '개-'를 (1)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 네티즌이 2013년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인 (2)는 접두어 '개-'가 현대국어에서,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2) (엄마와 중고생 두 딸과의 대화)
엄마: 엄마 친구가 야자하고 온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 했는데,
아들이 계속 '아 개맛있다' 이러면서 먹길래 어이가 없다더라. 늬들은 그런 말 안 하지?
딸1: 헐 그 아줌마 개빡쳤겠다.
딸2: 언니~ 그런 말 하지마. 엄마 개어이없잖아.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을 통해 '개-'와 관련된 현 시대 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 중 최근 자료인 2018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의 사용에 대한 정밀한 통계수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공된 자료와 통계 수치는 '개-'가 현재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한편, 과거 자료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10여년 동안 '개-'의 역동적인 변화를 역추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수집된 자료를 정제하고 정밀히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18년 이전 자료를 분석하여 2018년도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후에 다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료수집과 분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개-'의 변화 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 본 후, 2018년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개+X'가 기존의 유형인 '개+명사'로 사용된 경우와 새로운 유형인 '개+비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통사적으로 비교한 후,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 X와 결합하는

기존의 유형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X와 결합하는 새로운 유형을 의미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정리한다.

2. 자료수집 및 분류

기존의 뉴스나 공고문과 같은 공적미디어가 특정인에 의해 문어체로 기술되는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생각이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구어체로 기술되는 특성이 있다(정상준외, 2019; Oh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언어 변화가 그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대적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매체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twitter)라는 소셜미디어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를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1) 국내 통용되고 있는 SNS 중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으며 2) 140자라는 매우 초단편(일명 마이크로블로그) 메시지로 구성되어 매우 압축적인 어휘들이 주로 나타날 뿐 아니라, 3) '좋아요'와 '리트윗' 등 이용자가 원하는 메시지 즉 트윗(tweet)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 4)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하도록 공개했기 때문이다.

3. 결과 및 분석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매해 5월 20일과 21일 48시간 동안 접두어 '개-'개가 나타난 트윗수 아래와 같다.

표 1. 연도별 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

연도	A(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	B('개'가 사용된 트윗수)
2009	53	970
2010	684	9967
2011	1252	9440
2012	2876	10443
2013	2311	11110
2014	2222	10727
2015	4444	11218
2016	4270	11083
2017	5361	11397
2018	5911	11519
합계	29384	97874

<표 1> 칼럼 B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가 사용된(접두어 '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 트윗수는 트위터가 사용되기 시작한 2009년을 제외하고 매해 약 10,000개 정도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는 10년 동안 놀랄 만큼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칼럼 A 참조).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접두어 '개-'가 거의 9배 정도 더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개'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수와 접두어 '개-'만을 포함하고 있는 트윗수의 변화추이를 2010년부터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5, 6>과 같다. 접두어 '개-'의 비약적인 발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학계의 통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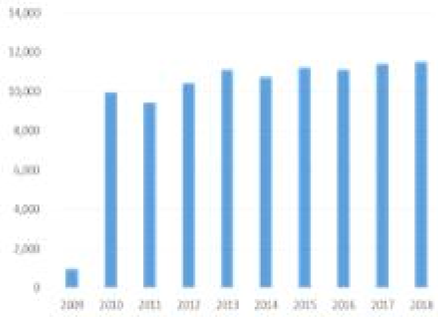


그림 5. ‘개’가 사용된 트윗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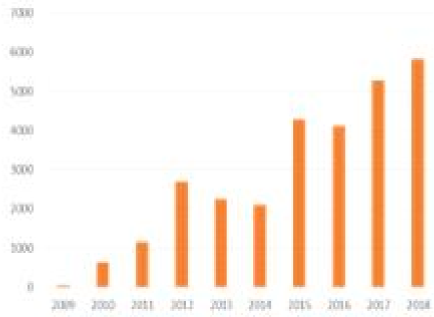


그림 6. 접두어 ‘개-’가 사용된 트윗수 증가 추이

접두어 ‘개-’의 사용 증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개-’가 매년 같은 폭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은 ‘개-’의 사용이 매년 약 두배 정도 증가하지만 (2010:684, 2011:1252, 2012:2876),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개-’의 사용이 다소 줄어들면서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12:2876, 2013:2311, 2014:2222). 3년의 정체기를 지나 2015년에는 다시 두배 증가하고 1년간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며 (2015:4444, 2016:427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 하고 있다 (2017:5361, 2018:5911). 이러한 변화의 추이가 일반적인 변화 추이를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와 같은 비속어에 국한된 현상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1. ‘개+X’의 통사적 사용 양상

본 절에서는 접두어 ‘개-’가 현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2018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도 5월 20-21일 48시간 동안 사용된 트윗 중 ‘개’를 포함한 트윗수는 총 11519개 이다. 이 중 접두어 ‘개-’와 관련이 없는 경우인, ‘한 개, 개인’과 같이 철자 ‘개’를 포함한 경우 5039개, 동물 ‘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569개를 제외하면 접두어 ‘개-’와 관련이 있는 트윗수는 총 5911개이다.

표 2. ‘개’의 분포, 2018년 자료

접두어 ‘개-’와 관련 없는 ‘개’를 포함한 트윗수		접두어 ‘개-’를 포함한 트윗수	‘개’를 포함한 모든 트윗 수 (합계)
철자 ‘개’ (예: 한 개)	동물 ‘개’ (예: 개를 샀다)		
5039	569	5911	11519

접두어 ‘개-’가 이틀 동안 5911회 사용됐다는 사실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화자들 사이에 ‘개-’가 강조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다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어휘인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화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진 어휘와 사용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의 자료가 추출된 동일 기간(5월 20-21일)을 바탕으로 빈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아쉽게도 필자들이 본 논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 새롭게 데이터를 추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다른 연구를 위해 이미 추출해 놓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18년 10월 1일과 2일 사이 48시간 동안 사용된 강조부사 ‘완전, 완전히, 리얼’의 사용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동종 어휘와의 빈도수 비교

리얼	완전히	완전	개
3944	2244	23184	5911

접두어 '개-'는 '완전히'나 '리얼'과 같은 부사어 보다는 훨씬 더 자주 사용되지만 '완전'에 비해서는 약 1/4정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가 '완전'과 같이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사용빈도수가 '리얼'이나 '완전히' 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은 '개-'가 트위터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접두어 '개-'가 사용된 경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자. 앞서 접두어 '개-'가 사용된 전체 빈도수가 5911개라고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5911개 중 98개를 제외하고 5813개의 경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논의에서 제외시킨 98개의 경우는, '개누리당'과 같이 '개'가 '새누리당'이라는 고유명사와 축약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서 접두어 '개-'의 전형인 '개소리'나 '개맛있다'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누리당'은 고유명사 '새누리당'이 없어진 현재에는 더 이상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이처럼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개체의 존폐에 따라 화자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98개의 경우 논외로 두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98개를 제외하면, 접두어 '개-'는 528개 숙주구(X)와 총 5813회 사용되고 있다. 528개의 숙주구와 '개-'가 5813회 사용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숙주구가 '개-'와 결합하는 빈도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와 자주 사용된 숙주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숙주구가 있는 것이다. '개-'와 결합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숙주구를 구분하면 <표 4>와 같다. 맨 앞 A는 '개-'와 나타난 숙주구의 빈도수를, B는 그 빈도로 출현한 숙주구의 패턴 수, 마지막으로 C는 해당 패턴의 전체 출현빈도로 A와 B의 곱으로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좌측 상단의 2열(A=1, B=251, C=251)은 '개-'와 단 1회만(A) 사용된 숙주구는 251개(B)로, 해당 패턴의 출현 빈도가 총 251회(C)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바로 그 아래 3열은(A=2, B=76, C=152) '개-'와 2회(A) 사용된 숙주구가 76개(B)이므로 '개-'가 76개의 패턴으로 총 152회(C)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4. '개+X'의 빈도수에 따른 유형수 자료

A	B	C=A*B	B비율	B누적 비율	C비율	C누적 비율	A	B	C=A*B	B비율	B누적 비율	C비율	C누적 비율
1	*251*	*251*	47.5%	***47.5%***	4.3%	***4.3%***	36	2	72	0.4%	94.3%	1.2%	32.8%
2	*76*	*152*	14.4%	***61.9%***	2.6%	***6.9%***	37	1	37	0.2%	94.5%	0.6%	33.5%
3	47	141	8.9%	70.8%	2.4%	9.4%	38	1	38	0.2%	94.7%	0.7%	34.1%
4	27	108	5.1%	75.9%	1.9%	11.2%	39	1	39	0.2%	94.9%	0.7%	34.8%
5	16	80	3.0%	79.0%	1.4%	12.6%	40	1	40	0.2%	95.1%	0.7%	35.5%
6	11	66	2.1%	81.1%	1.1%	13.7%	42	1	42	0.2%	95.3%	0.7%	36.2%
7	5	35	0.9%	82.0%	0.6%	14.3%	43	2	86	0.4%	95.6%	1.5%	37.7%
8	4	32	0.8%	82.8%	0.6%	14.9%	44	2	88	0.4%	96.0%	1.5%	39.2%
9	*16*	*144*	3.0%	***85.8%***	2.5%	***17.4%***	48	1	48	0.2%	96.2%	0.8%	40.0%
10	5	50	0.9%	86.7%	0.9%	18.2%	51	1	51	0.2%	96.4%	0.9%	40.9%
11	1	11	0.2%	86.9%	0.2%	18.4%	52	1	52	0.2%	96.6%	0.9%	41.8%
12	4	48	0.8%	87.7%	0.8%	19.2%	54	1	54	0.2%	96.8%	0.9%	42.7%
13	3	39	0.6%	88.3%	0.7%	19.9%	70	1	70	0.2%	97.0%	1.2%	43.9%
15	2	30	0.4%	88.6%	0.5%	20.4%	71	1	71	0.2%	97.2%	1.2%	45.2%
16	3	48	0.6%	89.2%	0.8%	21.2%	75	1	75	0.2%	97.3%	1.3%	46.4%
17	4	68	0.8%	90.0%	1.2%	22.4%	78	1	78	0.2%	97.5%	1.3%	47.8%
18	4	72	0.8%	90.7%	1.2%	23.7%	92	2	184	0.4%	97.9%	3.2%	51.0%
19	1	19	0.2%	90.9%	0.3%	24.0%	*136*	*1*	*136*	0.2%	***98.1%***	2.3%	***53.3%***
22	2	44	0.4%	91.3%	0.8%	24.7%	*142*	*1*	*142*	0.2%	*98.3%*	2.4%	*55.7%*
23	1	23	0.2%	91.5%	0.4%	25.1%	*148*	*1*	*148*	0.2%	*98.5%*	2.5%	*58.3%*
25	2	50	0.4%	91.9%	0.9%	26.0%	*153*	*1*	*153*	0.2%	*98.7%*	2.6%	*60.9%*
26	1	26	0.2%	92.0%	0.4%	26.4%	*155*	*1*	*155*	0.2%	*98.9%*	2.7%	*63.6%*
27	3	81	0.6%	92.6%	1.4%	27.8%	*171*	*1*	*171*	0.2%	*99.1%*	2.9%	*66.5%*

29	1	29	0.2%	92.8%	0.5%	28.3%	*219*	*1*	*219*	0.2%	*99.2%*	3.8%	*70.3%*
30	1	30	0.2%	93.0%	0.5%	28.8%	*255*	*1*	*255*	0.2%	*99.4%*	4.4%	*74.7%*
31	2	62	0.4%	93.4%	1.1%	29.9%	*395*	*2*	*790*	0.4%	*99.8%*	13.6%	*88.3%*
32	1	32	0.2%	93.6%	0.6%	30.5%	*682*	*1*	*682*	0.2%	*100%*	11.7%	*100%*
33	2	66	0.4%	93.9%	1.1%	31.6%	합계	528	5813	100%		100%	

<표 4>를 통해서 '개-'의 사용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가 528개의 숙주구와 사용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개-'가 어떤 숙주구와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알 수 없었으나, 이제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과거 '개-'의 사용 범위와 비교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강조 부사어의 사용범위와도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개-'가 모든 숙주구와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와 1회만 사용된 숙주구의 패턴수는 251개로 총 패턴수 528개의 절반에 육박(47.5%)하고, 범위를 넓혀, 10회 미만 '개-'와 결합한 숙주구의 패턴수는 453개로 총 패턴수의 86%를 차지한다. 한편, '개-'와 10회 미만 결합한 숙주구의 패턴수가 528개 중 453개로 (86%)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86%의 숙주구와 나타난 '개-'의 누적 빈도수는 1009회로, 총 출현 빈도수 5813회의 17.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개-'가 특정 숙주구와 집중적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와 10회 이상 결합한 숙주구의 패턴수는 75개로 전체 528개의 14.2%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과 사용된 '개-'의 사용 빈도수는 4804회로 전체 5813회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 '개-'와 가장 자주 결합한 10개의 숙주구의 경우, 사용 빈도수가 2715회로 거의 50%에 육박하여 '개-'가 사용되는 두 번 중 한 번은 이 열 개 숙주구 패턴 중 하나와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가 48시간 동안 528개 숙주구와 5813회 사용됐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특정 숙주구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언어 사용과 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가 후속 연구를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개-'가 10회 이상 사용된 숙주구를 빈도수 순으로 나열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고빈도 '개+X' 목록 및 사용 빈도

순위	유형	빈도수	순위	유형	빈도수
1	개웃긴다	682	39	개지랄	29
2	개빡친다	395	40	개빠르다	27
3	개좋(아한)다	395	40	개오랜만	27
4	개쩐다	255	40	개좆	27
5	개소리	219	43	개섹시(하다)	26
6	개잘	171	44	개고생	25
7	개예쁘다	155	44	개존잼	25
8	개많다	153	46	개터지다	23
9	개귀엽다	148	47	개존잘	22
10	개오지다	142	47	개충격(받다)	22
11	개짱	136	49	개에바	19
12	개싫(어하)다	92	50	개간지(나다)	18
12	개짜증(나다)	92	50	개노잼	18
14	개부럽다	78	50	개설레(다)	18
15	개졸리다	75	50	개시끄럽다	18
16	개재미(있다)	71	54	개빨리	17
17	개무섭다	70	54	개사랑하다	17
18	개씨	54	54	개소름돋다	17
19	개춥다	52	54	개신기하다	17
20	개못	51	58	개어렵다	16
21	개쓰레기	48	58	개열심(히)	16
22	개놀라다	44	58	개행복하다	16
22	개씹	44	61	개대박	15
24	개피곤(하다)	43	61	개발리다	15

25	개쳐	43	63	개귀찮다	13
26	개뜬금(없다)	42	64	개까리하다	13
27	개떨리다	40	64	개더럽다	13
28	개슬프다	39	66	개멋있다	12
29	개망하다	38	66	개억울(하다)	12
30	개크다	37	66	개존맛	12
31	개아프다	36	66	개힘하다	12
31	개오바(한다)	36	70	개맛있다	11
33	개어이(없다)	33	71	개깜놀	10
33	개힘들다	33	71	개나쁘다	10
35	개꿀	32	71	개당황(하다)	10
36	개너무	31	71	개미쳤다	10
36	개박살(나다)	31	71	개일찍	10
38	개새끼	30			

<표 5>에 나타난 '개+X' 예제들은 실제 사용된 개개의 예문들과 어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말에서 술어의 어미는 시제나 대화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웃기다'라는 술어의 형태는 '웃겨, 웃긴다. 웃기네, 웃기고 있네, 웃겼다'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위 표의 첫 번째 예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웃긴다'라는 유형으로 통합한 것이다. 나머지 74개의 예문들도 다양한 형태의 예문을 대표 예제로 통합한 것이다. 위의 '개+X' 유형의 실제 예문들은 (3)과 같다. 지면 부족으로 말미암아 고빈도 순으로 상위 10개 유형의 예문을 소개한다.

(3) a. 아 개웃겨 그걸 왜 귀에 꽂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 맨날 그럼 진짜 개빡쳐 그래놓고 장난이래ㅋㅋㅋ
c. 그것도 운이라니까 진짜 번개 맞아서 공유기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ㅋㅋㅋㅋ ㄹㅇ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진 모르겟지만 형은 그냥 운이 개좋거나 음청 나쁘거나 둘중 하나인듯 ㅋㅋ 중간이 없어 형은.... ㅋㅋ
d. 원더우먼 개쩌나봐 진짜ㅠㅠㅠㅠ
e. 어디서 내일이 종말이라는 개소리가 나온거야 난 아직 못해본게 너무 많단말이다ㅡ.ㅡ
f. 야 나대지마 나 짜파게티 개잘끓임
g. 외도에 왔다가 이제 가려고 배 기다리고 있음 개이쁠것이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듯.. -0-;
h. 아 아까 수정할거 개만아앗는데막상 보니까 기억은 안나고 잠은오고
I. ㅋㅋㅋ 표정 개귀여운데 ㅇㅅㅇ..
j. 라이브 개오진다진짜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는 통사적으로 과거 숙주구가 명사구인 경우에만 결합하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숙주구가 비명사구인 경우에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개-'가 화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아주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명사' 유형과 새로운 '개+비명사구' 유형의 패턴수와 빈도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가 명사구와 결합하는지 비명사구와 결합하는지 구분하는 일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특별한 테스트를 적용해보지 않고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4)의 예문을 살펴보자.

(4) a. 개웃긴다

b. 개맛있다

(4a)의 '개웃긴다'의 경우에는 '웃긴다'라는 숙주구가 명사구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개-'가 비명사구에 붙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4b)의 경우에는 '개-'가 '맛'이라는 명사구와 결합하는지 아니면 '맛있다'라는 전체 비명사구 술어와 결합하는지 한 눈에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형용사구는 명사구를 수식하는데 사용되고, 부사구는 비명사구를 수식하는데 사용된다는 통사적 성질을 이용하고자 한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구인 '엄청난, 말도 안 되는'은 명사구 '소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비명사구인 '웃기다'는 수식할 수 없다. 반면에, 부사구인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는 비명사구인 '웃기다'와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명사구인 '소리'와는 같이 사용될 수 없다.

(5) a.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b.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웃기다.

(4)의 예문들로 돌아가서, 접두어 '개-'를 (5)에서 사용된 형용사나 부사로 대체해 보자. 비명사구 술어 '웃기다'와 결합하는 '개-'는, (6a)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인 '엄청나게/말도 안 되게'로 대체 가능하지만 형용사인 '엄청난/말도 안 되는'으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반면, 명사구인 '소리'와 결합하는 '개-'는, (6c)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로는 대체 가능하지만 부사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4b) '개맛있다'의 '개-'는, (6b)에서 볼 수 있듯이, (4a)의 '개웃기다'와 같은 방식으로 (4c)의 '개소리이다'와는 다르게 사용된다. 따라서, '개맛있다'의 '개-'는 비명사구 술어 '맛있다'를 수식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6) a. 개웃긴다 →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웃긴다
b. 개맛있다 →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맛있다
c. 개소리이다 →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일반적으로, '개-'와 공기된 술어가 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숙주구는 명사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술어 전체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6b,c)는 술어인 '맛있다, 소리이다'가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6b)에서는 '개-'가 술어 전체를 숙주구로, (6c)에서는 '개-'가 술어 내의 명사만을 숙주구로 취한다. 이를 구조적으로 나타내면 (7)과 같다.

(7) a. 개[맛있다]
b. [개소리]이다

그러나, (7)과 달리 '개-'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8)의 예를 보자. (8a)의 '개충격(받다)'에서 '개-'는 형용사인 '엄청난/말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부사인 '엄청나게/말도 안 되게'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8b,c)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가 뚜렷하게 '충격'이라는 명사만을 꾸며 준다거나 '충격받다'라는 전체 비명사구만을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8d)에서처럼, 둘 다 수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8) a. 개충격(받다).
b. 엄청난/말도 안 되는 충격(받다)
c. 엄청나게/말도 안 되게 충격(받다)
d. [개충격]받다/개[충격받다]

정리하자면, '개+X'의 통사적 형태는 '개-형용사/부사 대체' 테스트를 통해서 (9a,b,c)와 같은 세 가지 기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9d)의 네 번째 형태는 (9b)의 2유형으로 통합 가능하지만, 축약형이라는 독특함이 있어 별개의 형태로 취급하고자 한다.

(9) a. 1유형: 개+명사구
b. 2유형: 개+비명사구
c. 3유형(중의형): 개+명사구, 개+비명사구
d. 4유형(축약형): 개존잘

(9)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2018년 자료 '개+X' 528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전체 개+숙주구 통사 유형, 패턴수, 빈도수

통사 유형	패턴수	패턴수 비율	빈도수	빈도수 비율
1유형 (개+명사구)	74	14%	527	9%
2유형 (개+비명사구)	350	66.3%	4695	80.8%
3유형 (중의형)	87	16.5%	477	8.2%
4유형 (축약형)	17	3.2%	114	2%
합계	528	100%	5813	100%

기존에 사용되던 형태인 1유형은 총 528개의 '개+X' 중 14%인 74개 패턴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새롭게 나타난 2유형인 '개+비명사구' 형태의 패턴수는 350개로 전체 패턴수의 66.3%에 이른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개+비명사구' 형태의 술어가 '개+명사구' 형태 보다 4.7배 이상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유형인 87개의 중의형을 2유형으로 포함시킨다면 이 둘 간의 격차는 더 심해진다. 그 합이 총 423개로서 전체 '개+X' 패턴수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개+X'의 1유형과 2유형은 빈도수와 관련하여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1유형인 74개의 '개+명사구'가 총 527회 사용되어 전체 사용 빈도수 5813회의 10%도 되지 않는 반면에, 2유형인 '개+비명사구' 350개는 총 4695회 사용되어 전체 사용 빈도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형인 2유형이 구형인 1유형보다 8배 이상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비명사구' 유형의 패턴수가 '개+명사구' 유형의 패턴수보다 약 4.7배 이상 많으며 8배 이상 더 자주 사용된다는 이 사실은 기존 학자들의 주장, 즉 '개-'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528개 패턴에서 범위를 좁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6>이 보여 주지 못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0회 이상 사용된 75개 패턴의 통사 유형을 (9)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0회 이상 사용 된 '개+X'의 통사 유형, 패턴수, 빈도수

통사 유형	패턴수	패턴수 비율	빈도수	빈도수 비율
1유형 (개+명사구)	4	5.3%	324	6.7%
2유형 (개+비명사구)	57	76%	4062	84.6%
3유형 (중의형)	9	12%	331	6.9%
4유형 (축약형)	5	6.7%	87	1.8%
합계	75	100%	4804	100%

10회 이상 사용된 75개의 '개+X' 중 1유형인 '개+명사구' 형태를 가진 구는 단 4개에 불과하다. 이는 2유형인 57개의 '개+비명사구'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4유형 '개깜놀'과 같은 축약형보다도 더 적은 수치이다. 이는 자주 사용되는 '개+X'일수록 '개+비명사구' 형태가 선호되며 '개+명사구' 형태는 몇몇 특정한 구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실제로, 가장 자주 사용된 10개의 구에서 '개+명사구' 형태를 가진 것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개소리' 하나뿐이고 나머지 9개는 '개+비명사구' 형태를 가지고 있다.

<표 7>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축약형의 사용이다. 아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축약형의 전체 패턴 수는 17개에 지나지 않으나, 이 중 5개가 10회 이상 사용되어 30%에 육박하는 수가 자주 사용되는 군에 속한다. 이러한 비율은, 전체 74개 중 4개만이 10회 이상 사용되는 '개+명사구' 유형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심지어는 '개+비명사형'의 16.3% 보다도 높다. 이는 축약형이 패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화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용된다는 형태라는 것을 보여 준다.

표 8. 통사 유형별 전체 패턴 대비 고빈도 패턴

통사 유형	패턴수	패턴수 비율	10회 이상 사용된 패턴수	10회 이상 사용된 패턴수 비율
1유형 (개+명사구)	74	14%	4	4/74 (5.4%)
2유형 (개+비명사구)	350	66.3%	57	57/350 (16.3%)
3유형 (중의형)	87	16.5%	9	9/87 (10.4%)
4유형 (축약형)	17	3.2%	5	5/17 (29.4%)
합계	528	100%	75	75/528 (14.2%)

3.2. '개+X'의 의미적 사용 양상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접두어 '개-'를 통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기능 또한 확장시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개-'가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현대국어에서 '개-'는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기 보다 숙주구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10)의 예문을 살펴보자.

(10) a. 소리 → 개소리
b. 고생 → 개고생
c. 여신 → (*)개여신
d. 똑같다 → (*)개똑같다

'개-'는 과거에 (10a)와 같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소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소리'로 전환시키거나 (10b)와 같이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 '고생'과 결합하여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고생'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미적 기능 때문에, '개-'는 (10c)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여신'과는 결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과거 불가능하였던 (10c)와 같은 예문이 자연스럽게 통용된다. 이는, '개-'가 숙주구인 '여신'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신'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를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변화시키지도 않는다. (10d)에서 '개-'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똑같다'와 결합하여 '완전히'와 같은 강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개-'는 숙주구 자체의 의미와 '개+X' 전체 의미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1유형 (부부형 - 앞 글자를 따서), 중립적인 숙주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2유형 (중부형), 긍정적인 숙주구와 결합하여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3유형 (긍긍형), 중립적인 숙주구와 결합하여 중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4유형이 (중중형) 있는 것이다.

(11) a. 1유형 (부부형): 숙주구 (부정적 의미) → 개+숙주구 (부정적 의미)
b. 2유형 (중부형): 숙주구 (중립적 의미) → 개+숙주구 (부정적 의미)

c. 3유형 (긍긍형): 숙주구 (긍정적 의미) → 개+숙주구 (긍정적 의미)
d. 4유형 (중중형): 숙주구 (중립적 의미) → 개+숙주구 (중립적 의미)

접두어 '개-'의 의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4개의 유형을 가진 '개+X'가 현재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해야 하고 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개-'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개-'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11)의 기준에 따라 자세히 분류하고자 한다.

(11)를 기초로 '개+X'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의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들이 알고 있는 한, 어떤 단어의 긍·부정성을 명확히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학계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긍·부정성을 구분하고자 한다. '웃긴다, 좋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는 긍정으로, '빡친다, 나쁘다'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는 부정으로, '많다, 똑같다'와 같이 긍·부정성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경우는 중립으로 분리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의미 유형에 따른 '개+X' 패턴수, 빈도수

유형	패턴수	빈도수
1형 (부부형)	258	2005
2형 (중부형)	15	255
3형 (긍긍형)	146	2674
4형 (중중형)	109	879
합계	528	5813

접두어 '개-'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인 3유형은 총 146개로 전체 528개 패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인 1유형은 총 258개로 전체의 약 49%,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현대국어에서 '개-'는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 크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숙주구와 결합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구와 비교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사실, 즉,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숙주구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의 전통적인 의미가 신조 의미보다 현대국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면에서 부정적이다. 먼저, '개-'의 전통적 의미와 신조 의미의 분포를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정에 긍정을 대립시키기 보다는 중립을 포함한 비부정을 대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립적 의미를 강조하는 4유형 또한 3유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다 새롭게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이다. 1유형과 2유형을 전통적 의미로, 3유형과 4유형을 신조 의미로 묶어 비교하게 되면, 그 결과는 273 대 255, 거의 50대 50으로 백중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의 전통적인 의미가 신조 의미보다 현대국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조 의미가 전통적 의미보다 현대국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 '개+X'의 패턴수가 아닌 빈도수를 고려해 보자. 비록, 3유형이 (긍긍형) 1유형에 (부부형) 비해 패턴수는 적지만 사용 빈도수는 2674>2005로 오히려 더 높다. '개-'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횟수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 둘 간의 격차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2유형과 4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벌어진다. '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사용된 총 빈도수는 2260인 전체의 39%인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 없이 사용되는 빈도수는 3553으로 전체 6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자주 사용되는 '개+X'일수록 위에서 살펴 본 전통적 의미와 신조 의미 간의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0회 이상 사용된 75개의 '개+X'를 살펴보자.

표 10. 고빈도 '개+X'의 의미유형에 따른 패턴수, 빈도수

유형	패턴수	빈도수
1형 (부부형)	32	1454
2형 (중부형)	1	219
3형 (긍긍형)	27	2481
4형 (중중형)	15	650
합계	75	4084

<표 9>에서 보았듯이, '개+X' 전체 528 패턴 중, 1유형과 3유형은 258:146 비율이었고 1+2유형과 3+4유형은 273:255이었다. 그러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0회 이상 사용된 경우만을 고려하면, 1유형과 3유형은 32:27로 차이가 거의 없으며, 1+2유형과 3+4유형은 33:42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빈도수와 관련해서는 신조 의미가 전통적 의미를 두 배 이상 앞선다. 3유형의 빈도수가 1유형의 빈도수에 비해 2481:1454로 훨씬 앞서 있고 3+4유형과 1+2유형의 빈도수는 3131:1673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10개의 '개+X'를 살펴보자.

표 11. '개+X'의 고빈도 상위 10개의 의미유형, 빈도수

<table>
<tr><th>빈도 순위</th><th>패턴</th><th>유형</th><th>빈도수</th><th>합계</th></tr>
<tr><td>1</td><td>개웃긴다</td><td>3유형(긍긍형)</td><td>682</td><td rowspan="7">1948</td></tr>
<tr><td>2</td><td>개좋(아한)다</td><td>3유형(긍긍형)</td><td>395</td></tr>
<tr><td>4</td><td>개쩐다</td><td>3유형(긍긍형)</td><td>255</td></tr>
<tr><td>6</td><td>개잘</td><td>3유형(긍긍형)</td><td>171</td></tr>
<tr><td>7</td><td>개예쁘다</td><td>3유형(긍긍형)</td><td>155</td></tr>
<tr><td>9</td><td>개귀엽다</td><td>3유형(긍긍형)</td><td>148</td></tr>
<tr><td>10</td><td>개오지다</td><td>3유형(긍긍형)</td><td>142</td></tr>
<tr><td>2</td><td>개빡친다</td><td>1유형(부부형)</td><td>395</td><td>395</td></tr>
<tr><td>5</td><td>개소리</td><td>2유형(중부형)</td><td>219</td><td>219</td></tr>
<tr><td>8</td><td>개많다</td><td>4유형(중중형)</td><td>153</td><td>153</td></tr>
<tr><td>합계</td><td></td><td></td><td>2715</td><td>2715</td></tr>
</table>

화자들에게 가장 애용되는 10개의 '개+X' 중 7개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빈도수 또한 전체 2715회 중 1948(72%)회로써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결론적으로, '개-'가 신조 의미로, 즉,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닌 숙주구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패턴수는 전체의 약 50%, 빈도수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주 사용되는 '개+X'일수록 신조 의미의 패턴수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개-'가 접두사를 넘어 '완전'과 같은 강조 부사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 논의를 통해, 현대국어에서 '개-'는 강조 부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 '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는가? 즉, 부정적 의미를 더하는 전통적 방식과 강조 부사로서 사용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여전히 공존한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1유형(부부형)과 2유형(중부형)을 '개-'가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숙주구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1유형인 부부형을 전통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유형인 '개빡친다'와 같은 경우에서도 '개-'의 역할이, 3형인 '개웃긴다'와 마찬가지로, 강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빡친다'와 '개웃기다'에서 '개-''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숙주구 의미가 하나는 긍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유형인 중부형은 이런 식의 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소리'의 경우에 '개-'가 '소리'를 강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유형인 중부형은 '개-'가 숙주구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전통적인 경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중부형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수가 15개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중부형을 대표하는

몇몇 예를 살펴보자.

(12) 개소리, 개판, 개논리, 개뿔, 개기름, 개떡, 개꿈, 개쑈...

(12)의 예들은 모두 기성세대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다. 즉, 2형인 중부형은 과거 부모 세대가 사용하던 소수의 단어를 젊은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사용하는 경우인 것이다. 현대국어를 사용하는 신세대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수의 중부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세대들은 '개-'를 신조 의미인 부사로만 사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숙주구에 부정의 의미를 더해 전통적인 유형으로 보이는 1유형의 경우에도, 사실 신세대들은 '개-'를 신조 의미인 강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개+X'는 역동적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에서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성 있게 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 트위터로 부터 5월 20-21일 48시간 동안 10년에 걸쳐 사용된 트윗을 추출하였으며 '개+X'가 포함된 트윗을 걸러내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X'의 사용이 2010년 684회 비해 2018년에는 거의 9배인 5911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가 과거 10년간 역동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개+X'가 현대국어에서 통사·의미적으로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18년 5813회 사용된 528개의 패턴을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하여 패턴수와 빈도수를 비교하였다. 통사적으로, 새로운 유형인 '개+비명사구'가 기존의 유형인 '개+명사구'에 패턴수나 빈도수에 있어 8배 이상 앞서고 있으며, 의미적으로도, 접두어 '개-'가 새로운 유형인 강조 부사의 형태로 사용된 경우가 전체 528개 중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패턴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는 '개-'가 현대국어에서 통사·의미적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개+X'가 지난 10년에 걸쳐 통사·의미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2018년 자료 뿐만 아니라 이전의 자료도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출한 자료를 일일이 정제하고 구분하는 작업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는 후에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희숙. (2012). 통신 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 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1, 61-87.

김정선·이필영·김태경·이삼형·장경희·전은진. (2011).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 유행어, 은어 사용 실태. *한국언어문학*, 77, 285-324.

김정선·이필영·김태경·이삼형·장경희·전은진. (2013).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와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 실태 조사. *국어교육*, 140, 153-181.

김태경·장경희·김정선·이삼형·이필영·전은진. (2012).청소년의 비속어, 욕설, 은어, 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국*제어문* 54, 43-93.

노명희. (2013). 국어의 탈문법화 현상과 단어화. *국어학*, 67. 107-143.

배상복. (2016). [우리말 바루기] 개좋다. *중앙일보* 온라인주소 https://news.joins.com/article/19838076

이탁. (1967). 국어 어원 풀이의 일단, *한글*, 140, 26-72

손평호. (2014). '개-'의 생산성과 범주 설정의 문제 - 신어 '개+X'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9, 85-116.

엽영임·양명희. (2016). 강조어 '완전'의 사용에 대한 고찰 - 구어와 통신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2,

251-269
이하얀·황화상. (2017) . ‘완전’의 문법 기능의 확장에 대하여. *한국어학*, 74. 147-167.
임현열. (2015). 신조어에서 나타나는 어형 변화의 한 양상 - 정도부사 ‘캡(<Captain) > 캐 > 개’의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3, 111-136.
장경현. (2019). 신조어 접사의 형태·의미 특성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1), 311-336.
장부리. (2012). *한중 통신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연구*. 석사논문, 조선대학교.
전은진·이삼형·김정선·김태경·이필영·장경희. (2011).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371-406
정상준, 윤보현, & 오효정. (2019). 언어 네트워크 기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및 매체별 특성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81-207.
표준국어대사전. (2020). 국립국어원. 온라인주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홍달오. (2014). 접두사의 준부사화 경향에 대한 고찰 접두사 ‘개’를 중심으로. *언어*, 39(1), 231~249.
Oh, H. J., Kim, C. H., & Jeon, J. G. (2020). Public sense of water fluoridation as reflected on Twitter 2009-2017. *Journal of Dental Research*, 99(1), 11-17.

○ 제 2 발표 ○

발표 및 토론
15:00 ~ 15:30

일정표

제 1 발표장 (208호)	토마스 하디의『귀향』: 우연성의 세계		
발표	이복기(전북대)	토론	임보라(전북대)
제 2 발표장 (205호)	영화『Foxcatcher』의 등장인물의 행위에 관한 정신분석적 접근		
발표	임창덕(동아대)	토론	김태형(군산대)
제 3 발표장 (204호)	플립러닝을 활용한 영어 능력 향상 방안: 영화 그린북을 중심으로		
발표	서은미(호원대)	토론	정혜인(충남대)

토마스 하디의 『귀향』: 우연성의 세계

이복기(전북대)

하디(Thomas Hardy) 소설에 대한 논의에서 하나의 커다란 중심축을 이루는 주제가 결정론이다. 하디가 종교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기원』(*The Origin of Species*)과 그의 주장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시킨 헉슬리(Thomas Huxley)나 스펜서(Herbert Spencer) 같은 학자들의 저작을 읽으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론이 지탱하게 된다.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은 외재하는 강력한 힘에 의한 개인의 지배를 가정하는데, 하디의 작품 중에서는 『캐스터브리지의 시장』에서 "환경이라는 운명"으로 표현되거나, 『더버빌가의 테스』에서는 "신들의 대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귀향』에서는 클림(Clym Yeobright)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운명에 의해 혹사당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하디 자신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그의 언급들은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디는 "나는 어떤 철학도 갖고 있지 않다－내가 설명하는 것은 단지 마술 쇼에서 당황한 아이의 그것처럼 혼란스러운 인상들의 더미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하디의 독서 편력을 고려한다면 그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의 소설 속에서 결정론이 일관성을 가진 관점으로 세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하디가 결정론적 사고를 전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서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단계이다. 『귀향』에서는 클림이 아내 유스타시아(Eustacia Vye)와 데이먼(Damon Wildeve)이 사망한 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결정론적 표현이 사용된다. 결정론은 초월적인 종교적 거시관점을 대체하고 행위주체를 전능한 신에서 운명이나, 환경, 의지 등으로 대체한 사상의 체계이다. 하디에게 다위니즘은 기독교를 대체한 또 다른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상이다. 로빈슨(Roger Robinson)이 하디소설에서 다위니즘은 "대규모 시간적 배경으로 하디가 그의 인물들을 점점 더 그 속에서 움직이도록 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기독교적 거시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세계관이다. 하지만 거시적 틀 안에서 진행되는 개개인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매이고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미시적인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규칙성의 기저에는 무한한 우연성이 작용하고 그 우연적인 사건들을 범주화한 한 것이 규칙이다. 그래서 하디 소설에서 서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우연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개인의 삶을 우주적인 거시관점에서 회고하면 신, 운명, 환경과 같은 용어들을 동원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세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은 조금이라도 파국적인 우연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걸음을 딛게 된다. 이 발표는 거시적 시각에 도달할 수 없는 조건 아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우연성이 하디 소설의 서사의 방향을 이끈다는 주장을 『귀향』을 분석하면서 개진할 것이다.

『귀향』에서 거시적 관점은 에그던 황야(Egdon Heath)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부각된다. 에그던 황야는 선사시대부터 변하지 않고 그곳에 존재하면서, "변화에 표류하고 제

어할 수 없는 새로움에 괴롭힘 당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다"(6). 마치 성경에서 야훼를 형용할 때처럼, 에그던 황야는 "바다가 변했고, 들판이 변했고, 강, 마을, 사람이 변했지만 에그던은 여전하다"라고 형용된다(6). 이처럼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활용하여 생활하고, 외부의 세계와는 접촉이 없이 살아간다. 하디의 다른 소설에서처럼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세기 초반은 "제어할 수 없는 새로움"이 근대성(modernity)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전체를 휩쓸던 시기였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그 힘이 미치지 않았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관습을 지키면 변치 않는 에그던과 어울리게 지낸다. 이곳에서 11월 5일의 불꽃축제는 화약음모사건(Gunpowder Plot)을 기념하기보다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며 토르와 워든(Thor and Woden)에게 드리는 고대의 제사를 이어받았다(15). 하디는 거시적 안목으로 변함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구축하면서 소설을 시작한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웬만한 변화와 부침은 사소하고 미세한 진동과 같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배경 속에서 사는 개인들의 삶은 미세한 변화와 작은 아픔도 우주의 변화처럼 커다랗게 느껴질 뿐이다. 그런 변화나 아픔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것이 개인의 삶이다. 그래서 하디는 이 소설에서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서 목적을 이루는 인간관계를 게임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표상한다. 게임 모티프는 작품 속 소외된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크리스천(Christian Cantle)이 데이먼과 주사위 던지기에서 요브라이트 부인(Mrs Yeobright)이 부탁한 백 파운드를 모두 잃고, 다시 디고리(Diggory Venn)가 데이먼에게서 그 돈을 다시 따는 장면에서 확연하게 부각된다. 주사위 던지기는 순전히 우연이 지배하는 게임이지만, 크리스천은 첫 내기에서 여성용 옷을 획득한 뒤, 그것이 그의 몸은 못하겠지만 어떤 여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농담에 기쁘게 반응한다. 그리고서 크리스천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행운을 지니고 태어났으니," 주사위가 "우리 모두의 강력한 지배자이지만, 내 지시에 따르니 나는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223). 근대적이지 못한 그의 사고방식은 주사위를 물신화하고 그에게 주사위를 통제하는 운이 있다는 방식으로 게임의 세계를 해석하게 만든다. 그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에그던 주민 대부분이 공유하는 것으로 요브라이트 부인이 살모사에 물렸을 때 다른 살모사를 잡아 그 기름을 바르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변주된다. 이것은 유사(resemblance)를 추론의 기초로 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메신저가 게임에서 어머니와 고모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던 백 파운드를 잃자, 요브라이트 부인이 의도했던 자식 부부와의 화해와 조카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이제 백 파운드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은 데이먼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도박을 바라보았던 디고리의 개입은 다시 한 번 의미화 과정을 되돌리는 기회를 만든다. 디고리는 편재하는 듯한 인물로 우연성의 지배를 통제하는 능력을 지닌 것처럼 그려진다. 그가 백 파운드가 걸린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되어 선물이 올바른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요브라이트 부인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연성을 통제할 것만 같다. 하지만 사랑하는 토마신(Thomasin)의 주위에 편재하면서 그녀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운을 차단하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듯한 디고리의 능력도 우연성의 힘을 제어하지 못 한다. 백 파운드 선물의 수신자가 토마신 한 사람이 되면서 결과는 "돈 가치의 분실이

자아낸 것의 세 배보다 더한 분운을 야기[하게 된다]"(236). 주사위 게임이 상징하는 우연성이 작용하여 요브라이트 부인이 의도한 아들 부부와의 화해는 이뤄지지 못하고 의심을 더욱 키우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만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게임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취하려는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인물은 유스타시아이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토마신이 결혼 예정일에 디고리의 마차를 타고서 남편이 아닌 고모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에서부터 게임을 지배하려는 인물들의 의지의 작용이 표현된다. 유스타시아와의 애정관계가 자신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데이먼이 선택한 카드가 토마신과의 결혼이었다. 하지만 유스타시아의 강력한 영향력이 게임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고, 그날 밤 데이먼은 유스타시아의 부름에 응답하고 만다. 유스타시아는 데이먼을 부른 그녀의 행동이 "엔도르의 마녀가 사무엘을 불러낸 것처럼 [그를] 부르고 제압해서 약간의 흥분"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61-2). 토마신과 결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유스타시아에게 일격을 가했지만, 유스타시아는 그녀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게임의 지배자가 된다(62). 게임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스타시아의 강렬한 의지는 편재하는 디고리가 토마신과 데이먼의 결혼을 그녀에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장면에서 더욱 강렬하게 표현된다. 그녀는 토마신 같은 "열등한 여자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나와 내 의도 사이에 끼어들더니 정당하게 벌을 받고서는 당신[디고리]을 자신을 위해 간청하도록 보내다니"라고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를 표출한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주도하며 전개하는 게임에 토마신이 개입하여 패배하게 만들 뻔했다는 점에 분노한 것이고, 다시 한 번 자신이 게임의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디고리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다.

게임은 유스타시아가 흥미를 잃게 되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그던을 탈출할 기회를 꿈꾸게 해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자 그녀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게임에서 그녀는 요브라이트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림이 시일을 당겨서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결행하게 만들어 지배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게임의 승리가 그녀가 꿈꾸던 에그던 탈출로부터 시작되는 환상을 이뤄주지 않자 그녀는 또 다른 게임을 시작한다. 에그던에서의 삶이 외로움과 지루함만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활용해 탈출하여 했지만, 결혼생활은 더한 외로움과 지루함을 맛보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작은 일탈들로 달래려고 시도한다. 데이먼과 축제에서 함께 춤을 추거나 그가 집을 방문하는 것이 작은 일탈이다.

영화 『Foxcatcher』의 등장인물의 행위에 관한 정신분석적 접근

임창덕(동아대학교)

I. 서론

베넷 밀러(1966)의 세 번째 연출작인 『폭스캐처』(2014)에서 나타나는 주인공 존 듀폰의 행위의 심리적 근거를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한 것으로 그 소재가 된 사건의 시점은 비교적 최근(1996)이다. 영화의 작품성은 관련된 전문가들의 호평과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이라는 것으로 충분한 설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까지 코미디 배우로만 알려졌었던 존 듀폰으로 분한 스티브 카렐의 연기는 이 영화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임이 분명하다.

소재가 된 사건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인데, 미국의 대부호인 존 듀폰이 1984년 LA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데이브 슐츠를 총으로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회자하는 유명한 사건이며 특히 2010년 사건의 가해자인 존 듀폰이 교도소 안에서 병사하여 다시 한번 더 사건이 환기되는 계기를 맞았다.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미국 내에서조차 이 사건이 비교적 오랜 기간 기억되고 영화화까지 된 것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성 때문이고 둘째로는 정확한 살해 동기가 끝내 밝혀지지 않고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존 듀폰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정신이상(insanity)'을 주장하였고 배심원들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는 3급 살인 유죄로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베넷 밀러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존은 데이브를 죽였는가?"에 대한 대답을 긴 시간의 고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연출해 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표현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주인공 존 듀폰이 심리에 관한 정신분석적 접근 및 텍스트 해석을 시도해보겠다.

II. 본론

2.1. 줄거리 및 작품의 배경.

간략하게 줄거리 및 작품의 배경에 대해 요약해 보겠다. 이 영화는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형제인 데이브 슐츠와 마크 슐츠 그리고 부호인 듀폰가(家)의 상속인인 존 듀폰의 이야기이다. 영화의 중심이 된 사건은 1996년 존 듀폰이 데이브 슐츠를 살해한 것이다. 2010년 사건의 당사자인 존 듀폰이 교도소 안에서 사망하였고 2014년 베넷 밀러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베넷 밀러는 이 사건을 영화화하기로 2006-7년 즈음 결정했고 그때부터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즉 영화의 준비 기간 중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존 듀폰이 사망한 것이다.

1984년 LA 올림픽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마크 슐츠는 생활고와 형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형인 데이브 슐츠 역시 같은 올림픽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데다 자신과는 달리 레슬링 협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기 때문이다. 그런 마크에게 어느 날 억만장자인 존 듀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된다. 자신을 스스로 레슬링 코치라고

소개한 존 듀폰의 제안은 자신이 만든 팀인 폭스캐처에 마크가 합류하여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자는 것이었다. 마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팀에 스카웃이 되며 그의 형 데이브를 떠난다. 마크는 팀에 합류한 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성과를 올리나, 이후 마약에 빠져 선수로는 내리막을 걷게 된다. 이런 마크에게 존은 크게 분노하고 이후 존과 마크와의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다. 어떻게든 서울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얻고 싶은 존은 결국 마크의 형 데이브를 스카웃하게 된다. 마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가까스로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출전은 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한다. 이후 마크는 팀 폭스캐처를 떠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에 가까운 부(富)를 가진 존.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진 존이 그렇게까지 메달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떤 결실을 보기도 전에 존의 어머니는 사망한다. 이후 존은 지속해서 데이브에게 관계의 집착을 보이지만 데이브는 그런 존을 받아주지 않는다. 존은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막상 완성품을 보게 된 존은 갑작스레 데이브를 살해한다. 존의 정확한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정신이상으로 결론 났다.

2.2. 주인공의 심리 분석,

주인공의 심리 분석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첫째로 영화에서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는 '메달'을 라캉의 개념 중 하나인 '휘장(insigne; badge)'에 대응시켜 주인공들의 심리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존 듀폰과 듀폰 여사의 뒤틀린 양자관계(dual relationship)에 대한 분석 및 '인정의 욕망'에 관한 기제를 말(馬)과 사냥개(走狗; foxcatcher) 그리고 여우(fox)라는 구조가 코치[혹은 아버지], 선수[혹은 아들] 그리고 메달로 재현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주인공 존 듀폰의 정신분석적 임상 구조에 대해 기존의 일부 비평처럼 과연 아버지의-이름(Nom-du-Père; Name of the Father)이 폐기(foreclusion; foreclosure)된 것—즉 정신증(psychose; psychosis)이라고 다소 성급한 결론을 짓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비판을 하며 '상상적 동일시(imaginary identification)에 머무른 주체'라는 다른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로 존 듀폰의 데이브 슐츠 살해가 어째서 '행동화(acting out)'이 아니라 '행위로의 이행(passage á l'acte; passage to the act)'에 해당하는지 고찰하는 한편,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과연 존은 왜 데이브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상상적 균형'의 붕괴로 풀이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격리](refoulement; repression)된 욕동(pulsion; drive)의 대표화-표상(représentance-représentation; ideational representative)이라고 하였다. 라캉은 무의식의 기록 과정을 프로이트의 긍정(Bejahung) 개념을 이어받아 최초의 긍정(affirmation primordiale)이라고 했으며, 이것을 기호형식[기표](signifiant; signifier)과의 동일시 즉 상징적 동일시로 풀이하였다. 그는 이 과정의 핵심인 큰타자(Autre; Other)의 인정의 신호(signal)를 여러 명칭으로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휘장(insigne)'이다. 휘장을 단 존재는 큰타자의 인정의 신호를 받아들인 주체, 즉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자아이상(idéal du moi; ego-ideal)의 자리에 앉은 주체이다. 이상적 자아(moi-idéal; ideal-ego)에서 자아이상에 이르는 도정은 라캉의 개념인 '욕망의 주체'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프로이트에서는 자아의 나르시시즘과 파라노이아적 과대망상 그리고 자존심과 열등감의 형성과도 관련이 깊다.

존 듀폰은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이 되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체다. 존은 메달[휘장, 여우]과 상상적 동일시를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존의 가슴에 달린 것은 거짓 휘장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존은 어머니의 애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냥개(走狗)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존은 자신의 주인인 어머니의 향락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 노예의 자리에 있다. 존은 자신의 자리를 멘토, 코치 그리고 아버지—즉 주인의 자리—라고 칭하나 현실에서 그가 위치한 곳은 노예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오이디푸스 구조의 정상화 방향은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임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법[휘장]을 받아들여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자아이상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우리가 꼬마 한스에서 알 수 있듯 정상화의 과정은 '환상의 통과'와 맥을 같이한다. 존은 큰타자의 자리에 앉혀 놓은 어머니의 인정의 신호를 상상적으로 받아들여 거짓 아버지의 자리에 앉으려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거울단계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적 속성, 공격성 등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 존의 심리는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상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상적 균형'은 마치 한 쪽이 놓아버리면 풀어져 버리는 줄다리기와도 같다. 그러한 일종의 놀이 방식이 마크라는 다른 노예[사냥개]를 사들여 여우[메달]를 물어와 자신의 주인[듀폰 여사]에게 바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 판단했다.

영화의 제목은 '폭스캐처'이다. 여우 사냥의 방식은 여우를 풀어 놓고 사냥개가 여우를 잡고 말을 탄 귀족들은 죽은 여우를 줍고 다니는 것이다. 현실에서 드러난 '여우잡이'는 사냥개(走狗)이다. 말 위의 귀족이 개에게 명령을 내리면 개가 여우를 죽여 주인에게 잡아 바치는 구조이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이 영화의 제목은 '주인과 노예'로 풀이할 수 있다. 듀폰 여사는 말 위에 앉아서 사냥개에게 여우를 잡아 와라 명한다. 이 구도는 존이 마크[사냥개]에게 메달[여우]을 가져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반복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폭스캐처'는 듀폰 가(家) 농장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존 듀폰이 자신의 팀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선택한 무의식적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의 반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존은 어머니의 인정을 욕망한다. 조금 더 원초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한다. 그런 존에게 어머니의 시선은 늘 차갑다. <듀폰 여사—말—존>이라는 구조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근본 골격이다. 각 주인공들의 삶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주체의 역사는 기저의 무의식적 구조가 그들 각자의 삶에서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일 뿐이다. 프로이트와 라캉에게 있어서 그 구조의 이름은 오이디푸스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존은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이 되길 원한다. 하지만 현실의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애마(愛馬)가 앉아 있다. 상상적 남근의 자리에 앉은 타아(他我)는 거울 속에 비친 자아의 닮은자(semblable) 로 자아의 경쟁자이다. 이는 영화 내에서 존이 어리석은 말(馬)만을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비난을 표출하는 것과 듀폰 여사의 사후 그녀의 애마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존의 오이디푸스 구조는 전형적인 상상적 동일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꼬마 주체는 전능자로 비치는 어머니의 욕망이 대상이 되고자 한다. 주체는 어머니에게 없는 것—즉 남근(phallus)—이 되고자 한다. 주체는 어머니[큰타자의 상상적 구현체]에게 결핍된 것—즉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을 남근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그 남근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바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자체가 주체의 욕망이다. 꼬마 주체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과 동일시하는 인정의 요구를 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상징적 아버지의 개입으로 거세(-φ)된다. 존은 바로 이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존은 데이브를 살해하러 가기 위해 집사에게 차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다. 바로 그 직전에 존은 자신을 우상화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마크가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후 존에게 안겼던 장면이다. 그 장면은 존에게 어떤 사실을 환기시켰을 것이다. 바로 자신을 자아이상의 자리[아버지, 코치, 멘토]에 앉게 해 주고, 자신에게 메달을 바쳤던 마크가 떠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마크를 분리시킨 주체가 바로 데이브라는 오판이다.

존은 폭스캐처라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스스로를 자아이상의 자리에 상상적 남근을 닮는 방식으로 위치시키고 거짓 휘장[메달]을 동일시하며, 지속적인 인정의 요구를 어머니에게 했다. 그리고 마크가 그의 곁에 있을 때는 그 상상적 균형은 점차 견고해졌으며, 이는 마크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후 존에게 안길 때 극대화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균형의 끈을 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데이브는 존에게 있어 그 균형의 끈

을 끊은 주체가 된다. 마크와 메달, 모두를 존으로부터 떠나게 한 장본인인 것이다. 데이브는 상상적 지도자였던 존의 허구성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한 장본인이다. 그에 따라 존 앞에 헐벗은 실재가 드러나게 된다. 이는 주체에게 통제 불가능한 불안을 야기하고 '행위로의 이행(*passage à l'acte*)'이 뒤따르게 된다.

존을 정신분석학의 임상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자면 '불완전하게 거세된 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오이디푸스 구조의 완성은 상상적 남근을 상징적으로 끊어내는 것이다. 거세는 상상적 어머니로부터 떠나기 위해 상징적 아버지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입하는 그 강력한 거세의 대행자가 자아이상에 가까운 이상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앉은 자라면 이론적으로 매우 원만한 오이디푸스 과정이 마무리 될 것이다. 존이 영화 속 반복해서 발설했던 '롤모델'이 바로 그 강력한 대행자라고 할 수 있겠다. 존과 마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강력한 아버지의 자리에 현실적으로 앉아있는 자의 부재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마크에게는 데이브가 있지만, 존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다 보니 남근의 상실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존에게는 정상적인 주체의 창설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듀폰 여사의 사망 후 존은 그녀의 애마들을 풀어준다. 존에게 말(馬)의 자리는 상상적 남근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닮은 타아[경쟁자]의 자리라고 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말을 사랑한다고 어머니를 비난했던 것이고, 어머니가 죽자 애마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존은 폭스캐처 내에서,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메달[휘장]을 닮음으로써 지속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존은 아슬아슬한 '상상적 균형'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도 이 상상적 균형을 깨뜨리지는 못한다. 결국 이것을 깨뜨린다고 존에게 여겨지는 것은 데이브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존에게 듀폰 여사는 결국 실재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이며 상상적인 어머니라는 것이다. 그의 심리가 투영된 세계에서는 현실적 어머니가 죽어도 상상적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즉 존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의 상상적 남근이 되는 것,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립 러닝을 활용한 영어 능력 향상방안: 영화 *그린 북*을 중심으로

서 은 미(호원대학교)

I. 서론

영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학습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서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학습자료로 사용할 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영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으며, 등장인물과의 감정 이입 등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2021년 1학기에 플립러닝을 활용해서 본 교수자의 교수 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강의 시간에 대한 계획과 강의가 끝나고 난 후의 수업 시간의 학생들의 반응과 교수자의 성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 십 년 간 영어를 담당해온 교수자로서 항상 느끼는 부족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강의를 하는 것이 2021년도 1학기의 목표로 삼았다. 특히 교수자의 성찰 노트를 통해서 향후 교수자의 교수 방법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 영화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생에 모습에 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 그린 북 (*Green Book)*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화체의 표현을 공부하고 또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1. 플립 러닝을 적용한 영어교수 방법과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

플립 러닝을 요즘 교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수 방법중의 하나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할 주제를 주고 공부해 오고, 수업 시간에는 미리 공부해 온 내용을 활용해서 주로 학생들이 발표, 토론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으로 극대화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을 학생 중심의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미리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공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중심의 구성주의 교육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교육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개개인의 발달 과정과 개개인의 학습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방법이다. 교수자 위주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학습자중심의 진정한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플립 러닝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서경숙(2016)은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국과 미국의 시(poetry) 시간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DIY 제작을 시도했다. 서경숙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DIY 제작을 활용한 문화교육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전의 교수법과는 달리 의미와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진다고 믿는 구성주의 교수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영돈(2015)는 영미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지털미디어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효율적인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성일호(2016)은 디지털 시대의 발달로 영어학습 텍스트가 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대학들에서도 TV 쇼나 영상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수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대학에서는 TV 쇼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문학적인 소양이나 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자원, 이연준, 2012; Im, 2015; Lee, 2015, Park, 2016; Seo, 2015). 김경식(2016)은 유의미한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를 통해서 상황 중심의 생활영어회화를 강의하는 데에 활용했다.

영화는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자료로서 영화를 보면서 영어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방법이다. Hadley(1993)은 여러 나라의 비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 매체는 흥미를 가지고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이 항상 접하는 영상 매체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네 가지의 능력을 의미한다. 첫째,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는 문법, 언어적인 능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쓸 수 있는 능력인 사회학적인 능력, 그리고 전략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장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상영어 학습법,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나 미국 드라마 또는 영국 드라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대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사를 익히면 실제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 중에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미권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경우가 많이 있다.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가 효율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상 매체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은 우수한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는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2.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플립 러닝의 활용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연구한 Bada(2015)에 의하면 교육은 교사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ada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교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배움의 자세를 갖고 학생들이 이미 자신이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받아 들이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Honebein(1996)은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울 것을 결정하고, 학생 중심 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성찰해 봄으로써 더욱 성숙한 학습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과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서 영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III. 영화 *그린 북*에 관한 분석

그린 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이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은 1960년대의 미국의 시대 상황과 흑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주인공인 토니(Tony)와 던 셜리(Don Shirley)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Don Shirley의 영어를 통해서 수준 높은 영어 표현을 구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1. 수업 진행 방법

2021년 1학기에 개설된 <시네마영어> 시간은 1주일에 세 시간 수업으로 학생들은 화요일에 2시간 그리고 목요일에 1시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수강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교양 선택이기 때문에 1,2,3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한 방법은 플립 러닝이다. 우선 학생들이 공부해야할 영화 대본을 미리 학교 LMS에 탑재한 후 학생들이 미리 영화 대본을 공부해 오도록 했다. 영상 자료도 미리 시청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발표와 모둠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의를 최소한 으로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영어 표현을 학습하고 역할놀이를 통해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학습하도록 했다.

두 번 째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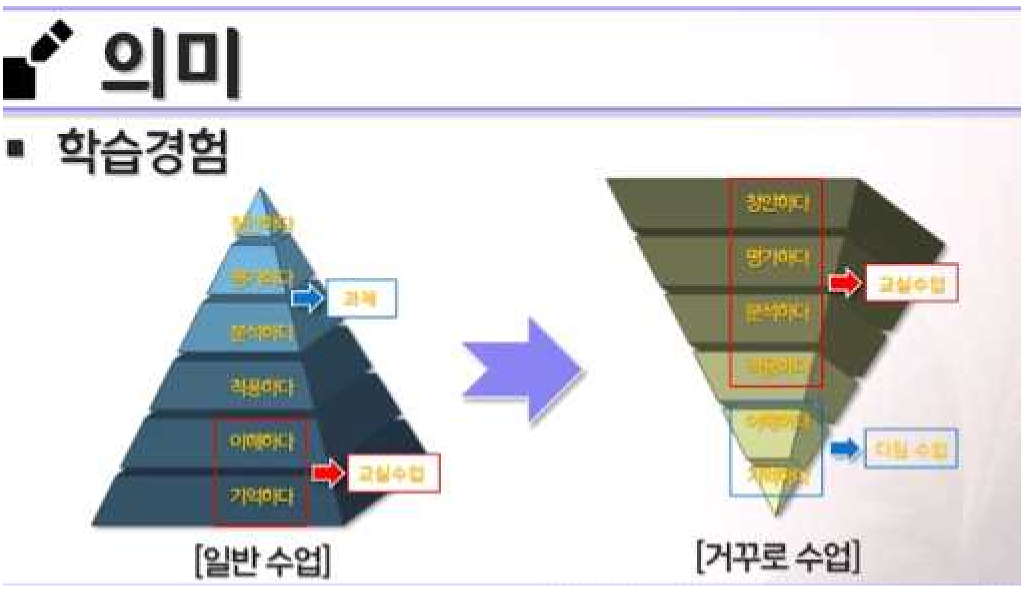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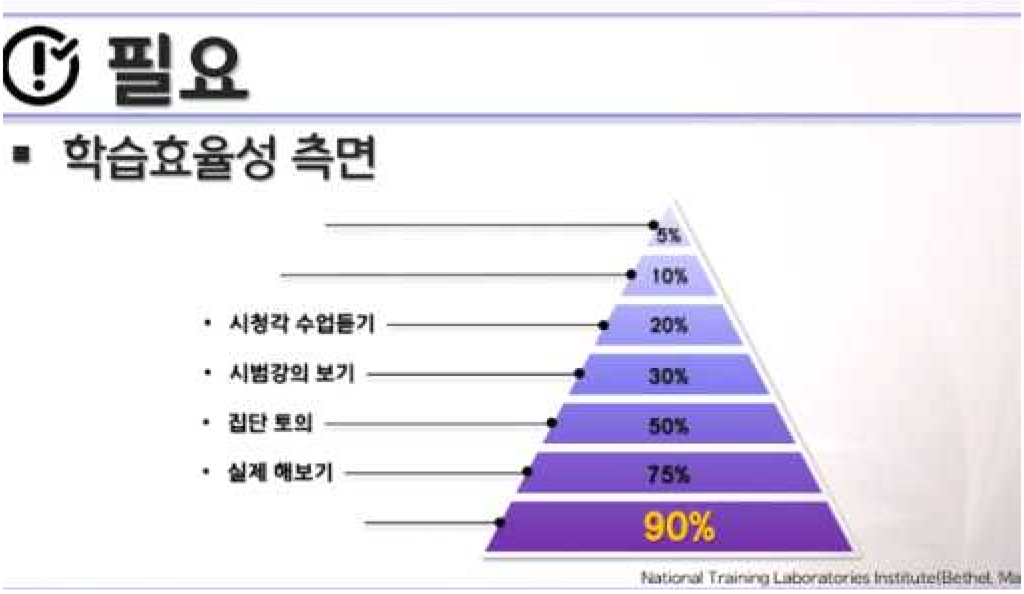


그림 3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직접 자신들이 연습해온 대사를 녹음하고 오픈채팅방에 탑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탑재한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IV. 결론

플립 러닝은 학생 중심의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1년 1학기 시네마영어 시간에 실시한 플립 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1학기 말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분석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영돈. (2015). 디지털미디어기술을 활용한 영미문학의 교수법 연구. *영상영어교육*, *16*(3), 135-150.

김경식. (2016). 영상영어교육의 실제: 다양한 영화 장면을 이용한 생활영어회화 인터넷 강의. *영상영어교육*, *17*(3), 1-22.

김옥례. (2011).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나타난 이상향에의 꿈. *영상영어교육*, *12*(1), 77-98.

박영. (2014). 영화 속 스피치를 활용한 영어 교수. *영상영어교육*, *15*(1), 57-81.

서경숙. (2016). 웹 2.0시대, 디지털 DIY 제작을 통한 영미시 교수법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42*(2), 141-159.

성일호. (2016). 텍스트 개방을 통한 새로운 영어학습방법론 모색. *영어영문학연구*, *42*(2), 161-185.

성지희. (2014).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활용한 듣기활동과 그룹토론활동의 통합수업. *영상영어교육*, *15*(1), 105-127.

이자원. 이연준. (2012). 왜 영화인가? 영어교육강화 방안에 대한 재고: *굿 윌 헌팅*을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13*(3), 89-103.

전성수. (2013). 질문하고 토론하라, 하브루타 교육법.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3763 에서 검색

● 제 3 발표 ●

발표 및 토론

15:30 ~ 16:00

일정표

제 1 발표장 (208호)	응구기의 소설에 나타난 아프리카 여성		
발표	서은주(전북대)	토론	이영화(전주교대)
제 2 발표장 (205호)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발표	이려(전주대)	토론	박언주(전북대)
제 3 발표장 (204호)	Strategies for Word Meaning Inference		
발표	박채희(선문대)	토론	신동진(전주대)

응구기의 소설에 나타난 아프리카 여성

서 은 주(전북대학교)

Ⅰ. 서 론

아프리카 기쿠유(Gikuyu) 부족 출신 응구기 와 시옹오(Ngũgĩ wa Thiong’o)는 “여성을 작품에 많이 등장”(Boehmer 42)시키고 있기에 “아프리카 여성을 연구”(Strobel 131)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여성을 주요 모티브로 삼은 소설들에서, 아프리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자행된 게 아니라 부족의 전통적인 가부장제도 역시 여성 억압을 양산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것은 여성들이 “자부심으로 노예 상태”(*A Grain* 241)를 지키는 것에 더하여 매춘과 강간 사건에 휘말려 있는 사건을 통해 묘사된다. 각각의 사건들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진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유사한 억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영국 제국에 의한 아프리카 식민지 억압의 고발로 확장된다. 응구기는 여성을 제국에 정복당한 나라나 민족에 대한 은유로 치환하는데, 이는 아프리카 토지와 아프리카 여성을 일치시키고 하는 서사 전략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프리카의 식민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식민지 아프리카를 닮은 여성을 세밀하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응구기의 소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소설은 작품 출간 순서대로 케냐의 역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초기, 중기, 후기 소설로 구분된다. 먼저 초기 소설로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케냐의 기쿠유 부족 마을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식민지 초기사건에 바탕을 둔 『울지 마, 아이야』(*Weep Not, Child*) (1964)와 『샛강』(*The River Between*) (1965)이 있다. 두 소설에서는 부족의 가부장 제도와 제국의 식민지라는 이중적인 억압과 폭력에 식민화된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다. 중기에 속하는 소설들은 『한 톨의 밀알』(*A Grain of Wheat*) (1967)과 『피의 꽃잎들』(*Petals of Blood*) (1977)이다. 제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이후 신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두 소설은 신식민지의 악습이 식민지가 낳은 결과물이었음을 증언한다. 중기 소설 속의 여성 인물들은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가진 수동적인 사고를 탈피하려는 의지를 갖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지만, 신식민지 사회가 식민지의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음을 증언하듯 그들도 결국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좌절하고 만다. 후기에 해당하는 소설들은 응구기가 수감 생활과 망명 시기에 집필하고 발표한 『십자가 위의 악마』(*Devil on the Cross*) (1982)와 『마티가리』(*Matigari*) (1987)이다. 두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온갖 역경을 견뎌낸 후 경제적으로 독립을 성취하고 정신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근대화된 주체로 변화한다.

이처럼 변화의 과정을 거듭하는 소설 속의 여성들은 작가가 경험한 시대적 배경과 이로 인한 사유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응구기는 소설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작가의 관념을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투사한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해 보면 시대에 따른 작가적 사유의 흐름이 그들을 변화하게 하고 진보의 과정을 겪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응구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단순히 창작된 작품 속의 가상 인물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위치”(Maleki 66)에 있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소설에 이르러 성취되는 그들의 독립은 곧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초기 소설-식민지 여성관

1963년에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했다. 응구기는 이듬해 1964년에 『울지 마, 아이야』를 발표했고 그다음 해인 1965년에 『샛강』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고는 이보다 식민지 시기였던 1959년에 『샛강』을, 1963년에 『울지 마, 아이야』를 완성했다. 이는 작가가 식민지 시절에 나고 자라면서 소망해온 국가의 독립을 희망하는 소설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초기의 두 소설은 기쿠유 부족 공동체에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직접적인 식민지 상황을 형상화"(Ogude 89)하고 있다. 작가는 기쿠유 부족의 내부적 갈등을 극대화하거나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장치로 여성을 등장시킨다. 그들은 "자기희생적인 여성의 순수성, 강인함, 사랑에 대한 낭만화"(Spivak 97)라는 서정적이고 비현실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제3세계의 억압된 여성은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무지하고, 전통에 얽매여 있고, 종교적이고, 길들여져 있으며, 가족 지향적이고, 희생적"(Mohanty 337)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교육받은 서구 근대 여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신체와 성을 지배하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모한티의 지적은 『울지 마, 아이야』에 등장하는 뇨가비(Nyokabi)와 은제리(Njeri), 『샛강』의 냠부라(Nyambura)와 무쏘니(Muthoni)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그들은 제국의 식민지배 상황과 부족의 가부장제 환경을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응적인 여성들이다.

『울지 마, 아이야』의 뇨가비와 은제리는 케냐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일부다처제에 의한 응고토(Ngoto)의 아내들이다. 복혼제는 가부장제의 산물이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적으로는 여성의 일손이 늘어 가정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에 효과적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아내의 수가 많을수록 지위와 위신이 높아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뇨가비와 은제리는 "부인들을 때려서라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11) 전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는 가부장에 걸맞게 가사와 농업 일을 도맡아 하며, 아들 은조로게(Njoroge)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는 은조로게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며 "이봐, 나에게는 이 마을에서 누구 못지않게 착하고 교육도 많이 받은 아들이 있어"(16)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은조로게가 학업을 마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는 마우마우(Mau Mau) 독립투쟁 운동에 참여한 응고토 때문에 퇴학을 당한다. 그들은 방황하는 아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데, 어느 날 은조로게가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나무에 목을 매 자살하려는 은조로게를 찾아 집으로 데려온다.

『샛강』의 냠부라와 무쏘니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마쿠유(Makuyu) 마을의 지도자가 된 아버지 조슈아(Joshua)와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 가거나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강에 가서 물을 길어오거나 빨래나 요리 같은 집안일을 잘하는 가부장제 기독교도인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소녀들이다. 어느 날 무쏘니는 홀로 마쿠유 마을을 떠나 부족의 전통을 지키는 카메노(Kameno) 마을에 가서 할례를 받는다. 무쏘니는 할례 이후 "나는 부족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예수님을 보았어"(53)라고 말한다. 할례를 받은 기독교도인 무쏘니의 몸은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는 두 마을이 추구하는 상반된 가치들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몸으로, 그

녀의 행위에는 두 마을로 상징되는 제국과 부족의 이념적 가치관이 하나로 조화롭게 통합될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무쏘니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고, 카메노 마을 추장의 아들 와이야키(Waiyaki)가 그녀를 업어서 병원에 데려가지만 끝내 숨지고 만다. 무쏘니의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언니 냠부라와 와이야키는 연인이 되는데, 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 죽게 만든다. 작가는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 "제국과 원주민의 충돌이 낳은 파멸"(Macharia 13)을 보여준다.

이처럼 응구기는 여성들의 삶을 소설의 전면에 내세워 "식민주의 작가와 역사가에 의해 왜곡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민중의 삶"(Ogude 86)을 보여준다. 그들은 식민지 시대에 부족의 전통과 공동체를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버거운 삶을 헤쳐나간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울지 마, 아이야』에서 두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횃불'로 암시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샛강』에서 두 자매는 분리된 공동체의 이념을 화합하려는 시도로 그들의 몸을 훼손시킨다. 응구기는 이들과 같은 식민지 아프리카를 지켜낸 "여성 수호자"(Heligson 296)의 흔적을 소설에 재현하고 있다.

Ⅲ. 중기 소설-신식민지 여성관

응구기의 중기 소설 『한 톨의 밀알』과 『피의 꽃잎들』에 나오는 여성들에는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근대적인 여성상의 양면성이 혼재되어 있다. 케냐의 신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중기 소설은 격변하는 시대에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 인물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그들에게서는 초기 소설에 보이는 전통적이고 희생적인 이미지와 후기 소설에 보이는 근대 여성의 혁신적인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한 톨의 밀알』은 식민지 해방을 사흘 앞둔 격변기를 배경으로 하고, 『피의 꽃잎들』은 식민지 사회를 답습한 신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 두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시대의 고통을 몸소 겪어내고 있다.

『한 톨의 밀알』의 뭄비(Mumbi)는 마우마우 단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오빠 키히카(Kihika)의 친구 기코뇨(Gikonyo)와 카란자(Karanja)의 관심을 동시에 받으며 자란다. 키히카는 동료의 밀고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 지고 뭄비는 기코뇨와 결혼한다. 그 후 기코뇨가 마우마우 단원으로 의심받고 감옥에 수감되자 뭄비는 두 가정을 보살피며 힘들게 생활한다. 반면 카란자는 마우마우 단원을 배반하고 자치 대장이 되어 뭄비 곁에 남는다. 그는 "여기 옥수수가루와 빵이 있어.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165)라고 하며 뭄비를 돕는다. 그런 카란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뭄비는 그의 아이를 낳아 키운다. 그리고 6년 후 기코뇨가 감옥에서 돌아와 뭄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냥년"(191)이라고 비난하는데 기코뇨의 어머니는 "카란자의 아이란다! …… 그래, 어쩌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132-133)라고 말한다. 기코뇨의 폭력을 참다못한 뭄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그와 결별을 선언한다. 그녀의 당찬 모습에 기코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피의 꽃잎들』의 완자(Wanja)는 "노동자로 구성된 영웅집단과 이들을 억압하는 악당집단"(Roos 156) 사이에서 그들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산업"(*Detained* 59)에 종사하는 창부다.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게 성적 착취를 당해온 그녀는 학창 시절에 임신을 하고 학교를 그만둔다. 도시로 간 그녀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버리고는 그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직업"(Mohanty 339)인 창부가 된다. 그녀는 창부라는 직업을 "복수의

무기"(Cook & Okenimkpe 111)로 사용해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빨아 먹는"(175) 악당집단을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음굴에 중역들을 초대하고 부엌칼로 그들을 죽인다. 완자의 이러한 행동은 초기 소설의 여성보다는 분명히 진보되어 있지만, 온전한 독립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실현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어려운"(Perera 70) 과정에 있다.

Ⅳ. 후기 소설-근대 여성관

응구기는『피의 꽃잎들』을 출간한 1977년 12월 31일에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구금되었다. 그는 "1978년 케냐 정부에 의해 공짜로 제공된 카미티보호 감호소 16호실""(*Decolonising* 71)에서 화장지에 기쿠유어로 소설을 썼다. 그의 첫 번째 기쿠유어 소설『십자가 위의 악마』는 제국의 언어가 강요되었던 시기에 민족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저항 작품에 해당한다. 응구기는 감옥에서 "배급받은 화장지에 그린 그림과 같은 주인공 자신타 와링가(Jacinta Wariinga)를 창작해내고 그녀와 함께하는 동안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Detained* 27)고 전한다.

『십자가 위의 악마』의 와링가는 학창 시절 돈 많은 노인의 아이 왐부이(Wambui)를 출산한 후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도시로 떠난다. 도시에서 대학을 마친 그녀는 비서로 취직하게 되지만 사장의 성적 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그녀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후 "검게 태어난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11)이라고 자신의 삶을 증오하며 철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그녀는 다시 교육을 받고 자동차 엔지니어가 된다. 소설은 "오늘의 와링가는 예전의 와링가가 아니다"(216)라고 하면서 그녀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녀는 남자친구 가투이리아(Gatuiria)와 달콤한 사랑을 하며 결혼 승낙을 받으러 부모님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녀는 "가투이리아의 아버지가 왐부이의 아버지"(246)임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데, 가투이리아의 아버지는 심지어 그녀에게 아들과 헤어지고 자신의 노년을 즐겁게 해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가투리아의 아버지이자 왐부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총을 쏴 죽인다.

『마티가리』는 응구기가 기쿠유어로 쓴 두 번째 소설이다. 주인공 마티가리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임을 알고 화가 난 독재자 모이는 "1987년 2월 책을 체포하라"(*Moving* 175)는 명령을 내렸고『마티가리』는 케냐에서 출판이 금지되었다. 소설에 등장하는 구테라(Guthera)는 절실한 기독교도로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간다. 그녀는 아버지가 수감된 후 그녀의 순결과 아버지의 목숨이 교환 가능하다는 공권력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녀는 열한 번째 계명(Eleventh Commandment)으로 "경찰에게 절대 다리를 벌리지 않는 것"(37)을 추가한다. 결국 아버지는 죽임을 당한다. 그녀는 동생들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창부가 되지만 열한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었기에 경찰에게 쫓기게 되는데, 그녀가 곤궁에 처해있을 때 독립 전쟁 이후 산(마우마우 독립투쟁 기지)에서 내려온 마티가리(Matigari)의 도움을 받는다. 이후 그녀는 마티가리가 정의를 찾아 나서는 투쟁에 동행하고 그가 수감되었을 때 열한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들 돕는다. 구테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물과 같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140)할 것을 다짐한다.

Ⅴ. 결론

소설을 통해 응구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독립체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자기 삶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냐 역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Rutere 213)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옳음을 실천하는 것이 탈식민의 과정이며 그래야 진정한 자기 독립은 물론 국가의 독립 또한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응구기의 소설을 배경으로 살펴본 케냐의 기쿠유 부족은 전통, 사회, 문화적 관습이 여성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는 나라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남성들은 “사냥꾼 패러다임”(Mies 211)을 작동시켜 원주민과 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인식했다. 응구기는 제국과 남성들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원주민과 여성들에게는 억압과 수탈과 절망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성들이 국가, 종교, 인종, 성에 종속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부족의 해방, 민주적인 해방, 인간의 해방”(*Decolonising* 108)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들은 아직 미약하지만, 소설 속에서 열등한 사회적 존재에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응구기는 소설을 통해 그들을 위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Li, Li(Jeonju University)

I. Introduction

In 1969, Samuel Backett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His winning the Nobel prize is greatly indebted to his paly *Waiting for Godot*. In this play, two characters Vladimir and Estragon waited endlessly in vain for the arrival of a never-appeared person called Godot. Through this, Beckett's emphasis on the absurdity of human behavior shows both the tragic and comedic sides of the existential crisis. This work not only greatly influences the western literature, but also has a profound impact on China. It was regarded as "one of the defining works of twentieth-century European culture" (Bradby, 1). Hence, Samuel Beckett's *Waiting for Godot* has been a hot topic in literature research. Over the past 3 decades, in most studies of Samuel Beckett's *Waiting for Godot*, the literary criticism on the theater of the absurd have been emphasized with attention being given to the absurdness exhibited in existential literature. However, most of the researches of *Waiting for Godot* are focused on explaining the drama in the form of literary criticism not drama translation studies.

II. Literature Review

Firstly, In the 1960s, China adopted a critical review of Beckett and other absurd writers. Dong Hengxun, in 1963 briefly introduced the plot and theme of Beckett and his work *Waiting for Godot*. In July 1965, Shi Xianrong's *Waiting for Godot* was published in the form of yellow book. In 1969, Qiu Gangjian published his translated version in Tai Wan. In 1980, *Waiting for Godot*, translated by Shi Xianrong, was included in the drama collection of absurd school published by Shanghai Translation Press for the first time. In the 1990s, Chinese recipients see more and more *Waiting for Godot*. In 1991, *Waiting for Godot*, directed by Meng Jinghui, was performed in the Central Academy of Drama, which is the first stage version of *Waiting for Godot* in China. In 1998, Ren Ming, director of people's art, directed the drama version *Waiting for Godot*. Since the 21st century, the understanding of *Waiting for Godot* in China has been further deepened. In 2006, Beckett's birthday, a series of commemorative activities were held in China. Five volumes of Beckett's selected works are translated. In 2008, Liao Yuru published her translated version of *Waiting for Godot*. In 2014, the Gate theatre from Ireland staged the original *Waiting for Godot* in Beijing Capital Theatre, In May 2019, the Chinese version of *Waiting for Godot*, the only script authorized by midnight press (the copyright owner of *Waiting for Godot*), was recompiled by Yi Liming and premiered in the middle theater.

Secondly, as can be seen, the translation and research of Beckett's plays started relatively late in China. In the early days of China, the research of Beckett's *Waiting for Godot* was mainly focused on absurdism and existentialism, with a single perspective; In the early and middle period of 1980s, there were two kind of attitudes towards Beckett's *Waiting for Godot* for domestic scholars. In the 1990s, the researches on Beckett in China go a step further. Most of the papers discussed theme of *Waiting for Godot*, such as tragedy of nothingness and despair by Cui Chengde. There are also comparative studies. People hol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its artistic value. such as Li Weifang's Circulation: *Waiting for Godot*. Since the 20th century, the research on Beckett's drama has gradually enriched. Some scholars interpreted Beckett's drama from the perspective of time-space relationship; As described, the research of Beckett's *Waiting for Godot* in China has experienced a process from single to a system. However, there is a lack of complete translation comparison of Chinese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in all previous studies. that's why the author does the important work of filling in details of existing researches.

III. Dialogue Theoretical Analysis of Translated Versions for Reading

3.1 Characters' Dialogues

The absurd mode helps to convey the theme of absurdity. *Waiting for Godot*'s dialogues belongs to this absurd mode. In other words, the dialogues are meaningless.

3.2 The Stage Description

Suchy (69-80) proposed that the stage description should be a part of the integrity of the theater performance, they are also utterance not just the words written on the books. Bakhtin's dialogism can provide more explanation for the stage explanation of discourse. Stage description belongs to a kind of "non two people's actual conversation dialogue"(Yu Bing, 16-17). In the process of reading, readers will find that there is no speaker in the stage description of the whole play, but the dialogue is omnipresent.

IV Rewriting Theoretical Analysis of Translated Versions for Reading

4.1 Manipulation of Ideology

Lefevere defines ideology as what the society has or is allowed to have. Therefore, in Shi's translation, the words related to sex are deleted and hidden. When it comes to Yu Zhongxian's version, which is also a Chinese version, was published in 2006, Yu adopts euphemism, which expresses some facts or ideas in a tactful or gentle way. Wen Jun said that Qiu Gangjian's plays are pioneering, and his ideology determines the boldness of translation. Another version was published by Liao Yuru in 2008, and her version has almost no abridgement. These can also be proved by the citation: " ideology focuses on what society should or can be " (Lefevere ,14).

4.2 Manipulation of Poetics

In this part, four Chinese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will b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he translators apply writing literature techniques in their poetic systems so as to attract target readers. As for the writing literature techniques, logical differences, a major issue, will be involved when from the perspective of target linguistics. When it comes to logical differences, nothing is more obvious than hypotaxis and parataxis. Moreover, one of the literary techniques of parataxis in Chinese is the four-character structure.

4.3 Manipulation of Patronage

Patron refers to the person or institution that "promotes or hinders the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of literature". (Lefevere, 15). Patronage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ndre Lefevere's rewriting theory. Therefore, Shi Xianrong 's Chinese translation *Waiting for Godot* is published by the People's literature press. Taking the review opinion as an example, in the review opinions of the "17 years" of the People's literature press, it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inappropriate "human nature" contents such as, "human sex" and "the detailed description of direct sexual acts and sexual actions should be resolutely deleted. Therefore, we can see that the mainland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take the deletion of sex related content.

Liao Yuru's *Waiting for Godot* published by Linking Publishing is a version of the National Science Council plan. We can see from the official letter that Liao's translation purpose is to translate and annotate the foundational foreign works. Therefore, Liao's version is of the most annotations in the four versions.

V. Narratology Theoretical Examination of Translated Versions for Performance

In this section, this paper will analyze two Chinese theater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from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framing methods which are put forward by Mona Baker. He advocated four framing methods, including temporal and spatial framing, selective appropriation, labelling and repositioning of participants (Mona Baker, 105).

5.1 Temporal and Spatial Framing

Beckett once explained the dramatic space of *Waiting for Godot*: "when I was writing Watt, I felt the need to create a smaller space in which I could control the position of the characters or the range of their activities, especially from a certain angle. So, I wrote *Waiting for Godot*. " (Liang Benbin. The dialogic features of *Waiting for Godot* [J]. Film literature, 2010 (13) 97.) Therefore, the stage of *Waiting for Godot* is an open three-dimensional space composed of dry straight tree and horizontal ground. Therefore,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tree on the stage of *Waiting for Godot* as geographical coordinates. The stage narration of

Waiting for Godot in Yi Liming's edition is quite interesting: the steel cross replaces the dead trees on the wasteland, forming the spiritual cemetery intention of modern industry, and with the hanging cross light box it emphasizes the status of lofty belief without substance. On the country, the stage narration of *Waiting for Godot* in Wu Xingguo's edition is simple with an indistinct upside-down tree. The two Chinese theater versions present different narrative spaces.

5.2 Selective Appropriation

Selective appropriation means some translation choices like omission and addition, foregrounding, cumulative interventions of the translator that a translator makes (Baker, 71). In the Chinese version of *Waiting for Godot*, Yi Liming and Wu Xingguo adopt different narrative translation methods, either abandoning or retaining all kinds of information in the source language. For example: Wu Xingguo's selective appropriation lies in the use of Buddhism and Peking Opera.

5.3 Labelling

Labelling refers to the words that identify the key elements in the narrative. Baker writes " by labelling I refer to any discursive process that involves using a lexical item, term or phrase to identify a person, place, group, event or any other key element in a narrative". (Baker, 137) The two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reflect that Yi and Wu have different labelling systems for different things. It can be proved by the following quotation. "Names and titles are particularly powerful means of framing in the sense elaborated here. "(Baker, 138)

5.4 Repositioning of Participants

The translator can reposition the character and events so as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construction of narrative. In the stage translation, Yi and Wu both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by means of repositioning of participants.

VI. Conclusion

this paper examines six Chinese versions of *Waiting for Godot* and draws the results of text analysis, which include two categories: one is for reading, and the other is for performance. As for the first category, it is studied mainly through the dialogue theory and rewriting theory. Firstly, it reflects the dialogic thinking and demonstrates "double-voicedness" with discourse examples all drawn from the character dialogues and stage information. Secondly, by analyzing different translators′ translations of *Waiting for Godot* in different periods, it can be seen that translators′ rewriting strategies are all influenced by ideology, poetics and patrons these three factors outside the text. As for the second category, the paper works on how to make drama performable through four narrative frame methods.

Strategies for Word Meaning Inference

Park, Chaehee (Sun Moon University)

1. Introduction

Vocabulary lear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and its importance has been emphasized, yielding a great deal of research regarding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Cho and Ahn, 2016; Lawson and Hogben, 2001), the effectiveness of word-meaning inference strategies (Hassanzadeh, Tamjid, and Ahangari, 2019; Park, 2020), and inferencing behaviors when attempting to derive word meanings from context and the factors that may affect their use of strategies (Hamada, 2009; Nassaji, 2003; Hu and Nassaji, 2014). Among them, how learners deal with unknown words during reading has become the focus of many empirical studies in recent years (Nassaji, 2003, 2004; Hamada, 2009; Hu & Nassaji, 2012; Nassaji & Hu, 2012; Wesche & Paribakht, 2010).

However, it seems that the effectiveness of strategies use are dependent on individual learners because inferencing involves a complex interaction and coordination of a number of skills, strategies, and knowledge sources each individual learner can utilize in the process of inferencing. Nassaji (2003) examined identified 11 categories of strategy types and knowledge sources and suggested that learners used various strategies and knowledge sources, among which some knowledge sources and strategies are related to more successful inferences. For instance, successful inferences were made by students who monitored, considered, and judg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in the wider context. Hamada (2009) also found a success rate of meaning inference and a development of strategies types learners use were dependent on their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It seems that learners' proficiency levels can be one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but most research, so far in this area has focused rather on the effectiveness of strategy use, identifying strategies learners use and their frequencies.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onscious awareness of inferencing strategies with learners' L2 proficiency levels is quite limited, particularly for Korean EFL learners. This study direct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in terms of learners' English proficiency levels.

Ⅱ. Strategies and Knowledge Sources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are from Nassaji (2003) and Hu and Nassaji (2014). Strategies below are instructed to Korean EFL learners. Those are selected for instruction and assumed that they would be appropriate for Korean EFL contexts.

Repeating strategies-the learner repeats any portion of the passage, including the word, the phrase, or the sentence in which the word has occurred: “extraction. umm. …is made up of a population all members of which are of the same race, religion, and previous national extraction. umm…. national extraction….. previous national extraction…”

Word-form analogy strategies-the learn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word based on its sound or form similaritywith other words: “cliques. Would it be the click of a computer mouse?”

Verifying strategies-the learner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ferred meaning by checking it against the wider context: “discern. …. We may discernthat seven major variables. We may notice that seven major….”

Self-inquiry strategies-the learner asks himself or herself questions about the word or the meaning he or she has already inferred: “interbred. …. Could this word mean the opposite of intermarried? Then, (divorce)’? ….”

Monitoring strategies-the learner shows a conscious awareness of the problem by judging its ease or difficulty: “peoplehood. At first glance, it is people and hood, and seems easy, but I think this means….”

Knowledge sources are from Nassaji (2003) and Hu and Nassaji (2014) as well, and knowledge sources below are also instructed to Korean EFL learners. Those are selected for instruction and assumed that they would be appropriate for Korean EFL contexts.

Morphological analysis of knowledge sources-the learn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word by analyzing it into various morphological components, such as roots, affixes and suffixes: “unqualified. This word has ‘qualified’ and I think it means good. This word has ‘un-’, so it has the opposite of that meaning”

Syntactic analysis of knowledge sources-the learn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word by analyzing its syntactic function: “imbue.They may imbue us with a general predisposition to try to help others. This word comes after ‘may’ so it’s a verb….”

Contextual analysis (Discourse knowledge) of knowledge sources-the learn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word based on the meaning of its phrasal-, clausal-,or discourse-level context: “therefore, umm…. but up to this point, the passage explains how to construct a web, so blue print means… (marvelous technique)”

Ⅲ. The Study

3.1 Participants

Table 1. Mean scores of TOEIC for each group

Group	Proficiency level	N	Mean	SD	SE
Experiment	High	10	32.5	2.99	.94
	Low	12	19.25	3.57	1.03
Control	High	13	31.15	3.41	.94
	Low	11	20.36	2.20	.66

Forty-six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y were in their sophomore or junior year majoring English. Using mock-TOEIC test (50 questions of reading part only),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participants received points more than 25 were regarded as higher proficiency level, and the rest were considered as lower proficiency level. Each group was also divided into two groups for experiments, making total four groups (Table 1).

Table 2. Comparison of proficiency levels

Proficiency Levels	Group	N	Mean	SD	t	df	p
High	Experiment	10	32.50	2.99	.988	21	.334
	Control	13	31.15	3.41			
Low	Experiment	12	19.25	3.57	-.890	21	.384
	Control	11	20.36	2.20			

In order to verify the groups are the same in terms of their proficiency levels, T-test comparing proficiency levels in each group (higher and lower) was conducted and higher groups were the same in their proficiency level and lower groups were also similar with each other.

3.2. Procedures (pre-test, treatment, and post-test)

The students read the passage which includes ten pseudowords and infer meanings of those pseudowords. They were given 40 minutes to complete the reading task. After pre-test, the experiment groups (both higher and lower group) received treatment (the instruction of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It had been conducted three times (thirty minutes a week for three weeks). They were instructed about the kinds of strategies and how to use them during reading. After treatment, the participants read another reading passage which includes ten pseudowords and infer meanings of those pseudowords. They were also given 40 minutes to infer the pseudowords in the passage.

3.3 Results and discussion

As shown in Table 3, the mean scores of experiment group in high-level participants improved from 3.80 in the pre-test to 5.70 in the post-test; that for the low-level participants progressed from 1.37 in the pre-test to 4.16 in the post-test. It was found that the mean difference in the low-level group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high-level group. Similar results with much less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were found in the control group both in high-level and low-level groups; the mean scores of control group in high-level participants improved from 3.53 in the pre-test to 4.15 in the post-test; that for the low-level participants progressed from 1.63 in the pre-test to 1.86 in the post-test.

As assumed, paired sample T-tests in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oth in the low-level and high-level groups; in the high-level, the pre-test (M=3.53, SD=.94) and the post-test (M=4.15, SD=1.40) with conditions; T(12)=-1.464, p=.169, and in the low-level, the pre-test (M=1.63, SD=.92) and the post-test (M=1.86, SD=.86) with conditions; T(12)=-1.464, p=.169 (see Table 4 and Table 5).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tests.

Group	Proficiency	N	Test	Mean	SD	SE
Experiment	High	10	Pretest	3.80	1.98	.62
		10	Posttest	5.70	2.11	.66
	Low	12	Pretest	1.37	1.15	.33
		12	Posttest	4.16	2.17	.62
Control	High	13	Pretest	3.53	.94	.26
		13	Posttest	4.15	1.40	.38
	Low	11	Pretest	1.63	.92	.27
		11	Posttest	1.86	.86	.26

Table 4. Paired sample T-test for the high level of control group

Test	N	Mean	SD	Mean Difference	t	df	p
Pre-test	13	3.53	.94	-.62	-1.464	12	.169
Post-test	13	4.15	1.40				

Table 5. Paired sample T-test for the low level of control group

Test	N	Mean	SD	Mean Difference	t	df	p
Pre-test	11	1.63	.92	-.23	-.683	10	.510
Post-test	11	1.86	.86				

A paired sample T-test was conducted for both pre-test and post-test. Table 6 shows that the differences of mean scores between the two tests in the experiment group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re-test (M=3.80, SD=1.98) and the post-test group (M=5.70, SD=2.1) conditions;T(9)=-2.690, p=.025. I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higher group have improved in their meaning inference accuracy after the treatment, and it seems that the instruction of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are still effective for high-level students since the improvement of mean scores in the post-test indicates that they took advantage of strategies they learned in the experiment. However, the difference did not show statistic singnificance. It is assume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less improvement in the high level group indicates that some are already aware of inference strategies before the experiment. Thus, the instruction of strategies might not affect overall to all participants, resulting in a little improvement in the high-level group compared to the low-level participants.

Table 6. Paired sample T-test for the high level of experiment group

Test	N	Mean	SD	Mean Difference	t	df	p
Pre-test	10	3.80	1.98	-1.9	-2.690	9	.025
Post-test	10	5.70	2.11				

In contrast, as shown in Table 7,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in the low-level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 pre-test ($M=1.37$, $SD=1.15$) and the post-test ($M=4.16$, $SD=2.17$) conditions;$T(11)=-5.834$, $p=.000$. This suggests that the instruction of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is more meaningful in the low-level students rather than high-level students. It is assumed that before the instruction, the low-level students did not know strategies to deal with unknown words they encounter during reading. They might just ignore or consult a dictionary for meaning of unknown words without any efforts to infer the meaning. But, much improvement in the post-test indicates that the instruction of the strategies affected a lot more to the low level students compared to the high level students.

Table 7. Paired sample T-test for the low level of experiment group

Test	N	Mean	SD	Mean Difference	t	df	p
Pre-test	12	1.37	1.15	-2.79	-5.834	11	.000
Post-test	12	4.16	2.17				

Ⅳ. Conclusion

The overall increased success rate in the experiment group, particularly, the low level students suggests that students who are low in English proficiency took advantage of those knowledg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vocabulary inference strategies should be taught explicitly in classroom. Particularly, low-level of English learners may not know how to infer and what strategies they could use for the accurate inference of unknown words. They need to be introduced to various meaning inference strategies and knowledge sources they can utilize before reading instruction. Second, some studies suggested that particular strategies including knowledge sources, and more frequent use of strategies leaded to greater success in word learning (Hamada, 2009; Hu and Nassaji, 2014; Kaivanpanah, and Alavi, 2008; Nassaji, 2003). For instance, morphological knowledge and world knowledge sources were associated with more successful inference than other knowledge sources. Thus, learners should be encouraged to pay attention to not only what strategies they could use but also how to use them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 제 4 발표 ○

발표 및 토론

16:10 ~ 16:40

일정표

제 1 발표장 (208호)	잃어버린 여성/성을 찾아서: 이시구로의『그날의 잔재들』연구		
발표	임은영(전북대)	토론	장근영(군산대)
제 2 발표장 (205호)	Uneven Realizations of NC and NS in English		
발표	정진완(전북대)	토론	최재혁(목포대)
제 3 발표장 (204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과: 메타분석		
발표	이제영(전주대)	토론	박채희(선문대)

잃어버린 여성/성을 찾아서: 이시구로의 『그날의 잔재들』 연구

임은영(전북대학교)

I. 서론

『그날의 잔재들』은 『희미한 언덕 풍경』,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와 함께 이시구로의 삼부작(trilogy)으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 이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노년의 1인칭 화자의 회상 기억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유사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서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화자의 진술 동기를 분석해 볼 때, 서술자는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사건들을 현재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과거의 혐의로부터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다. 특히 두 번째 작품인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의 서술자 오노(Ono)는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에 부역했던 민족주의 화가로 예술과 정치의 공모를 통해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충족시켜 왔던 과거의 행적을 국가주의의 명분과 이상으로 그럴듯하게 윤색한 자기 서사를 구축해 냈다.

오노의 서사를 영국으로 불러내 다시 쓴다면, 그의 이야기는 『그날의 잔재들』의 스티븐스(Stevens)의 회고록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할 것이다. 이처럼 이시구로의 초기 세 작품은 매튜 비드햄(Matthew Beedham)이 논평한 것처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가 첫 번째 소설을 돌아보면서 후속작 『그날의 잔재들』을 예고하는 일종의 가교와 같은 관계로 그 유기성을 요약해 볼 수 있다(25). 이 논문에서는 『그날의 잔재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스티븐스의 과거사에서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 켄톤(Kenton)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스티븐스의 서사에서 서술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켄톤은 '켄톤 양(Miss Kenton)' 또는 '벤부인(Mrs. Benn)'으로 호칭되면서 마치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언급되고 있다.

특히 스티븐슨의 기억창고에서 켄톤 양으로 소환된 이야기들은 지금껏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해 온 자랑스러운 달링턴 홀(Darlington Hall)의 품격 있는 집사의 모습과 충돌한다. 반면 벤 부인은 켄톤이 저택을 떠난 이후, 집사이기 이전 자연인이자 남성 스티븐스에게 억압의 대상이었던 애정사의 한 페이지를 종결하는 기표가 되고 있다. 한편 스티븐스와 켄톤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의 로맨스를 넘어 달링턴이란 대저택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부장주의에 기반 한 당시 정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성의 가치가 침묵당하고 은폐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달링턴 홀을 작동시켰던 이념적 기반인 남성주의로 부터 배재된 여성성 및 사적 기억의 흔적들을 켄톤을 비롯한 달링턴 홀의 하녀들, 그리고 스티븐스가 여행 중에 조우했던 평범한 개인들을 중심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달링턴 경의 몰락 과정을 저택과 장원으로 상징되는 영국성의 신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상상 속에 존재했던 전체주의 이상의 전복과 해체의 맥락 속에서 함께 논증해 보겠다.

II. 전체주의에 억압된 주체의 형상

『그날의 잔재들』은 19세기 영국의 대저택을 고증해 놓은 듯한 달링턴 홀의 총괄 집사 스티븐

스가 생애 첫 휴가를 얻어 담장 밖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설정, 그리고 이 여정을 기록하는 기행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은 공식적인 업무 또는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한 일종의 일탈과도 같은 개인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자들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굳건하게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 본 적이 없었던 충직한 집사 스티븐스가 저택 밖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설정만으로도 무언가 그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하게 된다. 하지만 서술자는 이 대목에서 주인의 후의를 "진지하게 재고하게 된 계기가 최근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들로 인한 고민"(『그날의 잔재들』[1] 5)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여행이 사적인 기분전환의 차원이 아니라 공무의 일환, 즉 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이러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오래 전 함께 근무했던 하녀장 켄톤을 회상하면서 그녀와의 재회, 더 나아가 저택으로의 업무 복귀를 계획한다. 한편 앞서 서술자가 언급한 달링턴 홀의 당면과제는 새 주인의 명령에 따라 집안의 관리 인원을 대폭으로 감축해야만 하는 인력 재조정의 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티븐스의 여행은 달링턴 홀에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독자들에게 내세운 출장의 명분은 허구일 수 있다는 점이 서사의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스티븐스의 서사는 독자들에게 집사로서 화려한 경력을 가진 한 전문 직업인의 출장 보고서로 읽혀지기를 의도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술자가 오랜 기간 억압해 왔던 한 여성에 대한 사감을 추적해 가는 심리 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술자가 자신의 진술 동기를 왜곡해가면서 까지 독자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브라이언 샤퍼(Brian Shaffer)는 스티븐스의 언술에 내포된 방어 기제에 주목하면서 서술자의 감정적 억압이 "성적, 그리고 정치적 삶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64). 이러한 양상은 스티븐스의 과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켄톤 그리고 달링턴 경과의 관계를 통해 극명하게 구현되고 있다. 어떠한 의미에서 스티븐슨과 켄톤의 좌절된 사랑은 달링턴이라는 비교 불가의 연적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예정된 비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스티븐스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사의 사생활, 더 나아가 이성과의 로맨스는 처음부터 상정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이다.

즉, 달링턴 홀의 집사로 살아가는 한 개인/남성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말소되어 사실상 신사의 노예로만 존재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집사인 피지배 계급은 신사의 품위와 과업이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지배계급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거세된 개인의 삶을 보상받을 명분을 확보하면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내면화하게 된다. 스티븐스에게 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의 숙명적 과업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즉,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의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사의 거대한 이상에 자신의 사감이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를 억압하는 것이 충직한 집사의 도리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티븐스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저택 안에서 하인들 간 연애마저 금기시할 정도로 달링턴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선공후사의 직업윤리를 체화하고 있었다. 다소 기묘해 보이기까지 한 당시 집사들의 사명감은 지배계급을 신과 같은 존재로 승격시켜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복종을 다짐하는 맹신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한편 집사의 정체성은 이시구로가 그래함 스위프트(Graham Swift)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것처럼,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지배계급을 보좌하지만 그 "힘의 중핵으로 부터는 멀어져 있는" 주변인으로서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37). 하지만 서술자는 독자들에게 집사의 신분이 단순히 상류층을 위해 봉사하는 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게나마 문명사에 기여를 하는 명예로운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 이후부터는 쪽수만 표기함.

이 과정에서 서술자는 집사로서의 품격은 오직 신사가 가진 원대한 이상과 탁월한 도덕성에서 발현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계급으로까지 흘러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스티븐스의 신념은 앞서 샤퍼가 언급한 집사 계급에게 허락된 정치적인 삶의 영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게 된다. 즉, 신분적으로 볼 때 한낱 집사에 불과했던 스티븐스는 전간기에 영국의 외교 비선이었던 달링턴을 그림자처럼 보필하면서 자신의 지위에 부합되는 신분적 한계 내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사와 집사를 하나의 동일 운명체로 인식하게 하는 세계관은 지배계급이 피지배 계급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 차별과 편견을 품위라는 미명으로 감추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통치 체계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신사계층은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 지배 계급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영국 제국주의라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Stephen Hasler 50, 김영주 재인용 455).

이처럼 피지배 계급인 집사들의 정신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위계에 기반 한 인식론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제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의 위상을 구가했던 영국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시구로는 알란 보르다(Allan Borda)와 킴 허징거(Kim Herzinger)와의 인터뷰를 통해『그날의 잔재들』에서 자신이 창조해낸 영국은 실제로 존재했던 영국의 모습이 아닌 "특정한 종류의 상상적인 영국에 대한 신화를 다시 쓴" 결과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74). 그리고 이 "신화적인 영국"의 모습 속에는 "고상한 사람들과 집사들이 함께 잔디밭에서 차를 마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을 배경으로 실제 "영국보다 더 영국적인" 세계가 재현된다고 덧붙였다(Vorda & Herziger 74).

이러한 관점에서 『그날의 잔재들』에서 달링턴과 스티븐스의 관계 역시 20세기 초반 영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신사와 집사의 모습을 재현했다기보다 영국 사회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으로 구축해 낸 주인과 하인의 위계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직 구조의 정점에는 집사가 충심으로 섬겨야 할 절대 존엄의 대상, 즉 영국 제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위계의 극단에는 국가의 청지기를 자처하는 신민이라면 당연히 제국의 과업 실현을 위해, 개인의 삶을 국가적 목표에 일체시켜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존재한다. 이 때 지배계급은 피지배 계급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복종과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족적 자부심에 기대어 국가주의의 이상을 강변하는 선동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즉, 비록 신민의 지위는 하층민에 그칠지라도 '당신들은 세계 일류 강대국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약소국의 가난한 민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영제국의 품위를 갖춘 인격체'라는 국가주의의 환상을 내세워 통치 구조가 순조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티븐스가 집사의 신분이 단순히 종이나 하인으로 치부될 수 없는 근거를 영국의 민족적 자부심에서 찾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전체주의에 기반 한 신민서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티븐스가 회고하고 있는 일류 집사에 관한 설화들은 이러한 제국의 지배 논리를 강화하는데 동원된 맹종적인 하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인도로 외유를 나간 주인을 수행하던 중 집 안의 테이블 아래로 잠입한 호랑이를 "일체의 흔적도 남김없이"(36) 사살한 뒤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시각에 주인을 위한 식사를 제공한 집사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집사들의 직업세계에서 전설로 남아 있는 또 다른 인물은 스티븐스 시니어(Stevens Sr.)로 그는 보어 전쟁(the Boer War)에서 아들 레너드(Leonard)를 잃은 아버지의 페르소나를 억누른 채, 아들의 군대 지휘관을 성심으로 의전하여 집사의 품위를 완성하였다(40~2). 이 두 사건에서 엿볼 수 있듯, 영국의 집사는 신사의 업무가 인도, 아프리카와 같이 제국의 식민지를 환기하는 야만성, 폭력성과 같은 사안과 연루되어 있을 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고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신사계층을 향한 맹목적인 충심으로 응답해야만 했다(김영주 460).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일화

들에서 집사들이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며 완수했던 업무들은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밑바닥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구현된다는 점에서 집사의 명예와 개인의 존엄은 양립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정리하면, 스티븐스가 서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일류 집사로서의 품격은 오직 주인의 명령 체계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는 굴종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비로소 획득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서사는 제국의 통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신민들에게 이식했던 영국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희화화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스티븐스의 서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화자가 내세웠던 품위 있는 일류 집사로서의 정체성이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서술자 역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즉, 달링턴이 불명예스럽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이후, 스티븐스는 마지막 시종, 또는 "유서 깊은 진짜 영국식 집사"(124)로 인식되면서, 영국 제국의 유물/잔재(remains)로 기억될 달링턴 저택과 함께 "일괄거래"(242)의 품목으로 매각되었다.

이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달링턴 대저택 신화는 영국 제국의 몰락과 함께 영국성의 가치를 더 이상 발산해 내지 못한다. 한편 포스트 식민주의 관점에서 제국의 패권이 균열되고 와해되는 과정은 영국의 신사/집사의 위계, 이를 확장한 국가/신민의 모형을 원천적으로 배태했던 부자주의(paternalism)의 전복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해체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III. 전체주의의 가부장적 특성과 침묵된 여성/성

스티븐스의 서사에서 서술자가 달링턴의 정치적 신념에 강한 일체감을 느끼며 집사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사건으로 1932년 저택에서 개최된 비공식 외교 회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연회에 참석했던 신사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던 숙녀들은 회담 장소인 달링턴 홀의 핵심적인 공간 내부로 출입이 허락된 각 국의 권력자들이었다. 반면 이 저택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스티븐스와 외부 사절단들의 보좌진, 그리고 달링턴 홀의 가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하녀들은 신사들의 회담이 시작되면,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각자의 신분에 맞는 공간으로 배치된다. 드물게 총괄 집사 스티븐스만이 달링턴의 호출을 받아 회담 장소에 들어오는 특권을 부여받긴 했지만, 그는 신사들의 엘리트주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논거, 즉 어리석은 대중의 표본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소환될 뿐이다.

한편 스티븐스는 신분적으로는 피지배 계층이었지만 달링턴 홀의 관리인력 중에서는 직능과 성별에 있어 하급 직원과 여성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를테면 그와 켄톤이 중심이 되어 저택의 업무를 논의하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시종일관 가부장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여성성으로 대변되는 공감, 돌봄, 관계 지향성, 업무체계의 유연함 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스티븐스가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던 여성성을 구체화하면 개인주의, 의사 결정의 자율성, 수평적 인간관 등 정치적인 맥락에서 볼 때 미국식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들과 맞닿아 있다. 반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들은 계급주의에 기반한 영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오류 없이 작동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억압해야할 대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 맥콤(John P. McCombe)은 스티븐스가 달링턴 홀의 새 주인 페러데이(Farraday)의 환담(bantering)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설정들을 서술자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반감으로 읽어내고 있다(85). 또한 스티븐스의 서사가 시작되고 있는 1956년 7월은 이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완벽하게 이동한 시점이었고, 더 나아가 당시 영국은 수에즈 운하 사태(Suez Crisis)와 맞물려 포스트 식민시대 및 영국성의 해체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지 오브라이언(Susie O'Brien)은 『그날의 잔재들』을 통해 "이시구로가 허물고자

했던 영국성의 신화 가운데 중요한 가닥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지배계급이 행사했던 힘의 배치를 합법화하기 위해 불러낸 자애로운 부성주의의 개념"을 지적하였다(O'Brien 789).

가부장제의 위계 안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시혜의 관점에서 아들에 대한 돌봄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을 타자화하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성주의는 다시 한 번 영국 지배계급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피지배 계급 더 나아가 식민지 건설의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아들, 신사/집사 그리고 이 모형을 확장한 국가/신민의 구도는 가정과 국가의 작동 방식을 가부장제의 집행 원리로 유비하면서, 제국의 과업 달성을 위해 여성적인 가치들을 말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하지만 부성주의의 총아 스티븐스에게도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 살아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켄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녀는 불모지와 같은 스티븐스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려는 듯 꽃을 들고 집사의 사적인 공간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스티븐스의 환대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반면 서술자에게 켄톤은 이제껏 자신이 느껴 본 적 없는 "독특한 변화의 기류에 내던져지게"(166) 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176)을 자극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서술자가 지금까지 서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자신의 "사적인 시간"(166)을 예기치 않게 노출시켜 집사로서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금자탑을 일순간에 허물어버린 침입자이기도 하다. 서술자는 그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저택에서 자신의 사적인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왔다(164~65). 이처럼 집사의 사생활에 대한 신비로움을 유지하려는 스티븐스의 원칙과 지론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벽장 속 해골'(skeleton in the closet)의 존재를 완벽하게 은폐함으로써 공무 수행자로서의 품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술자의 이러한 자기 검열과 통제 뒤에 감추어진 현실의 부끄러운 민낯은 켄톤이라는 타자의 등장과 함께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몰래 연애소설 감상에 빠져 있었던 집사의 사생활이 켄톤에 의해 발각되는 장면은 스티븐스 역시 한 남성으로서 에로티시즘에 대한 욕망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감정의 진공상태를 최고의 직업윤리로 간주하고 있었던 서술자는 급기야 신사들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생부에 대한 돌봄마저 저버리는 비정한 아들의 모습을 구현한다. 서술자의 회고에서 "가슴 아프게 떠올려지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뿌듯한 성취감"(110)을 느끼게 해 준 사건으로 각인된 신사들의 회담일에 그는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으면서,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기억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 스티븐스는 저택에 체류 중인 프랑스 신사 듀퐁(Dupont)의 발에 생긴 사소한 물집을 처치하느라 아버지의 임종도 포기한 채 "계급의 아버지"(Shaffer 64)에 대한 돌봄을 우선하며 켄톤과 하녀들에게 뒷 일을 부탁하고 회담장소로 복귀한다. 심지어 서술자가 재구성한 그 날의 기록을 서술의 정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티븐스 시니어의 뇌졸중에 대한 묘사보다 듀퐁의 경미한 부상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긴박했는지에 보다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다. 이는 퍼스트(L. R. Furst)의 논평처럼, 서술자는 듀퐁의 일화를 실제로 벌어진 상황보다 심각한 상태로 과장되게 전경화하면서, 향후 상실의 고통이 불러올 엄청난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542~3).

그렇다면 당시 피지배 계급은 모두 스티븐스처럼 자신이 모시는 주인 더 나아가 제국의 이상 속에 개인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보이지는 존재'로서의 삶을 당연시하였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사의 이상 실현을 구심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달링턴 홀 내부에서도 직원들 간 연정을 키워 사랑의 도피를 감행했던 하인들의 선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서술자가 고백하듯, "대규모 식솔을 거느린 집사들에게는 흔히 벌어지는 사건"(157)으로 스티븐스가 체화한 직업적 신념이 저택 내 모든 개인들의 삶에 동일하게 침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하녀 리사(Lisa)가 달링턴 홀을 떠나기 전 자신의 상관이었던 총무 켄톤에게 남긴 편지를 살

펴보면, 그녀는 소위 사내 연애라는 저택에서 금기된 제도적 모순을 뛰어 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면모를 보여 주었다(157).

즉, 달링턴 홀로 대표되는 조직, 사회 그리고 국가가 피지배 계급에게 내세운 통치 이념은 감정, 사고의 유연함과 같은 여성성을 억압하고 타자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논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완벽하게 공명할 수 없었던 개인과 세계의 균열 지점이 분명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달링턴이 내세운 신사의 품격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세계의 문제들을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을 지지하면서 이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스는 히틀러의 반 유태주의에 찬동하여 저택 내 유태인 하녀들을 해고하라는 달링턴의 정치적 신념을 대리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 신사의 지시를 받은 "이데올로기의 하인"(Salecl 180) 스티븐스는 하녀장 켄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집사와 총무의 상반된 반응에서도 여성성에 대한 억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롭 앳킨슨(Rob Atkinson)은 유태인 하녀의 해고 건에 대한 집사와 총무의 상반된 반응을 법률적인 용어와 학술적 배경에 기대어 분석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법적 장치를 통해 사건 수임자로서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변호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185~86). 반면 켄톤은 '도덕적 행동주의'(moral activism)의 관점에서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상식과 윤리차원에서의 호소를 주장하는 인물이다(Beedham 98~9). 즉, 이 사안에 대한 켄톤의 주된 관심사는 달링턴의 부당한 명령의 피해자였던 사라(Sarah)와 루스(Luth) 두 하인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스티븐스는 자신의 고객 달링턴의 이익과 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처럼 신사와 집사를 부자관계의 운명 공동체로 결속시켜 놓은 가부장제의 위계 속에서 여성 그리고 여성성은 철저하게 타자화 되어 조직의 순조로운 작동을 위해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스티븐스의 여정 중 모스콤(Moscombe)에서 만난 해리 스미스(Harry Smith)는 지금까지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해 왔던 신사의 품위와 엘리트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세계의 질서에 대해 반격의 메시지를 제시한다. 해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와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인들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서사 초반 서술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설파했던 지배 계급의 도덕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주인이 가진 평판의 우월함에서 파생되는 잔여의 품위를 피지배 계급이 승계했던 제국의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달링턴 경의 정치적 이상은 그의 선의에 기반 한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유럽사회가 다시 한 번 야만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였다. 이처럼 제국의 몰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통해 서술자는 비로소 달링턴 홀의 집사로 복무했던 자신의 젊은 나날들에 대해 회의적인 숙고를 하게 된다.

IV. 결론

이합 하싼(Ihab Hassan)은 『그날의 잔재들』을 "스티븐스의 과거로 마지못해 접근하는 마음의 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373). 하싼의 지적처럼, 스티븐스의 시간 여행은 과거 신사의 정치적 신념에 부응하여 나치즘에 동조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순간과 대면해야 했기 때문에 서술자의 심기를 자극하는 달갑지 않은 여정이었다. 과거의 핵심 사건이 현재에 귀환하여 서술자의 심리적 안위를 위협하는 갈등 구조는 이시구로의 삼부작 속 1인칭 화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발생하는 인식의 공백 또는 "깊은 심리적 파열"(Sutcliffe 49)을 환기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세 작품의 화자 에츠코(Etsuko), 오노 그리고 스티븐스는 모두 기억의 불완전성에 기대어 부끄러운 과거의 순간들을 채색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이 재구성한 과거의 판본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찾게 된다.

특히, 『그날의 잔재들』에서는 대영제국의 불패 신화가 전복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신사와 집사의 계급적 위계, 그리고 이 구조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가부장제의 작동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자주의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는 여성 그리고 여성성을 타자화하여 가정 내에서 남성의 지배력을 정당화했듯,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대 타자인 식민지에 대한 통치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국시대의 논리는 자율, 합리, 개인주의와 같은 민주적인 가치들의 출현과 함께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더 이상 제국의 환상과 신화를 지탱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술자의 여정에서 최종 목적지였던 켄톤은 스티븐스와의 재회에서 "자신〔켄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다름 아닌 남편 곁"(239)이라는 현재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채 한 때 특별한 감정을 품어 왔던 두 남녀는 기약 없이 이별한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 서술자는 달링턴 홀의 집사로 살아온 삼십 여 년의 세월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젊은 날들에 대한 회한과 현재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이 초라하게 남겨진 자신의 노년에 대해 상념에 젖어 처음으로 독자들에게 눈물을 보인다. 이 장면은 오랜 세월 유보해 온 한 여성과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 버린 것에 대한 슬픔의 발로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이제부터 시작될 개인 스티븐스의 인생 황혼기는 더 이상 감정의 메마름으로 황폐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편 켄톤이 달링턴 홀의 총무로 근무하던 시절 그녀는 스티븐스 시니어가 집사로서의 역량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무력한 자신과 대면했던 순간을 "마치 그〔스티븐스 시니어〕가 땅에 떨어진 귀중한 보석을 찾으려는 듯"(67) 보였다고 총괄 집사 스티븐스에게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은퇴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건의하였다.

김영주는 이 대목에서 스티븐스 시니어가 찾으려고 했던 "보석은 아마도 노집사의 잃어버린 자부심",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 그래서 필사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의 노력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측을 덧붙인다(463). 즉, 그는 끝내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집사로서의 정체성만을 입은 채 생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스티븐스에게 허락된 엿 새 간의 과거 탐색은 그에게 오랜 기간 억눌려 있었던 개인성에 대해 "호기심 어린 토론"(240)을 시작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의 노년은 아버지의 그것과 사뭇 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후를 전달한다.

또한 이 여정의 끝에서 서술자는 저택으로 돌아가 향후 페러데이의 환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유머의 기술을 채득하는 것을 집사 업무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해 보겠다는 직업적 다짐을 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스티븐스의 정신성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인간의 따뜻함"(245)에 대한 회복 더 나아가 근엄한 집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때로는 눈물마저 기꺼이 흘려 보겠다는 감정의 해방을 선언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러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여성을 찾아 떠난 스티븐스의 여행은 표면적으로는 켄톤에 대한 미련마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해 준 헛된 방랑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에 억압된 여성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그의 귀로는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리라.

Uneven Realizations of NC̥ and NS in English

Chung, Chin-Wa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Sequences of consonants consisting of a nasal plus a consonant in English show interesting realization patterns when they are subdivid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a post-nasal consonant such as voiceless obstruent and sonorant. The nasal-voiceless obstruent(NC̥) sequences show faithful realization when occurring prefix and stem boundary as in in+tolerable. However, when a post-nasal obstruent is peripheral, the prefix nasal undergoes regressive place assimilation, producing homorganic NC̥ sequences as in in+possible → i[mp]ossible and in+congruous → i[ŋk]ongruous. The nasal-peripheral obstruent sequences are realized without any change when occurring within a stem as in co[mp]uter and thi[ŋk]ing. However, if a post-nasal obstruent is /t/, the coronal /t/ is optionally deleted as in center → ce[n]er and winter → wi[n]er.

Compared to NC̥s, when a post-nasal consonant is sonorant, the coronal nasal-sonorant consonant(NS) sequences are faithfully realized within a stem as in o[nl]y and co[mr]ade. However, the prefix-final nasal /n/ is deleted when followed by sonorant-initiating stems such as in in+mortal → i[m]ortal and in+regular → i[r]egular. These uneven realizations of NC̥ and NS in English are intriguing in that the NC̥s show aberrant realizations compared to the general realizations of NC̥ cross-linguistically as proposed by Pater(1996, 1999, 2004). Unlike the NC̥, the NS in English shows similar realization patterns as observed in cross-linguistic NC̥ realization patterns: phonological processes occur across the morpheme boundary while nothing occurs within a stem.

Thu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NC̥ and NS are asymmetrically realized in English. It is argued that the uneven realizations of NC̥ and NS are the effects of prominent behavior of a stem-initial segment, a sonorant in the stem, and the interaction of constraints reflecting those phonologically and morphologically prominent positions with markedness constraints militating against NC̥ and NS.

II. Data Presentation

(1) a. NC̥ across a prefix-stem boundary

in+tolerable	→	i[nt]olerable
in+tractable	→	i[nt]ractable
in+possible	→	i[mp]ossible
in+polite	→	i[mp]olite
in+consistent	→	i[ŋk]onsistent
in+credible	→	i[ŋk]redible

b. NC̥ within a stem

cénter	→	cé[n]er	cé[nt]er	i[nt]élligent

fántacy	→	fá[n]acy	fá[nt]acy	a[nt]énna
quántity	→	quá[n]ity	quá[nt]ity	co[nt]áin
cámpus	→	cá[mp]us	*cá[m]us	co[mp]úter
chámpion	→	chá[mp]ion	*chá[m]ion	ca[mp]áign
thínking	→	thí[ŋk]ing	*thí[ŋ]ing	tru[ŋk]átion
wrínkle	→	wrí[ŋk]le	*wrí[ŋ]le	sy[ŋk]rónic

(2) a. NC over prefix-stem boundary

in+légal	→	i[l]égal
in+líterate	→	i[l]íterate
in+régular	→	i[r]égular
in+rélevant	→	i[r]élevant
in+númerable	→	i[n]úmerable
in+nócuous	→	i[n]ócuous
in+mórtal	→	i[m]órtal
in+méasurable	→	i[m]éasurable

b. NC within a stem

ónly	→	o[nl]y
ánlace	→	a[nl]ace
hénry	→	he[nr]y
génre	→	gé[nr]e
enmásse	→	e[nm]ásse
cómrade	→	có[mr]ade
énmity	→	é[nm]ity

III. Review of Previous Studies

(3) Nasal assimilation (Spencer, 1996: 150)

$$[+\text{nasal}] \rightarrow \begin{bmatrix} \alpha\text{labial} \\ \beta\text{coronal} \\ \gamma\text{anterior} \\ \delta\text{high} \end{bmatrix} \ \_\_\_\_ \ \begin{bmatrix} \alpha\text{labial} \\ \beta\text{coronal} \\ \gamma\text{anterior} \\ \delta\text{high} \end{bmatrix}$$

(4) Uniform Exponence(UE): Minimize the differences in the realization of a lexical item (morpheme, stem, affix, word). (Kenstowicz, 1995) in Kang's account (1998).

(5) in+press

in-press	Nas^{pl}	Max-IO	UE-in	Id-IO(pl)
i[np]ress	*!			
☞i[mp]ress			*	*
i[p]ress		*!	*	

(6) a. NoGeminate: There should be no geminate consonants in the output.
b. *[+nas][+son]

(7) in+relevant

in-relevant	*[+nas][+son]	NoGem	Id-IO(pl)	UE-in
i[nr]elevant	*!			
☞i[r]elevant			*	*
i[rr]elevant		*!		*

The constraint-based analysis proposed by Kang (1998) seems to explain the examples in (2a) but the generally defined marked co-occurrence constraint, *[+nas][+son], predicts some structural changes in nasal-sonorant sequences occurring within a stem as can be observed in (2b). There should be reasons why marked nasal-sonorant sequences are not allowed across the morpheme boundary while they are tolerated within a stem in English.

(8) sample → sa[mp]le ce/nt/er → ce[n]er

sæmpəl	Dep-IO	RLD	*NÇ-Cor]$_{hetero-\sigma}$	Max-IO	*NC-Peri]$_{hetero-\sigma}$
☞sæmpəl					*
sæməl				*!	
sæpəl		*!		*	
sæməpəl	*!				
sɛntər					
sɛntər			*!		
☞sɛnər				*	
sɛtər		*!		*	
sɛnətər	*!				

The proposed analysis seems to explain (1b) and it seems to explain the first two examples in (1a) because the examples have the [t] in the [nt] which is followed by a stressed vowel, which does not form the environment for the [t] deletion. However, if we consider nasal-ending Class I prefixes followed by a stem beginning with the coronal [t] such as ì[nt]uítion, ì[nt]ubáte, có[n]tinent, có[nt]emplàte, and có[nt]ext where the [t] is the onset of an unstressed syllable, the NÇ-Cor is still realized at it is across the morpheme boundary. Thus, we need to consider all cases of NÇ and NS realizations in English and observe their output realization patterns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o understand how NÇ and NS realizations pattern with the cross-linguistic patterns or not. In the following section, we provide an analysis which shows asymmetrically realized NÇ and NS are the results of intricately calculated constraints and their ranking.

IV. An Alternative Analysis

4.1 NÇ sequences

(9) Pater (1996, 1999, 2004) from Uffman (1993)
*NÇ: No nasal/voiceless obstruent sequences.

This constraint is implemented differently in NÇ-Cor adopting from Chung (2012) and NÇ -Peripheral sequences. This is because the marked structure is avoided by NÇ-Cor by deleting the coronal [t] when followed by an unstressed vowel as shown by the first three examples in (1b). On the contrary, NÇ-Peripheral sequences are maintained in the output without undergoing any changes as presented by final four examples in (1b). Thus, we decomposes *NÇ into *NÇ-Cor and *NÇ. In addition to these two markedness constraints, we add three more constraints which can protect sonorant consonants, maintain the laryngeal feature of obstruents, and insure the realization of input segment in the output.

(10) a. *NÇ: No nasal/voiceless obstruent sequences.
b. *NÇ-Cor: No coronal-nasal/voiceless obstruent sequences.
c. Max-Son-St: Sonorants in the stems have their correspondents in the output.
d. Ident-Obs(voi): Corresponding obstruents have identical values for feature voice.
e. Max-Seg: Every input segment has its correspondent in the output.

(11) center → ce[n]er

center	Max-Son-St	*NÇ-Cor	Id-Obs(voi)	Max-Seg	*NÇ
ce[nt]er		*!			*
ce[nd]er			*!		
☞ce[n]er				*	
ce[t]er	*!			*	

(12) campus → ca[mp]us

campus	Max-Son-St	*NÇ-Cor	Id-Obs(voi)	Max-Seg	*NÇ
☞ca[mp]us					*
ca[mb]us			*!		
ca[m]us				*!	
ca[p]us	*!			*	

(13) Max-F(ó): A stressed prevocalic segment maintains its feature values and segment in the output.

(14) co/nt/áin → co[nt]áin

co/nt/áin	Max-F(ó)	Max-Son-St	*NÇ-Cor	Id-Obs(voi)	Max-Seg	*NÇ
☞co[nt]áin			*			*
co[nd]áin	*!			*		
co[n]áin	*!				*	
co[t]áin		*!			*	

The constraint ranking in (14) can be applied to all types of NCs occurring with a stem in English. To make this ranking more inclusive to explain the NÇs across the morpheme boundary, we need two additional constraints: one secures faithful realization of a stem-initial segment and the other for the identical place feature in NC sequences.

(15) a. Max-F-St_{1st}: A stem-initial segment has a identical correspondent in the output.
b. Agr-NC(pl): A sequence of nasal-obstruent has identical place features.
c. Max-Son: An input sonorant has its correspondent in the otuput.

(16) ìn+políte → ì[mp]olíte in+crédible → i[ŋk]rédible

ìn-políte	Max-F -St_{1st}	Agr-NC(pl)	Max-F(ó)	Max-Son -St	Max-Son	Id-Obs (voi)	*NÇ
ì[np]olíte		*!					*
☞ì[mp]olíte							*
ì[mb]olíte	*!					*	
ì[n]olíte	*!						
ì[p]olíte					*!		

in-crédible							
i[nk]rédible		*!					*
☞i[ŋk]rédible							*
i[ŋg]rédible	*!		*!			*	
i[n]rédible	*!		*!				
i[k]rédible					*!		

(17) Max-F-St$_{lst}$, Agr-NC(pl), Max-F(σ́) ≫ Max-Son-St ≫ *NÇ-Cor, Max-Son, Id-Obs(voi) ≫ Max-Seg ≫ *NÇ

4.2 NS sequences

(18) a. NoGem: Geminate consonants are not allowed in the output (cf. McCarthy, 1986).
b. *NS: No nasal/sonorant sequences in the output.

(19) only → o[nl]y henry → he[nr]y

only	Max-Son-St	NoGem	*NS	Max-Seg
☞o[nl]y			*	
o[ll]y		*!		
o[nn]y		*!	*	
o[n]y	*!			*
o[l]y	*!			*
henry				
☞he[nr]y			*	
he[rr]y		*!		
he[nn]y		*!	*	
he[n]y	*!			*
he[r]y	*!			*

(20) in+legal → i[l]egal in+mortal → i[m]ortal

in-legal	Max-F-St$_{lst}$	Max-Son-St	NoGem	*NS	Max-Seg
i[nl]egal				*!	
i[ll]egal			*!		
i[nd]legal	*!				
☞i[l]egal					*
i[n]egal	*!	*			*
in-mortal					
i[nm]ortal				*!	
i[mm]ortal			*!	*	
i[nd]ortal	*!				
☞i[m]ortal					*
i[n]ortal	*!	*			*

(21) Max-F-St$_{lst}$ ≫ Max-Son-St, NoGem ≫ *NS ≫ Max-Seg

The asymmetrical realization patterns of NÇs and NSs discussed in this section are interes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oss-linguistic realization patterns of NÇ that we discussed in Section I. In this section, the asymmetrical realizations of NÇ and NS depending on the loci of the each element in the clusters are explained by different constraint rankings given in (17) and (21).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uneven realizations of NÇ and NS clusters in English when they occur across the prefix-stem boundary and within a stem. It is argued that asymmetrical realizations are triggered by constraint ranking interaction of *NÇ-Cor and *NS, which motivate variant realizations of NÇ and NS, with the high-ranked relevant constraints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NÇ and NS realizations in English can also be noted that the former does not follow the cross-linguistic realization patterns of NÇ while the latter follows the general pattern of NS sequences in the language.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we can note from the current study. As noted by Pater(1996, 1997, 2004) the NÇ sequence is disfavored in many languages and various strategies are adopted to avoid this marked structures in English. English shows a different strategy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literature: the marked structure is avoided by deleting a post-nasal voiceless coronal stop. However, the deletion of onset [t] in an [nt] within a stem is triggered by prosodically weak syllable. An interesting aspect of it is that a post-nasal voiceless peripheral onset stop is not affected by the presence of stress on the following vowel. So the realization of English NÇ is sensitive to both morphological locus of the cluster and the prosodic prominence. The strategy used to avoid the NS sequence across the morpheme boundary in English is to delete the prefix-final nasal while maintaing the stem-initial sonorant insured by Max-F-St_{1st}. This can be compared to a hardening strategy of a stem-initial sonorant after a nasal-final prefix in Bukusu (Odden, 2005: 106). The undominated Max-F-St_{1st} in English must be ranked low in Bukusu to explain hardening of the post-nasal sonorant to make the sequence to be homorganic NC with the voiced obstruent stop, which shows variable strategies that languages do deal with a marked structure.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효과: 메타분석[1)]

이제영(전주대학교)

I. 서론

EFL 환경은 영어 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입력을 받기 힘들고 또한 목표어를 직접 사용할 기회 역시 부족하며, 이는 영어 습득의 큰 장애 요소로서 작용한다(김경철, 김정렬, 2013; Swain & Lapkin, 1995).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영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킴(Ellis & Brewster, 2002)과 동시에 흥미와 관심과 같은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임병빈, 임채향, 2005)를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영어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지도에 있어 스토리텔링 활용이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 지도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 한 후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는 실험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들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상이 매우 다양하며, 실험 기간, 활용한 수업 모형 등 실험 조건에 큰 차이가 있으며, 학 습자의 영어 능력에 스토리텔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종속 변인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연구 결과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효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지도에 있어 스토리텔링 활용의 효과를 양적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학교급, 처치 기간, 수업 시기 등과 같은 조절 변인별 효과,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와 같은 종속 변인별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스토리텔링 활용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전체적 효과는 어떠한가?
(2) 스토리텔링 활용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조절 변인별, 종 속 변인별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본 메타분석의 분석 대상은 2020년 10월 중 대표적인 국내 학술 데이터베 이스인 RISS(www.riss.kr)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검색은 '스토리텔링', '이 야기 말하기', 'storytelling' 'story telling', 'story-telling' 등의 주제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영어 교과의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93편의 논문이 1차 수집되었으며, 중복 된 논문 삭제, 비실험 연구 제외, 메타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 제외 등의 과정을 통해 총 28편의 연구에 수록된 40개의 연구 사례가 최종 메타분석 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

1) 본 연구는 이제영(2021)의 내용을 재구성 및 보완한 것임.

2.2 분석 기준

영어 교과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여러 조절 변인과 종속 변인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 <표 1> 에 제시한 분석 기준에 따라 메타분석에 포함된 각 연구를 분류하였다.

<표 1> 분석 기준

변인	분류 기준
1. 실험 설계	(1) 통제반 있음 (2) 통제반 없음
2. 대상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대학생
3. 수업 시기	(1) 정규 수업 (2) 비정규 수업
4. 처치 기간 (주)	(1) 8주 이하 (2) 9-16주 (3) 17주 이상
5. 처치 기간 (차시)	(1) 16차시 이하 (2) 17차시 이상
6. 수업 모형	(1) 기존 모형 활용 (2) 자체 모형 활용
7. 종속 변인 1	(1) 음성언어 (2) 문자언어
8. 종속 변인 2	(1) 이해기능 (2) 표현기능
9. 종속 변인 3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능숙도 (6) 어휘 (7) 기타

III. 연구 결과

3.1 사례별 개별 효과 크기

평균 효과 크기 산출을 위해 분석 대상인 28편의 연구에 포함된 40개의 연 구 사례에 대한 개별 효과 크기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 사례의 개별 효과 크기는 최소 0.081에서 최대 2.607 사이에 분포했으며, 부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3.2 평균 효과 크기

앞서 연구 방법에서 밝힌 것처럼 평균 효과 크기 산출 이전에 동질성 검정 을 실시하여 본 메타분석에서 활용할 모형을 결정하였다. Q test 결과 (Q=219.093, df=39, p=.000) 메타분석 사례 사이에 동질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랜덤 효과 모형을 통해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스토리텔링 활용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820으로 큰 효과 크기에 해당했다.

<표 2> 평균 효과 크기

모형	사례수 (k)	효과크기 (d)	표준오차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z	p
고정	40	.795	.032	.733	.857	25.126	.000
랜덤	40	.820	.078	.667	.973	10.505	.000

기존 동화 등의 아동문학 작품 활용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선 행 연구들(김지영, 김

정렬, 2016; 정명진, 김정렬, 2017; 최은수, 이창희, 이상기, 2017)은 대체적으로 중간 효과 크기보다 조금 더 큰 0.6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고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쓰기를 통해 재구성하는 활동인 딕토글로스 활용의 효과는 중간 효과 크기 수준(g=.526)이었다(Lee, 2017). 이를 고려할 때 스토리텔링 활용의 효과는 관련 연구의 결과들에 비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철, 김정렬. (2013). 초등영어 학습부진학생의 문식력 향상을 위한 전자칠판 입력 강화 콘텐츠의 개발 및 적용. *영어교과교육*, *12*(1), 1-28.

김지영, 김정렬. (2016). 영어 동화를 활용한 읽기 교육의 효과성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741-756.

이제영. (2021)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 *언어과학*, *28*(1), 137-161.

임병빈, 임채양. (2005). 초등 영어 수업에서 Storytelling을 통한 듣기와 말하기 능력 및 흥미도 향상 방안. *언어연구*, *21*(1), 71-90.

정명진, 김정렬. (2017). 동화의 텍스트 구성이 초등 영어 읽기 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초등영어교육*, *23*(1), 5-22.

최은수, 이창희, 이상기. (2017). 아동문학을 활용한 초등 영어교육의 효과: 메타분석. *영어교육*, *72*(2), 167-194.

Ellis, G., & Brewster, J. (1991).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London, UK: Penguin Books.

Lee, J. (2017). Effects of dictogloss on Korean EFL students: A meta-analysis. *Advanced Science Letters*, *23*(10), 9763-9766.

Swain, M., & Lapkin, S. (1995). Problems in output and the cognitive process they generate: A step towards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6*(3), 371-391.

● 제 5 발표 ●

발표 및 토론
16:40 ~ 17:10

일정표

제 1 발표장 (208호)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의 미학적 장치 -『제스처 인생』과『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중심으로		
발표	안아람(초당대)	토론	김요섭(군산대)
제 2 발표장 (205호)	L2 Acquisition Status of English (In)transitivity on A C-selected Complement Factor		
발표	이은경(전주대) 김창수(건양대)	토론	서홍원(전북대)
제 3 발표장 (204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발표	한진희(창신대) 한가영(창신대)	토론	이혜진(원광대)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의 미학적 장치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중심으로

안 아 람(초당대학교)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아시아계 영어권 작가'에 속하는 이창래(Lee, Chang-Rae)와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소설 속의 '미학적 장치(aesthetic device)'들을 통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의 경험과 역사를 서사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1]. 본 연구에서 미학적 장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제스처 인생』(*A Gesture Life*, 1999)과『부유하는 세상의 화가』(*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1986)의 경우만 간략하게 보더라도, 두 작가들은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지 않는 세대로서 트라우마를 사실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 치유양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서사, 상상력, 인물, 모티프 등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요한 연구 경향들을 살펴보면 흔히 두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할 때,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부각시켜 한국-미국, 일본-영국이라는 경계인으로서의 위치에 주목하거나, 제국과 식민의 관점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의 증언과 재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작가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미학적인 측면을 강조해 읽는다고 해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에 있어서 고향과 이주, 인종적 정체성과 혼종성 등 '소수인종 서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문학 연구는 매우 중층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즉 외부적 배경에 따른 분석 외에도 이중 언어 사용자의 글쓰기, 화자의 어조, 인물의 성격, 시공간적 배경, 기억과 여담(digression) 등 여러 주변적 장치들이 역사의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방식과 서사전략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더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작가 차학경(Teresa Hak-Kyung Cha)의『딕테』(*Dictée*, 1982)를 분석한 사카이 나오키(Sakai Naoki)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나오키는 이민의 나라에서 산다는 경험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사이에 있는(in-between)' 공간, '환승 중인 주체들(subject in transit)'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그는『딕테』가 국문학이나 비교문학이라는 기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텍스트적 퍼포먼스의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이며, 기억을 가장 잘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문학의 정치성을 제시한다"(나오키 100)고 주장한다. 또한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이중 언어 사용에 관한 린다 벨라우(Linda Belau)의 논의에 따르면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혼종성"이라는 전략적 장치, 즉 디아스포라적 이중적 의식을 배양함으로써 국가적 순수성과 문화적 자주성의 서사에 흠집을 낸다(71).

이창래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을 전반적으로 비교한 김대중의 연구는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자는 이들의 차이를 단순히 식민지 경험과 작가들의 관점 차이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두 작가는 소수인종 문학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자신들의 윤리와 정치, 미학적 세계의 미세한 균열을 제시한다는 것이다(44). 더불어 김대중은 이들의 작품에서 인종적 정

---

1) '미학적 장치'라는 표현에서 장치(dispositif)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용어를 빌려 '언어'가 가장 오래된 장치라고 설명한 부분에서 착안한 것이다(15-48). 본 연구에서는 미학적 장치라는 용어를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자주 거론된 전유(appropriation)와 유사한 맥락에서 미적 전략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체성에 관한 표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두 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작품 속 균열의 간극과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더 섬세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Ⅱ. 상상력의 재현: 증언의 방식

모든 형태의 이주를 뜻하게 되면서 그 외연이 급격히 넓어지게 된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이주가 만들어 낸 세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Kenny 9). 이 용어는 점차로 이주와 종족성에 대한 기존의 전형화된 사고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고향과 이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적 영역을 이야기하게 된다. 한편 이처럼 디아스포라 서사가 이주와 고난, 그리고 귀환이라는 기존의 공식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관심은 이주 과정 자체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주체가 이주를 통해 매개한 두 사회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계 1.5세대 디아스포라인 이창래와 이시구로는 상실의 경험이나 소속감, 결속의식과 같은 디아스포라 서사의 주요 소재를 벗어난다. 즉, 그들의 작품 속에는 고향이나 민족, 국가에 대한 향수가 크게 자리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은 후기작으로 갈수록 인종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더불어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적인 사건들 또한 작가가 실제로 체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증언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에는 망설여진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 기존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작가들을 연구해온 일반적인 시각과는 변별되는 방법론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아시아계 혈통을 가지고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글을 쓰는 두 작가들이 모국과 그 공간이 배태하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보통 이들처럼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접 겪지 않은 세대의 증언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억의 가능성 혹은 그 한계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역사의 파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서술할 것인가, 또는 포스트 트라우마 세대로서 그 역사에 대한 경험적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 사안들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것이다. 소수인종이라는 범주 안에서 주목받은 두 작가의 초기 작품들은 그 배경을 모두 자신의 모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런 문맥에서『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두 작가가 역사와 사건을 재현하는 방식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두 작품 속의 배경인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 전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일본의 군국주의, 즉 파시즘이다. 물론 이창래와 이시구로는 전쟁의 참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하는 역사의 트라우마는 개인의 사적인 역사를 통해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된다.『제스처 인생』과『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는 젊은 시절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각자의 비밀을 간직한 노년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참전의 경험은 곧 삶의 변곡점으로 기능한다. 현재 은퇴한 의료상인 하타(Franklin Hata)와 화가였던 오노(Masuji Ono)는 일본 군국주의라는 "거대한 덩어리의 일부"(*GL* 257)[2]로써 그 당시 위생병과 화가라는 책무를 다하며 국가에 충성했던 부역자라는 과거를 가졌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주인공들이 회고 과정에서 스스로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부인하기 위해서 언어와 기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작품 속에서 재현해내는 일본 군국주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들의 소수 인종적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또다시 주목을 받는다. 가령 티모시 라이트(Timothy Wright)는 일본계인 이시구로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방식"(61)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서 "역사는 부재하는 현전"(61)이라

2) Lee, Chang-Rae, A Gesture Life (Riverhead Books, 1999). 이후 이 작품에서 모든 인용은 GL로 축약하여 괄호 속에 면수만 적기로 한다.

설명한다. 이복기 역시 이시구로가 오노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를 마치 여러 신념 중 하나인 것처럼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가로서의 선택과 책임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163). 이창래의 경우 이시구로의 시선과 대비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트라우마의 폭력을 고발하고 역사 속 희생자들을 증언한다"(김대중 44)고 평가받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피식민인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위안부라는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비정치적이며 사적인 결말에 대한 지적이 거론된다(이석구 928).

이처럼 문학 작품 속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는데, 공통적으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경우 역사를 증언하는 방식이 사실 그대로의 충실한 재현을 강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작가가 역사를 바라보고 증언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들의 서사는 트라우마적 경험의 사실성을 규정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역사의 흔적들과 자국들의 발자취를 쫓는데 역점을 둔다. 다양한 미학적 장치를 통한 우회적인 재현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의 삶이 새롭게 정의되고 재창출되는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서술방식은 자기회고를 통해 기억을 왜곡하려는 서술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이는 마치 경계적인 위치에서 모국의 역사를 상상하고 사유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투영하는 것과 같다. 절제된 표현과 모호한 서술을 통해 감추지만 항상 남아있는, 그러한 흔적을 되찾는 작업은 역사 기록의 틈새를 보충하려는 상상력의 글쓰기,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 및 증언과 관련하여 두 작가의 작품에서 주의 깊게 볼 또 하나의 지점은 '재현 자체'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인 논점이다. 이것은 재현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라는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의 미학적 재현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경험의 모든 영역을 일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 아래서 가능한가를 화두로 던지는 랑시에르는 새로운 예술의 양식을 '증인의 이야기' 속에서 찾는다. 즉, 사유가 가능한 것을 초과하는 사건의 실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우리의 사유가 제어할 수 있는 것 사이의 본질적인 불일치를 증언하는 예술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핵심은 새로운 양식의 예술의 고유함은 바로 이러한 "제시 불가능한 것의 흔적을 기입하는 것임"(『이미지의 운명』 200)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랑시에르의 견해는 경계적 위치의 두 작가의 작품 속에 현현되는 상상력의 재현 방식을 랑시에르 식의 문학의 정치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준거점을 마련해준다.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두 작품 속에서 재현이 불가한 것들의 흔적을 기입하는 방식은 주로 사유를 초과하는 이미지들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매개적 성격의 인물과 양상을 통해서이다. 아울러 모호한 역사 재현과 은유적 표현, 1인칭 화자의 서사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틈은 랑시에르가 언급한 사유를 초과하는 어떤 것을 증언하는데 적절한 환유적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비워져 있는 곳에 기록될 수많은 이야기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Ⅲ. 매개적 성격의 인물과 양상: 부역자

"변화와 차이를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생성해나가는 것"(401)이라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정의처럼 초국가적 디아스포라는 이질적 문화들 사이에서 다양한 혼종과 갈등의 양상들을 만들어내며 국가와 민족, 문화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와 동시에 간혹 민족/국가는 경계지대(outside-between)에 있는 이들에게 소속의 공간이 아니라 도리어 부인과 사회적 비체화의 지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박미선 146). 이처럼 단선적으로 속단할 수 없는 디아스포라 작가들에게 정체성은 매우 예민하게 다룰 문제다.

디아스포라로서의 소속감의 부재나 난민의식은 소설 속의 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과도 연결되는데,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작중 인물의 성격은 곧 작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의 주인공과 실제 작가의 불일치하고 균열된 지점을 살피는 것은 더욱 흥미로운 논제이다. 이 균열된 지점에서 매개적 성격의 인물을 앞서 말한 증언의 방식과 연결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면 그와 같은 매개적 성격의 인물들 역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부역자라는 인물 설정을 통해 작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조명하고자 한 것은 이 작품들에서 분명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창래와 이시구로가 창조해낸 1인칭 화자는 자기기만과 부정, 자기합리화라는 서술적 특징을 갖는다. 그들은 급박한 역사적 상황 속 개인의 선택의 순간에 갈등을 겪었고, 그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채색해야 한다. 이때 전장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부대의 위생 안전과 위안부 여성들을 관리했던 하타와 전후 그의 제스처 같은 삶의 형태, 그리고 군국주의의 정치적 이상에 경력을 바친 후 예술가로서의 인생이 단절된 오노의 삶이 언어라는 기억의 여과장치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다.

짐작하다시피 『제스처 인생』과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두 주인공의 서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 진술인가 하는 진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화자는 본격적인 서사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과거를 "매우 불안정한 거울"(*GL* 5)로 비유한다던가, 자신의 과오를 기꺼이 인정했음을 확신하는 과장된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나 이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이야기가 진행되며 드러나는 일련의 모순된 서사는 두 인물이 자부하는 영광스런 과거가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불안의 요소로 감추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그들이 기술하는 모든 사건이 역사적 진실이 아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의 심리상태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지시하는 여러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가령 하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그 어떠한 부분도 기억할 수 없었다"(*GL* 305)라고 말한다던가 오노가 이야기의 끝에 "단언할 수 없다"(*AFW* 92)[3]와 같이 머뭇거림과 얼버무림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화제를 전환할 때 종종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끝맺거나, 스스로 시작한 이야기를 두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가 옆길로 새고 말았다"(*AFW* 28)거나 "이야기가 본론을 벗어나고 말았다"(*AFW* 151)는 것 역시 눈여겨볼 점이다.

그렇다면 이창래와 이시구로는 왜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 즉 매개적 성격의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창래는 한 인터뷰를 통해 본래 『제스처 인생』을 위안부의 시각에서 서술하려 했으나 위안부 생존자들과의 실제 면담 후 자신이 쓴 이야기가 결코 그들을 증언할 수 없음을 느꼈다고 고백했다(Garner). 이후 그의 차선책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남성의 복잡한 심리와 입장이었으며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인물이 한국 태생이지만 일본에서 양육되었으며 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복합적인 층위의 국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 하타이다(Lee 2001, 14). 자신의 첫 작품에서부터 전쟁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힘겨운 일상을 영위하는 인물을 선보였던 이시구로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는 그 주제 의식을 좀 더 심화시킨다. 셩 마이 마(Sheng-mei Ma)는 어린 시절 일본을 떠났던 이시구로가 자신의 기억 속 일본의 모호하고 제한적인 이미지를 이 작품 속에서 매우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시구로의 글쓰기의 강점인 암시적인 방식의 서술은 화자인 오노의 특질로도 연결된다.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돋움하며 본격적인 군국주의 국가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할 때, 오노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직접 전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전장으로 독려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수행했다. 참전을 종용하는 오노의 작품들은 많은 추종자를 양산해내며 자연스레

3) Ishiguro, Kazuo, An Artist of the Floating World (Faber and Faber, 1992). 이후 이 작품에서 모든 인용은 AFW로 축약하여 괄호 속에 면수만 적기로 한다.

그는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력자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인물이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수행한 "부역자"로서의 역할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 사회 속 유대와 후원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부합하는 단일한 정체성을 이루려는 하타의 열망은 항상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그를 추동했고, 이에 따라 배신자와 부역자라는 이름표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 터득한 그만의 생존 방식이었다. 가업을 거부하고 일찍이 화가를 꿈꾸던 오노의 경우 어린 시절 자신이 동경하고 바라는 예술세계에 대해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온갖 유혹이 들끓는 세상"(*AFW* 46)이라 폄하하는 아버지에 반해 무작정 장인의 작업장에 발을 들이는 추진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신이 선택한 예술세계와 이별을 고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아버지가 우려했던 그 세계의 유혹적 성격과 타락 때문이다. 예술세계의 불안정성과 퇴폐성, 일시성을 뛰어넘어 "요동치는 사태에 초연"(*AFW* 73)하고자 오노가 선택한 새로운 길은 새로운 일본 정신의 최선봉에 서는 것이었다. 즉 오노는 자신이 영원한 가치라 믿었던 군국주의 정치 혁명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고 만다.

패싱을 향한 자신의 욕구를 생략이나 변명을 통해 감추고 잘못된 관계 맺음을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하타의 모순과 선동과 선전을 위해 예술을 도구화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욕구와 권력을 탐했던 오노의 자기기만은 1인칭 화자를 신뢰하며 그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던 독자의 혼란을 부추기며 그들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전략적 장치이다. 그러므로 서사가 진행되며 독자는 이내 그들이 설명할 수 없으며,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러 이제껏 두 화자의 평화로운 현재의 삶에서 누락되고 배제된 은폐된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게 된다.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화자들의 모순된 서술의 원인은 서술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에서도 일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경험자아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이 서술자아의 서술방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 반대로 서술자아는 서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경험자아의 삶의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나병철 452). 두 화자의 고백 서사를 분석해보면 관찰자로서 하타와 오노는 자신들의 위치가 증인이자 목격자로서 자기 서술의 진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의 서사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닌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두 화자의 서술에서 "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망각된 것은 바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헌신과 참전에 대한 기억으로 얼룩진 과거이다. 즉, 그들의 일대기의 진실을 지시하는 것은 표면상의 유려한 회고가 아닌, 흡사 그들에게 결핍과 틈, 얼룩과도 같은 바로 그 생략된 과거이다. 하지만 서술을 거듭할수록 인위적 내러티브에 의해 구성된 의미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그 붕괴된 공백의 지점에서 잔존하고 있던 침묵과 금기의 과거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사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하타와 오노의 조작된 목소리는 알렉시스 모츠(Alexis Moutx)의 지적처럼 "자기합리화와 잦은 입장변화로 이어지며 실제와의 간극을 조성한다"(413). 이러한 인물들의 양상은 삶 속에서 다시 제스처나 우키요에 모티프를 통해 은유적으로 반복된다. 레베카는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에서 부역자의 역할을 한 오노의 이야기를 "몸짓언어에 가까우며"(1053)라고 표현하면서 예술가 오노를 작가 이시구로와 은유적 관계로 동일화하고 있다. 하타의 제스처에 대해 앤 칭(Anne Anlin Cheng)은 "그의 제스처의 특징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태도가 윤리적 무능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한다(10).

이와 같이 매개적 성격의 인물들은 문학을 통한 증언이란 어떻게 가능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노뿐만 아니라 이창래 소설 속의 스파이, 청소부, 잠수부 등의 인물들과 그들의 제스처와 같은 삶의 태도, 그리고 이시구로 소설 속의 풍속화 우키요에를 비롯해 재즈, 녹턴 등 음악 모티프와 같은 미학적 장치는 두 작가만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현하고 증언하는 방식을 보

여주고 있다.

IV. 보편성의 추구: 전략과 비판

랑시에르는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에서 예술의 정치가 예술가들의 정치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문학이 세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문학이 기존의 사물들에 새롭게 이름을 붙이면서 단어들과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생성하게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탈정체화의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게 된다고 설명한다(『문학성』 448). 즉 말을 유통하고 가시적인 것을 전시하며 정서를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들이 기존의 체계와 단절하고 새로운 역량을 규정한다는 의미"(랑시에르 『해방된 관객』 91)에서 미학의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들의 정치에 앞선 예술의 정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글쓰기는 두 가지 것 사이의 경계인 동시에 통로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인 것이다. 두 작가는 소설 세계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작가 스스로 역사를 어떻게 상상하고 이야기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민족/국가 체계의 안팎에 걸쳐 있으면서 기존의 서사 체계에 포획되지 않은 것들의 창조적인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역사를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매체의 진정한 소통의 근거와 의미를 찾는다.

더불어 이창래와 이시구로의 작품세계는 점진적으로 어느 한 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보편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작가들은 왜 인종적 정체성이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재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인간과 예술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일까. 중립적인 시각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글쓰기, "보편적이고 세계적 문학과 아시아인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차이의 간극"(김대중 42)은 단지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왜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양면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두 작가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계라는 소수인종의 프레임을 고사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종 문제에 갇히지 않으면서 인간, 역사, 책임, 윤리 등 보편적인 영역을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서사 전략은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무화시키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국민 국가 인종의 특수성을 지우면서 인간과 예술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지점을 미학적 전략으로 볼 것인지 정치적인 책임 문제와 연관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기존의 아시아계 디아스포라 소설과는 다른 구도를 취해나가고 있는 두 작가의 강점은 경계적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토대로 점차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창조적인 실험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두 작가가 작품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 보편의 문제는 소수인종의 특수한 상황과 소재를 세계 문학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하며 더욱 다양한 독자층을 포용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아시아계라는 거대담론 속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인종 문학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시아계라는 큰 구도 안에 내재하는 다양성과 특수성에 주목하고 동시에 이러한 변화된 문학적 지형들을 인식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급한 도식화를 피하지 않고 각각의 작가들이 재현해내는 개별성과 문화적 차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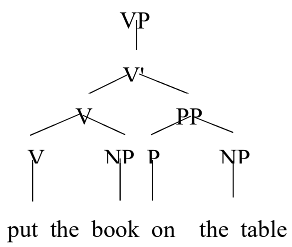
L2 Acquisition Status of English (In)transitivity on A C-selected Complement Factor

Lee Eun Kyeong, Kim Chang Su
(Jeonju university, Konyang univerisity)

I. Introduction

The cross-linguistic verbs around the world have a strong impact on syntactic or functional aspect now that they could own the overwhelming power distinguishing and controlling the sentential quality and quantity. Also, the English sentence with head-initial SVO word order unlike head-final Korean SOV order would include an important role of a head-projected verb posited in a central position, consistently claiming that it would decide a sentence's whole coverage by its intrinsically subcategorized scope. Let us observe the sentence like *I put the book on the table*. In the tree diagram (1) shown below, a verb *put* selects a thematic object NP *the book* and a locative PP *on the table* as necessary elements where both the elements are not optional but obligatory attributes in this text. That is to say, considering that a sentence's frame is absolutely dependent on a presented verb, it would sometimes block the derivation of unnecessary elements or at other times, extend the sentential circumstance structurally.

(1)



Traditionally, English sentence types are divided into 5 common types that range from type 1 to type 5 in that a verb is accompanied by complement factors such as an object (N) or a complement (N or A) followed right after an individual verb. As seen in the example (2), the former is represented as a noun in (2c, 2d, 2e) and the latter as a noun or an adjective in (2b, 2e) on the basis of an invisible and versatile property of a verb apart from a modifiable adverb working functionally or supporting temporarily in (2a-e).

(2) a. Type 1 (complete intransitive verb): S V (Ad)
b. Type 2 (incomplete intransitive verb): S V SC (Ad) & SC (subject complement)
c. Type 3 (complete transitive verb): S V O (Ad)
d. Type 4 (complete ditransitive verb): S V IO DO (Ad)
e. Type 5 (incomplete transitive verb): S V O OC (Ad) & OC (object complement)

Thus, as formulated in Figure 1, there are two types of detailed classifications within 5 sentence types in the viewpoint of conventional verb labeling. Type 1 and type 2 are called intransitive verbs and type 3, type

4 and type 5 transitive verbs by an object's (non)existence. Meanwhile, a complement's occurrence or unnecessity is separate from incomplete or complete status given that type 2 and type 5 are incomplete and type 1, type 3 and type 4 are complete. That is why a designated complement (SC & OC) in type 2 and type 5 seems to need an extra element with sentential continuity but not ending after a verb (type 2) or an object (type 5). On the other hand, three other types (type 1, 3, 4) would have the high possibility to be finished as it is without a following factor. That is to say, 5 sentential patterns described in the example (3) are named after c-selected grammatical elements deriving from a main verb of a sentential clause.

Figure 1

verb	type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intransitive	O (x)	0	0			
transitive	O (0)			0	0	0
incomplete	C (0)		0			0
complete	C (x)	0		0	0	

(3) a. Type 1: A checkup will occur suddenly next Monday. (Ad + AdP)
b. Type 2: He got upset with me. (A + PP)
c. Type 3: She dated her boyfriend on the street. (N + PP)
d. Type 4: They bought him a new suit. (N + N)
e. Type 5: She thinks them considerate. (N + A)

In the case of Lee (2020)'s previous survey through English L2ers in class, three predictions are confirm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the acquisition degree of intransitivity is far easier than that of transitivity. Next, two-sided verbs with both intransitivity and transitivity such as *prepare (for)*, *consult (with)*, *escape (from)*, *join (in)* etc. would induce significant trouble to L2ers. Lastly, Korean L1's momentous transfer could influence L2's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cess in positive or negative manner according to the variable circumstances. Especially, it is obvious that L2ers with low English proficiency tend to be deeply subjected to L1's condition compared to intermediate or advanced groups.

In a continuous vein, this paper intends to cast some questions from a different viewpoint toward the same target. Above all, how much does the correction rate type 1 through type 5 differ depending on the sentential circumstances? Next, in S.C position of (4a-c) & O.C position of (4d-f) involved in the respective sentence type 2 and 5, is choosing the proper complement forms in three options tricky as the example (4) below? Also, are English L2ers influenced by L1's interpretative intervention of their inborn mother language? In a nutshell, it is so questionable to which degree English L2ers understand and produce this grammatical text c-selected by an individual verb assuming that it would possess a wide variety of meanings and textual variables.

(4) a. The man appeared (surprised / surprise / surprisingly).
b. The accidents happens (continuous / continuously / continuity).
c. The story sounds (strange / strangely / strangeness).
d. I feel my inner power (intense / intensity / intensely).
e. She considered her son (reason / reasonable / reasonably).
f. The CFO believed the contract (successful / success / successfully).

3.2 Expected Predictions

Here are three predictions to be demonstrated through the survey.

(9) a. Hypothesis 1: The correction rate ranging from Type 1 to Type 5 will vary depending on each complement factor.
b. Hypothesis 2: In sentence type 2 and 5, deciding complement form(S.C & O.C) with a noun or an adjective will be difficult because of L2er's conceptual lack.
c. Hypothesis 3: Semantic overlapping between verb pairs will have a problem understanding the grammatical relationship.

4.2 Hypothesis Discussion

4.2.1. Hypothesis 1: The correction rate of each sentence type is variable.

It means that the distinction of the sentence type contingent on a verb's syntactic knowledge would be quite tough regardless of the L2er's English proficiency level. There are three primary viewpoints to be perceived in (10) analyzed from Table (2-6) below: first, the acquisition ranking on each sentence type is as follows: Type 1 > Type 4 > Type 5 > Type 2 > Type 3. Secondly, whereas speaking groups G1, G2 and G3 mark the low position, TOEIC groups and advanced class G4, G5 and G6 pose a relatively high status. Lastly, G3's remarkable characteristic is noticeable in that it would bear flexible position as shown in the underlined part of (10) in spite of TOEIC speaking class. That is to say, it seems that G3 with intermediate speaking practice do not establish the stable grammatical foundation by checking that this group only concentrates on the communication skill apart from the concrete structural source or details.

10) Type 1 : 66% → G5 > G4 > <u>G3</u> > G6 > G2 > G1
Type 2 : 38% → G6 > <u>G3</u> > G4 > G5, G1 > G2
Type 3 : 36% → G5 > G4 > G6, <u>G3</u> > G1 > G2
Type 4 : 47% → G6 > G5 > G4 > <u>G3</u> > G2 > G1
Type 5 : 45% → G6, G4 > G5 > G1 > G2 > <u>G3</u>

4.2.2 Hypothesis 2: Complement form is either a noun or an adjective.

Table 3 and Table 6 re-mentioned in (11) show the resultative figure of each verb's correction rate of Type 2 and Type 5 in an order,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a noun, an adjective and an adverb as the selected complement forms are exemplified for L2ers to circle the conceptually appropriate answer.

(11) a. Type 2: seem (64%) > look (58%) > sound (42%) > remain, prove (30%) > appear (23%) > happen (21%)
b. Type 5: consider (60%) > believe (56%) > leave (44%) > find (43%) > keep (36%) > feel (33%)

Most English verbs do not stick to the fixed sentence type considering that one verb has been traditionally utilized in various circumstances. The complements of its linking element are available in a noun and an adjective in a limited way. In detail, whereas a noun is called an appositive of a name, a job, an age or a social position of any identity, an adjective is state-descriptive explaining the character, appearance, emotion or personality of a main agent. Unnecessarily, an adverbial of a semantic modifier does not function structurally as the conclusive factor in determining the sentence type. Nevertheless, English L2ers are so sensitive to understand the crossing of syntax and semantics.

4.2.3. Hypothesis 3: L1's semantic intervention is confusing.

This sort of prediction concentrates on the mandatory choice of the complement form in the sentence Type 2. That is why these verbs before the argument option lean toward L1's biased construal: Korean particles such as -haeseo, -hagae, -inchaero, -ro tend to be pardonably applied in marking a subcategorized element of a designated English verb, thus, causing many unexpected grammatical errors. Originally, it is obvious that the verbs reanalyzed in Table 3 are regarded as the predicate phrases (verb + adjective) in a chunk of the typical Type 2 presented frequently in the certified English Test like TOEIC.

Table 3. Type 2 verbs' correction rate, G1(19), G2(15), G3(27), G4(35), G5(29), G6(29)

No / G*	G1	G2	G3	G4	G5	G6	%
18. appear(a/n/ad)	2,11,7	4,6,5	4,9,14	5,10,20	9,4,15	11,6,12	23
22. happen(a/ad/n)	5,10,4	2,8,5	8,15,4	8,20,5	5,23,1	4,23,2	21
25. look(a/ad/n)	3,14,3	8,6,1	19,4,4	24,9,2	11,15,3	24,4,0	58
30. seem(a/ad/n)	10,5,4	4,10,0	20,6,1	30,4,1	19,9,1	16,5,2	64
36. remain(a/ad/n)	8,9,2	4,7,3	6,16,5	8,24,3	8,20,0	12,8,3	30
56. prove(a/ad/n)	9,8,2	3,9,2	9,17,1	10,21,1	6,19,4	9,12,2	30
58. sound(a/ad/n)	8,7,4	6,7,1	13,13,1	13,18,1	12,14,3	12,10,1	42
N	45	31	79	98	70	88	-
%	34	30	42	40	34	43	38

However, as for L2ers' basic response, the verb particles are interpreted as a direct way: *appear* (-haeseo / -hanchaero natanada), *happen* (-hagae / -ro balsaeonghada), *look* (-ro / hagae boida), *seem* (-hagae boida), *remain* (-ro / -inchaero namaitda), *prove* (-inchaero / -ro panmyeongdaida), *sound* (-hagae / -ro deulrida). So, a huge number of L2ers are inclined to mark a modifiable adverb (shade part), but not a state-descriptive adjective (underlined part) due to the L1's imprudent intervention. This secondary mistake is negatively done by Korean interpretation prior to naturally accepted English intuition. It is said that all proportional figures of groups are well under 50% and simultaneously, there is not a substantial gap between groups. Thus, as mentioned in Table 3 the low groups G1 (34%), G2 (30%) are posited as the expected bottom rank and advanced group G5 (34%) unlike G6 (43%) would occupy the low position.

4.2.4 Each sentence type's mutual value via SPSS

Unlike the existing separated 6 groups, Table 7 below indicates the complementary difference of two targeted groups largely split into grammar (Group A, N = 93) and conversation class (Group B, N = 61) on the basis of M (mean) and SD (standard derivation) in order to see newly designed two groups' gap. It is confirmed that Type 1 (t = 5.29*** & significance .000) and Type 3 (t = 3.96*** & significance .000)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Type 2 (t = 0.82 & significance .414) no difference, Type 4 (t = 3.01** & significance .003) intermediate difference and Type 5 (t = 2.89* & significance .004) slight difference. In sum, what is the most noticeable here is that the overall 5 types' correction rate of Group A and B would demonstrate considerable differences. (t = 5.01*** & significance .000) Furthermore, in the light of the average value (27.35 > 21.39) of all sentence types a grammar group A turns out to have a higher acquisition status than a conversation group B.

Table 7.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G* / Type	G/A (N. 93)	G/B (N. 61)	t	significance probability
	mean (M) & standard derivation (SD)			
Type 1	5.91 (1.86)	4.36 (1.67)	5.29^{***}	0.000
Type 2	2.74 (1.32)	2.56 (1.38)	0.82	0.414
Type 3	14.60 (5.67)	11.41 (3.37)	3.96^{***}	0.000
Type 4	1.10 (0.74)	0.74 (0.70)	3.01^{**}	0.003
Type 5	2.99 (1.52)	2.33 (1.17)	2.89^{*}	0.004
All	27.35 (8.32)	21.39 (5.04)	5.01^{***}	0.000

(N = number & t = t value) & $^{***}P < .001$, $^{**}P < .01$, $^{*}P < .05$

Ⅴ.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attempts to delve into English L2ers' recognition degree regarding (in)transitivity of countless English verbs ranging from Type 1 to Type 5. It is argued how they realize each sentence type and what its relevant reasons are. Here are three verified outcomes of the predicted assumptions: first, the correction rate from Type 1 to Type 5 would be flexible depending on its following complemental factor. Second is that filling complement position with a noun or an adjective in sentence type 2 and 5 is picky because of L2ers' theoretical deficiency. Third, L2ers tend to choose the confusing complement factor by L1's continuous intervention. In addition, as extra work the grammar and conversion group hold dissimilar pattern of significanc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entence type. Eventually, the accurate knowledge on diverse verbs makes English L2ers gradually or radically boost English ability, which implies that this theoretical background is expanded to writing and speaking area in a righteous manner.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진희(창신대학교), 한가영(창신대학교)

Ⅰ. 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2020년 3월에는 WHO가 팬데믹으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2월 2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강연기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의 약 96%가 개강을 연기하였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수업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결정으로 갑자기 시행하게 된 온라인 수업은 준비나 대비가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생겨났다. 급기야 대학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집단 감염의 최소화 수단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알아봄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발행된 국내 학술지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받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Textom) 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교육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도입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키워드의 특징과 토픽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들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온라인 수업 관련 해당 이슈들을 분석하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체계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Ⅱ.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온라인 수업의 정의와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광훈(2012: 2), 이쌍철, 김정아(2018: 117), 최락인, 조정길(2019: 938), 박상훈(2020: 3) 등의 연구들을 통해 온라인 수업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시공간에 상관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의 제작,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적으며, 엄선된 강의자가 미리 준비하여 녹화한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의 편차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성주, 정진욱,

최윤정, 2018). 하지만 교사와 학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처럼 인격적인 측면을 전달하기 어려우며, 실시간 토론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통적 교실 학습에서와 같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한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다(양금희, 2005).

코로나19 이후 확대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거나 개학 연기 사태를 경험하는 학교 사례를 탐색하고,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고등교육의 이슈, 온라인 교육을 통한 포용적 교육의 실천 및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해외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상미, 2020: 1093).

2.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의미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정보는 크게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는 워드프로세서, e-mail,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PDF와 같은 복합문서와 인터넷 페이지 등의 비정형 텍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불리며 문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이러한 비정형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니라 context의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즉,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특정 주제와 연관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정근하, 2011:40).

의미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란 사회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때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한 방법이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사회현상의 원동력을 각각의 개체가 아닌 개별 행위자가 연결된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의미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행위자 대신 메시지의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최윤정, 권상희, 2014: 250). 즉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은 문서 전체에서 특정한 단어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를 파악하고, 그 단어들의 관계 안에서 특정 단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풀잎, 안현철, 곽기영, 2019; 유소연, 임규건, 2021: 51).

의미네트워크 분석은 개별 단어의 조합이 아닌 전체 연결망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키워드 간 연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잠재적 의미와 지식구조를 시각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승곤, 설현도, 2020: 3). 그러므로 의미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담긴 의도적인 의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최윤정, 권상희, 2014: 252).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크게 자료 처리 단계와 자료 분석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림 1] 연구 절차

자료 처리 과정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정보 검색 및 추출
		중복 연구 제거
	자연어 처리	Textom 활용 형태소 분석 및 명사 추출
		유의어 및 불용어 등 정제화 작업
자료 분석 과정	의미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시각화(노드, 링크)
	주제 추출 및 분석	토픽 모델링(LDA)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국내 학술지 논문의 국문 초록 총 212편을 수집해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의 초록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집되었다. 손민성, 임미자, 박경환(2021: 34)에 따라 '온라인 수업',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 '원격수업', '원격교육', '원격강의'를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것', '등', '점' 등의 1글자 단어와 '다음', '가지', '동안' 등의 의미화하기 어려운 단어를 제외하였다. 키워드로 사용한 '온라인 수업', '온라인 교육', '온라인 강의', '원격수업', '원격교육', '원격강의'를 모두 유의어로 지정하였으며, 학생은 학습자와, 교수 및 교사는 교수자와 유의어로 지정하였다. 또한 강의는 수업과, 등교 수업은 면대면 수업과 유의어로 지정하는 등의 정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에서 사용된 개별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TF-IDF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핵심어 간의 연결 구조 파악을 위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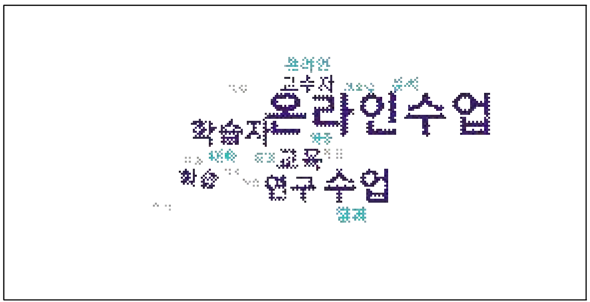
4.1 빈도분석

다음 [표 1]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논문의 국문 초록에서 추출된 명사 중 출현 빈도 기준 상위 20개에 포함된 단어의 출현 빈도(TF), TF-IDF 값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은 해당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이다. [그림 3]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에 관한 논문 초록에서 상위 50개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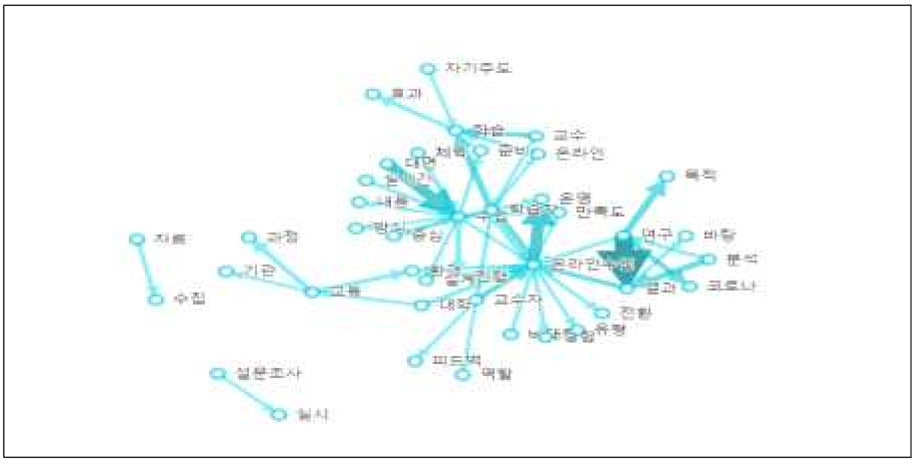
[표 1] 주요 단어 출현 빈도, TF-IDF, 및 연결중심성 (상위 20개 단어 기준)

순위	단어	출현 빈도(TF)	TF-IDF	연결중심성
1	온라인수업	1,057	133.3	0.196
2	수업	786	227.4	0.158
3	학습자	594	117.9	0.144
4	연구	583	37.1	0.109
5	교육	509	216.1	0.129
6	학습	409	173.7	0.088
7	교수자	370	234.3	0.095
8	결과	311	72.7	0.071
9	온라인	289	180.5	0.080
10	대학	267	194.1	0.074
11	분석	244	118.2	0.071
12	활용	191	154.4	0.054
13	운영	177	185.5	0.041
14	코로나	163	115.3	0.041
15	효과	152	161.3	0.044
16	진행	151	132.1	0.047
17	인식	142	165.0	0.041
18	교수	141	133.3	0.047
19	환경	135	139.6	0.036
20	방법	132	141.9	0.047

[그림 2]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상위 20개 단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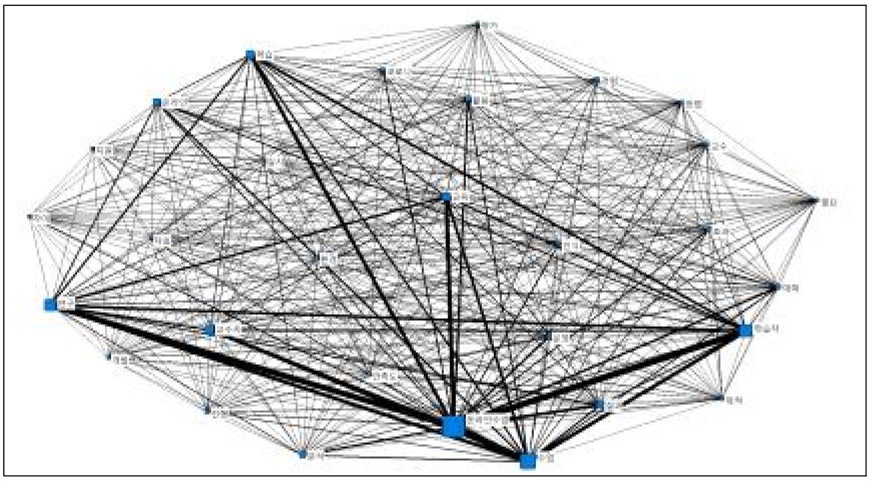
[그림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4.2 의미네트워크 분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UCINET 7.724의 Net Draw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의미네트워크 분석 결과



4.3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의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Textom 5.0에서 기본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픽 수 10개, 토픽 단어 수 20개로 토픽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10개의 연구 범주는 다음 [그림 5]와 같으며, 토픽 그룹을 구성하는 단어는 다음 [표 2]와 같다.

[그림 5] 연구 주제 그룹

[표 2] 토픽 모델링 결과(λ=0.38)

토픽 그룹	% of articles	단어1	단어2	단어3
1	12.5	온라인수업	학습자	만족도
2	2.3	토론	실습	교원
3	9.1	교육	학교	디지털
4	3.1	품질	가정	불평등
5	2.6	역할	연수	의향
6	5.6	학습	효과	영향
7	8.0	온라인수업	교수자	인식
8	10.1	온라인수업	학습자	평가
9	11.2	온라인수업	학습자	역량
10	35.6	수업	온라인수업	학습자

토픽 그룹 10은 전체의 35.6%에 해당하는 주제로 ‘수업’, ‘온라인수업’, ‘학습자’ 등의 단어가 그룹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의 약 35.6%가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와 관련된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수업과 학습자 관련 연구는 만족도, 인식, 성취도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1, 그룹 3, 그룹 7, 그룹 8, 그룹 9와 주제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룹 6은 ‘학습’, ‘효과’, ‘영향’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룹 4는 ‘품질’, ‘가정’, ‘불평등’ 등의 단어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여건 및 학습 격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룹 5는 ‘역할’, ‘연수’, ‘의향’ 등의 단어를 포함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원의 역할과 교원의 연수에 관련한 연구들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그룹 2는 ‘토론’, ‘실습’, ‘교원’ 등을 다루는 연구로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습 교육 및 토론의 어려움 등을 다루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온라인 수업 관련 해당 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총 212편의 논문을 토픽 모델링한 결과 10개 주제로 분류 가능했다. 온라인 수업과 학습자(그룹 10), 학습자의 만족도(그룹 1), 학습자 역량(그룹 9), 온라인 수업의 평가(그룹 8),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리터러시(그룹 3), 교수자의 인식(그룹 7), 온라인 학습의 효과와 영향(그룹 6), 교육 여건 및 학습의 격차(그룹4), 교원의 역할과 연수(그룹 5), 온라인 실습(그룹 2) 등으로 연구 주제는 다양했다. 연구 주제의 분포는 온라인 수업과 학습자에 관한 연구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5.6%, 학습 격차에 관한 연구 3.1%, 교원의 역할과 교원 연수 주제 연구 2.6%, 온라인 수업에서의 실습 문제가 2.3%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 그룹 1, 3, 7, 8, 9, 10은 연구 주제가 겹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 수업과 학습자 관련 연구가 만족도, 인식, 성취도, 효과 등의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연구는 대부분 뉴스나 SNS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나,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관련 분야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 범위가 국내 학술지에

한하고 있고, 논문 초록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김상미(2020). 코로나 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1091-1100.

박상훈(2018).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 1-9.

손민성, 임미자, 박경환(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분석: COVID-19 전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29-43.

양금희(2005).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학습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장로회신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교수학습법 연구논문집 (1), 149-181.

유소연, 임규건(2021).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뉴스 의제 분석: 코로나 19 관련 감정을 중심으로. 지능정보연구, 27(1), 47-64.

이성주, 정진욱, 최윤정(2018).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대체성 및 보완성에 대한 실증분석: 성인 외국어 교육. 한국경제학보 (구 연세경제연구), 25(1), 45-60.

이쌍철, 김정아(2018). 학생의 온라인수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 115-138.

정광훈(2012).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정근하(2011).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서, 3, 1-138.

정풀잎, 안현철, 곽기영(2019).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스마트폰 디자인의 핵심속성 및 가치 식별. 대한경영학회지, 32(1), 27-47.

최락인, 조정길(2019). 제4차 산업혁명과 이러닝 콘텐츠의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935-944.

최윤정, 권상희(2014). '빅데이터'관련 신문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1), 241-286.

황욱선(2019). 원주 공항 이용객의 관심 이슈에 관한 빅 데이터 시각화 분석. 호텔리조트연구, 18(1), 147-163.